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기억

HIH PRINCE IMPERIAL UI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KOREAN IMPERIAL FAMILY
RECORD AND MEMORY

2022.10.14.-2023.01.2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목차

CONTENTS

인사말	4
Foreword	
조효숙 경운박물관장	
이해경 의친왕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 준 의친왕기념사업회장	
의친왕 연표	10
Chronology of Prince Imperial Ui	
I 의화군	12
Prince Uihwa	
II 의친왕	36
His Imperial Highness Prince Imperial Ui	
III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60
Prince Imperial Ui and His Involvement in Independence Movement	
IV 의친왕비	90
Her Imperial Highness Princess Ui	
V 사동궁 이야기	110
Family Story of Prince Imperial Ui	
VI 특별논고	142
Essays	
이 준 의친왕기념사업회장	
이영주 의친왕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배선영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장	

의친왕의 독립운동과 사동궁의 기억들

조 효 숙

경운박물관장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은 의친왕의 5녀 이해경 황손께서 2003년 개관 초기부터 의친왕비 원삼을 기증해 주신 깊은 인연을 갖고 있으며, 의친왕의 따님 중 4명이 경기여고 졸업생입니다. 이러한 의친왕 집안과의 인연으로 경운박물관에서는 2022년 가을 전시에서 의친왕(李熙, 1877~1955)에 관한 역사적 인식 재고와 의친왕의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의친왕 6남 이곤(李琿, 1919~1984)의 아드님인 이준 황손께서 지난 7월 설립한 사단법인 의친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특별기획전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친왕은 1877년 고종의 둘째 아드님으로 태어나 1891년 의화군으로 봉해졌으며 1900년 의왕 책봉을 거쳐 1906년 귀국 후 금책과 금보를 받았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고종과 순종, 영친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대중에게 인지도가 낮은 의친왕에 관하여는 단독 전시가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의친왕의 업적을 소개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의친왕의 참된 면모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제국 황족 중,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의친왕의 의병 및 독립군 양성계획, 임시정부로의 망명 등 독립운동을 위해 힘쓴 의친왕에 초점을 맞추고, 의친왕과 함께 힘을 모은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중요 전시 품목으로는 경운박물관 소장의 원삼, 당의, 화관 등 의친왕비 복식 일괄 유물 9점을 포함하여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의 중요 유물들, 여러 박물관과 개인에게 흩어져 보관되어온 의친왕 관련 친필, 전적류, 벼루, 인장, 훈장 등의 소장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또한 의친왕이 살아오셨던 가옥, 그러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모두에게 잊혀진 사동궁(寺洞宮) 양관과 관련된 사진, 생활유물, 간찰, 족자, 병풍, 가구 등도 함께 전시하여 사동궁의 일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보물로 지정된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의 「의왕·영왕 책봉의궤」,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의 의화군 시절의 친필, 제국익문사 인장 등은 이번에 최초로 전시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번 전시가 의친왕을 삶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왜곡되었던 대한제국 역사를 정립하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운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1부 <의친왕의 기록과 기억>에서는 의친왕의 5녀이신 이해경 황손과 의친왕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이준 황손 및 이영주 사무총장,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배선영 관장님의 기억을 회상하는 발표와 더불어 2부에서는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역사학자이신 이태진 교수님, 정병준 교수님, 반병률 교수님의 학술발표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연구발표를 허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친왕 관련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협조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의왕·영왕 책봉의궤」, 의왕의 단령과 원유관 등을 대여해주신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과 「의왕책봉금책문」, 「의화군가례등록」, 「의화군 관례·길례시 의복발기」, 「의친왕궁 아기의복발기」, 「제국익문사비보장정」 등의 귀한 서지류를 대여해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서울역사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개인 소장자이신 이근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 공개되는 의친왕의 친필 서지류와 가구 등을 협찬해서 전시를 빛내주신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영주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소함을 실천하였던 왕실

이 해 경
(의친왕의 다섯째 딸)
의친왕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의친왕 전시회라니, 내가 내 생전에 이런 경사를 보게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경운박물관과 의친왕기념사업회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 전시회를 열게 된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첫째 해완(24회), 둘째 해원(27회), 셋째 해춘(27회) 언니, 그리고 운현궁 오라버니(홍영군 이우)의 부인이셨던 박찬주(22회) 언니께서 다니셨던 자랑스러운 경기여고에서 본 전시가 이루어진다니 더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에 전시된 모든 물건들이 왕실에서 쓰이던 물건들이라 여러분에게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쓰시던 의친왕의 마음은 언제나 나라를 잃은 왕자의 슬픔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나라를 찾아보려 하다 실패한 분노와 슬픔으로 비통해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사동궁의 많은 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분이 가신 지도 68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분의 유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니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황제의 친왕으로 책봉된 남편을 법으로 모시고 일평생 불평 한번 못하고 아버지의 뒤에서 집안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고 언제나 그분을 위해 살다 가신 의친왕비 김씨의 유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느 분들이 일제시대 동안 왕실이 사치를 하고 최고급 물건만을 사용하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왕실의 유물들이 화려하고 비싼 물건이라고만 보지 말아주세요. 어른들께서는 언제나 검소함을 실천하셨고 왕실에서는 모든 것을 법도에 맞추어서 갖추어야 했지만 사치는 절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의친왕비께서 쓰시던 노리개 황금 호리병 또한 도금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그 분들이 사치를 지양하셨다는 모습에 다시 한번 숭고해집니다.

아무튼 이 전시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시회의 유물들을 통해 의친왕이라는 분을 기억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런 내 모교 경기 여고의 동문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2022년 10월 21일

후불관에서 개최하는 의친왕 전시회라니 어가 일전에
이런 경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경운박물관과 의친왕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의
많은 주교와 노력으로 이 전시회를 열게 된 데 대하여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의친왕의 궁중생활, 정예 해군, 돌격
대원, 셋째 후손들. 그리고 온천궁으로 양자한 줄래요 때
(중간)인 박헌주공에게서 역시도 양자한 왕후스러운
황태후에서 본인이자 이왕이신 분이 더욱 감개가 무량
합니다.

여기에 전시된 모든 물건들이와 여러분들에게는 화려하게
보일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쓰시며 의친왕의 마음은
인제나 아아를 잃은 왕자의 슬픔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 아아를 찾아보려 하다 실패한 분노와 슬픔으로 비유해
하실분 보습이신에 찬합니다.

그리고 전국전망에서 시공을의 같은 유물들이 사라졌습다.
이바지배이 가진지도 63년이 지난 지금 어라곳에 묻어서
있던 유물들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개최한과니 감격무량
한행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원왕으로 혁명된 남연호 법으로 모시고
일평생 불행 한번 못하고 집안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고
언제나 그분을 귀히 삼아 주신 의친왕이후들도 잊지되며
있습니다.

관후 이분들이 왕실에서는 사리를라고 최고급 물건만을
사용하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착각할 하일기 모르지만
왕실의 유물들이 화려하고 비싼 물건이라 그반 보지말라
유물로. 역운을 깨우는 언 제나 장소함을 실천 하였고
왕실에서는 모든것들은 법으로 다루어야 했지만 사치는
절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친왕비께서 스승전
승으로 명 노리기도 드금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왕실에서는
사치를 금하였고 그분들이 사치를 자랑 하였던다는 보습이 과시한반
승고해됩니다.

이 전시회에 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시회의 유물들을 통해 두렵을 위해 애쓰신 의친왕이란
분을 기억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런 내 모교
경기여고의 동문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2022년 10월 21일

36회 졸업생 이태경

이해경(1930~)은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원고를 친필로 작성하였다. - 편집자 주

자랑스러운 황실의 독립운동

그동안 나라를 빼앗겼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황실의 항일독립운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종황제를 포함하여 황실의 인물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비밀리에 전방위적인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황실독립운동의 중심에는 바로 고종황제의 2남인 의친왕 이강이 계셨습니다.

의친왕 전하는 24시간 삼엄한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자 사동궁에서 술과 여색에만 빠져 파락호 생활을 했다는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시고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많은 독립운동가에게 지원하셨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의병을 양성하였고 해외로 황실의 요원을 보내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독립운동의 특성상 사료와 증거가 많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황실독립운동의 역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준(의친왕가 종손) 의친왕기념사업회장

의친왕 이강께서 가신 지 68년이 지난 지금 의친왕가의 가족들과 황실 종친 그리고 당시 의친왕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자손들은 의친왕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의친왕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역사에 가려진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자 일어섰습니다.

본 전시는 의친왕 이강 전하에 관련한 국내, 아니 세계 최초의 전시입니다. 황실가와 의친왕가의 따님 대부분이 순정효황후께서 건립하신 경기여고 출신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내 경운박물관에서 의친왕 전하의 뜻깊은 전시가 이루어짐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고종황제께서 전 세계에 독립을 선포하며 건국하신 대한제국의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군주제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지만 대한제국 선포의 독립정신과 광무개혁을 통한 개혁의지, 그리고 일제의 아픔 속에서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황실의 기개는 단순히 식민지 개념만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에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서 열리는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기억〉 전시가 의친왕 전하의 숭고한 뜻을 알리기 위한 첫 걸음이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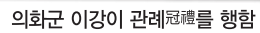
특히 경운박물관의 조효숙 관장님과 장경수 前 관장님, 박경자 부관장님과 설영자 부관장님의 황실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본 전시를 후원해주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께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황실 가족의 답답한 업무 진행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경운박물관 학예사님들, 전시팀, 도록출판팀 등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학술적으로 본 전시에 꽃을 달아주시는 이태진, 정병준, 반병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황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경운박물관과 인연 맺어주신 이해경 고모님의 사랑과 본 전시에 후원, 격려해 주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원 황사손, 전주 승광재 이석 숙부님, 삼호개발 이영열 대표님과, 저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유물을 준비하며 전시감독을 맡아준 윤현궁 이영주 동생과 김대영 박사, 김예성 박사의 지치지 않는 열정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친왕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했으나 이름과 신분을 숨겨야 했던 제국익문사 출신의 자손들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친왕가의 모든 가족들과 관계자를 만나며 ‘의친왕기념사업회’의 발족을 준비하며 흘렸던 땀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보람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의 전시와 더불어 ‘의친왕기념사업회’의 앞날에 많은 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hronology of Prince Imperial Ui



의화군 이강이
가례嘉禮를 행함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고종황제의 둘째 황자皇子인 의화군 이강이 '의왕'에 책봉

*장관회의소將官會議所에 딸린
칙임勅任의 무관 벼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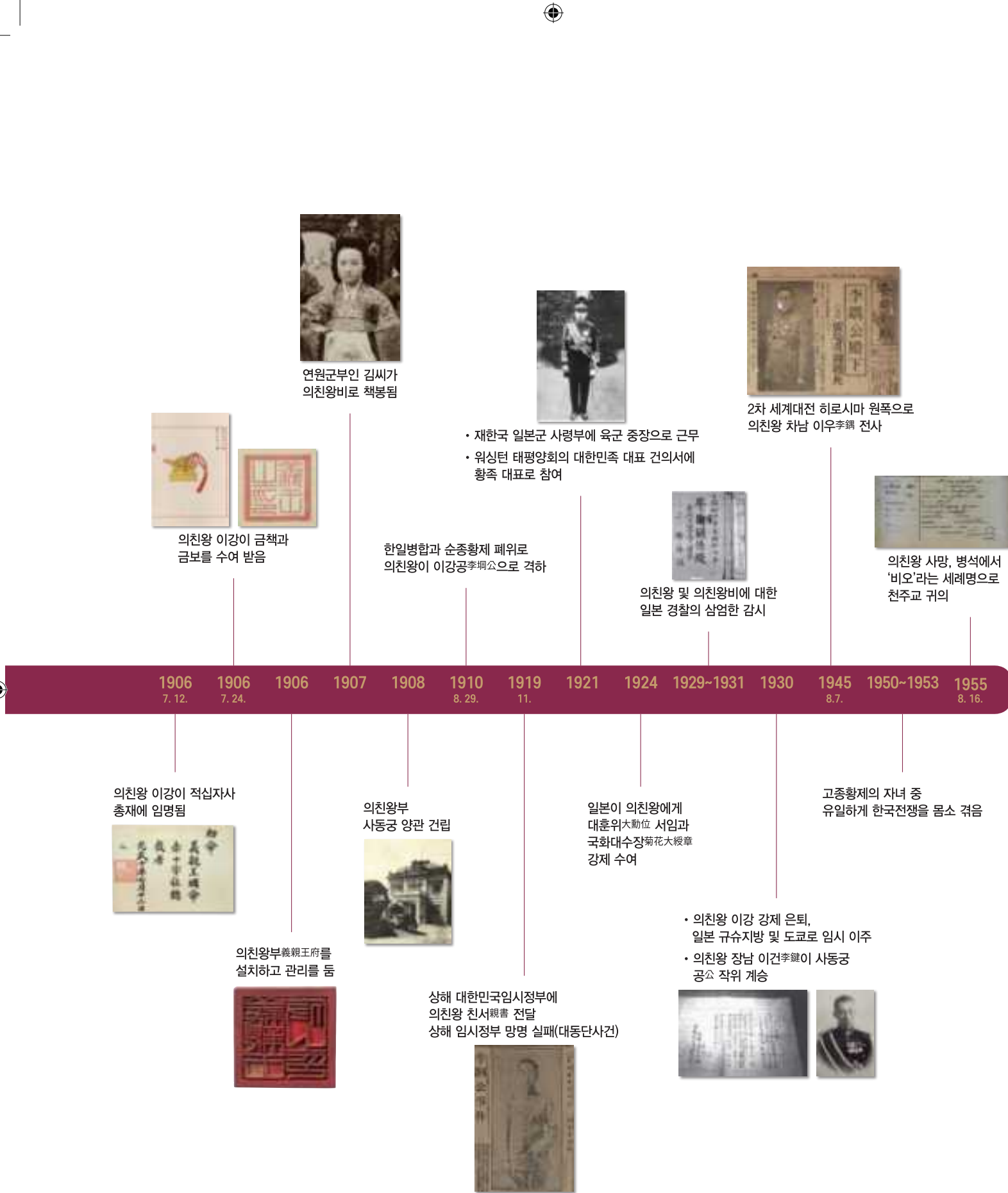
의친왕 이강이
육군 부장에 임명됨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the ...

聞新報城京



I 의화군

義和君 Prince Uihwa



19세기 말,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이강(李堉, 1877~1955)은 고종과 궁인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평길^{平吉}, 호는 만오^{晩悟}이다. 왕실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명성황후 처소의 상궁이었기 때문에 명성황후의 분노를 사서 궁 밖에서 지내야 했다. 이강은 주로 외갓집에서 지내며 외삼촌으로부터 글과 글씨를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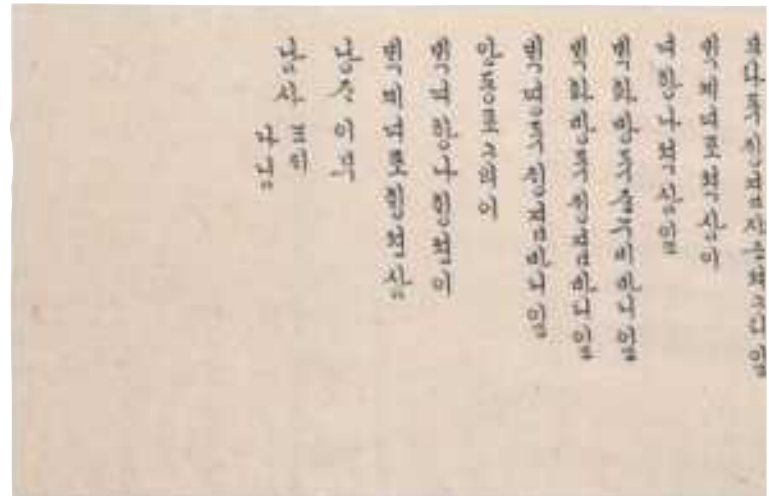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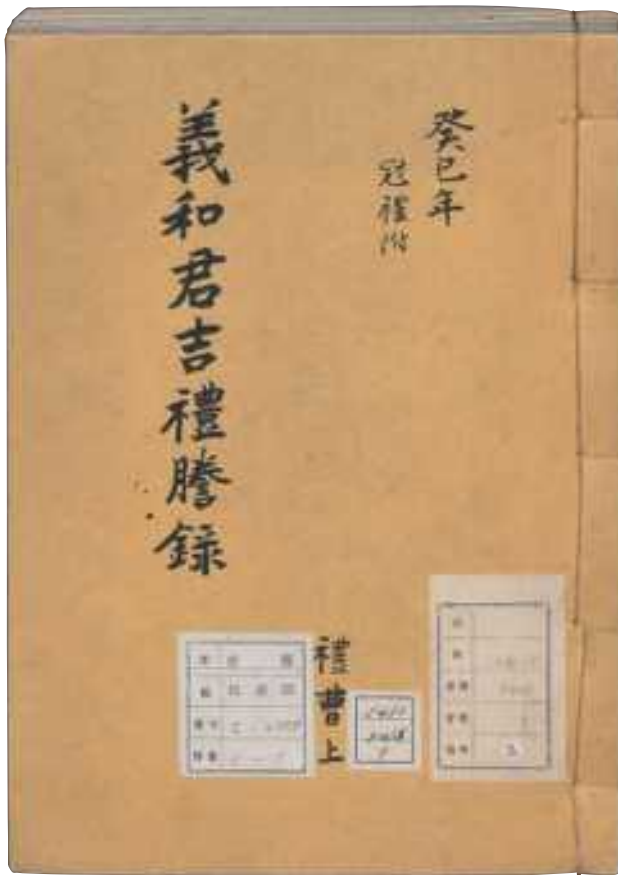
왕세자(순종)는 허약하였고 다른 대군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자 1891년 명성황후는 15세의 이강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같은 해에 의화군^{義和君} 작위를 부여받고 1892년 관례^{冠禮}를 치렀으며 1893년 연안 김씨 김덕수^{金德修}와 길례^{吉禮}를 행하였다.

의화군 이강은 1894년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보빙대사로 일본을 방문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 유럽의 특파대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일본에 머물다 189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1900년 의화군 본인이 타국에 있는 상황에서 영왕^{英王}과 함께 의왕^{義王}으로 책봉되었다. 황실의 견제와 다양한 정치적 음모 및 암살의 위협까지 겪으며 귀국을 위해 두 차례 일본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등 10여 년을 외국에서 떠도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과 버지니아 주에 있는 로녹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1906년 4월 귀국하였다.

Kang Lee(1877~1955) was born as the son of Emperor Gojong in 1877. His mother was the court lady Chang. He was first named Pyunggil and he used Mano as his pseudonym. He was the royal prince of the Joseon Dynasty, but he was not allowed to live in the palace. Empress Myeongseong was not happy with his birth since his mother was her court lady. He was sent out to his birth mother's family to live outside of the palace. He studied there with his uncle.

Empress Myeongseong summoned him to the court in 1891. The crown prince was not in good health and all the other princes had passed away in their early age. He was given a title of Prince Uihwa in 1891 and celebrated his coming of age in 1892. In 1893, he was married to Duksoo Kim of Yeon-An Kim clan.

In 1894, he visited Japan as a good will ambassador to commemorate the victory of Japan in the Sino-Japanese War and he was appointed as a special ambassador to European countries in 1895 just after the brutal assassination of the Empress Myeongseong. He stayed in Japan for some time and moved to the USA to study. In 1900, he was installed as the Prince Imperial Ui along with the Prince Yeong while he was abroad. He studied in Wesleyan University in Ohio and Roanoke College in Virginia. Until he came back to Joseon in 1906, he had to lead the insecure life in the foreign countries. He tried to return a couple of times and failed. He had to fight with the political conspiracy and the assassination plot against him.



001

의화군가례등록 義和君嘉禮騰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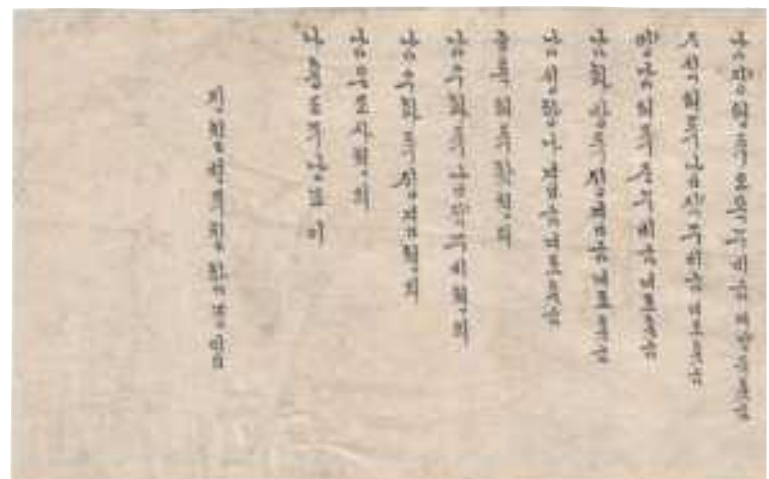
Procedures and Items for
Royal Wedding Ceremonies

1893년 | 1책 필사본 | 가로 22.3cm 세로 30.9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계사년癸巳年(1893) 의화군의 혼례 의식 전 과정을 예조에서 정리해놓은 책이다. 표지 서명은 '의화군가례등록'이나 후에 재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책의 첫머리는 '의화군가례등록義和君嘉禮騰錄'으로 기록되어 있다.

혼인후보자 간택揀擇에는 고종이 금혼령을 내려 부인 낙점이 이루어지기까지 관련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총 3회의 간택 과정을 거쳤다. 최종 간택에는 연안延安 김씨 김사준金思濬의 딸이 간택되었다.



002 의화군 이강의 관례 시 의복 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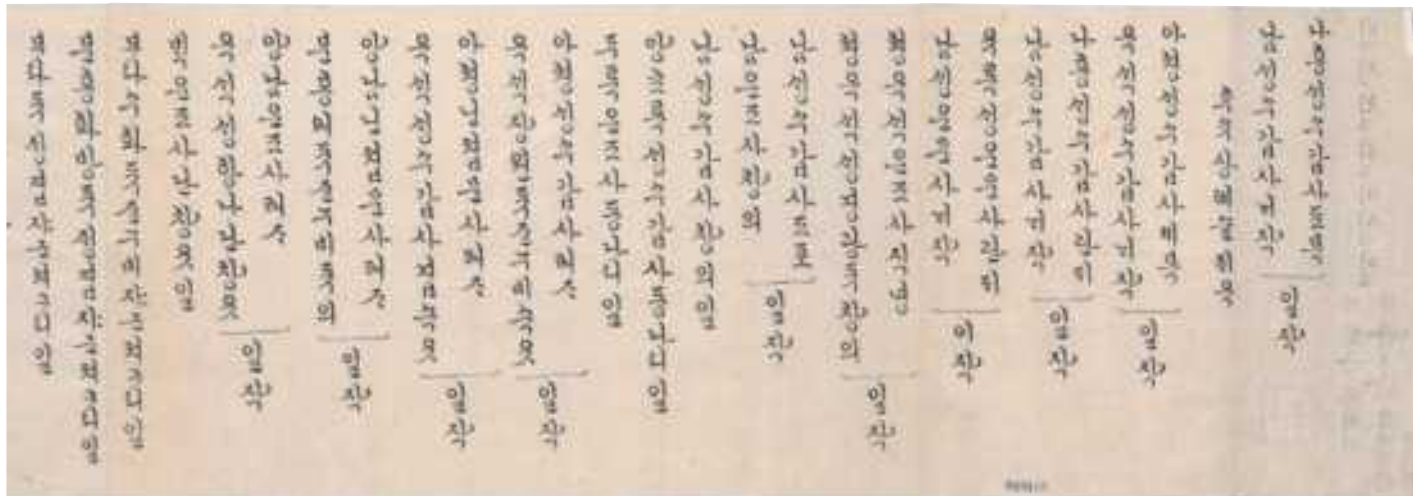
義和君冠禮衣服件記

List of Costumes

1892년 | 1장 종이에 먹 | 가로 116cm 세로 2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임진년壬辰年(1892) 7월 20일 의화군이 관례를 올릴 때 입을 의복 목록이다. 다홍색 생수갑사 조복, 아청색 생수갑사 제복 등 의복 목록이 나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명칭은 색상, 직물, 의복 유형, 수량의 순서로 작성한 것이다. 일작은 한 조를 이루는 일습을 말한다.



003 의화군 이강의 길례 시 의복 발기

義和君吉禮衣服件記

List of Costumes

1893년 | 1장 종이에 먹 | 가로 113cm 세로 24.5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계사년 10월 의화군이 혼례를 올릴 때 입을 의복 목록이다. 사모, 사립, 탕건 등 쓰개와 다홍색 숙갑사 공복과 금택흉배 등을 주칠한 함능에 넣어 진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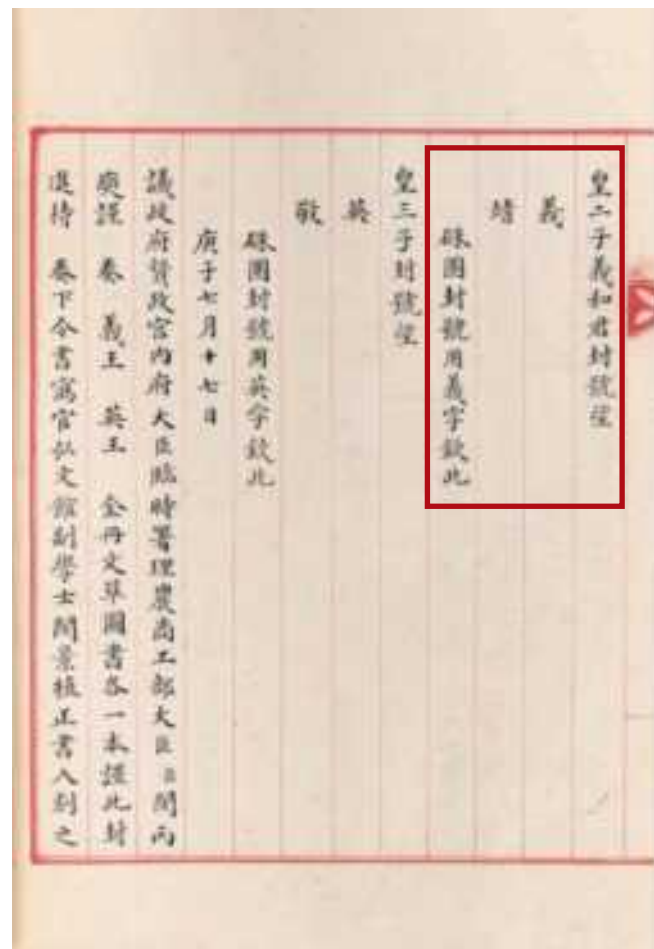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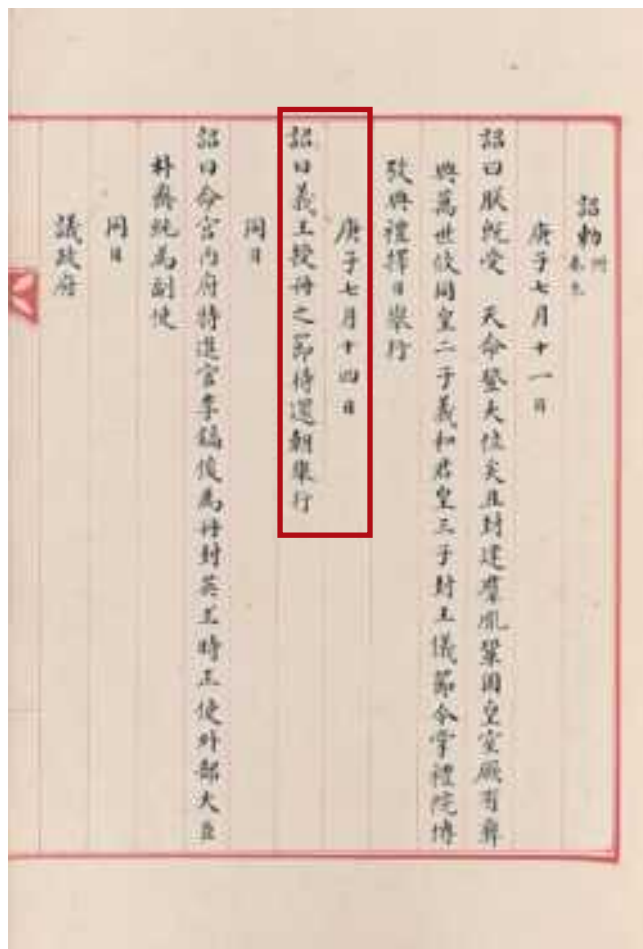
004 의왕영왕책봉의궤 義王英王冊封儀軌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1900년 | 1책 필사본 | 가로 33cm 세로 44cm 두께 1.5cm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보물 제1901-6호

고종황제의 황자 의화군 강뽕을 의왕으로 황자 은뽕을 영왕으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의친왕이 열람한 어람용으로 의친왕비가 직접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에 기증한 것이며 201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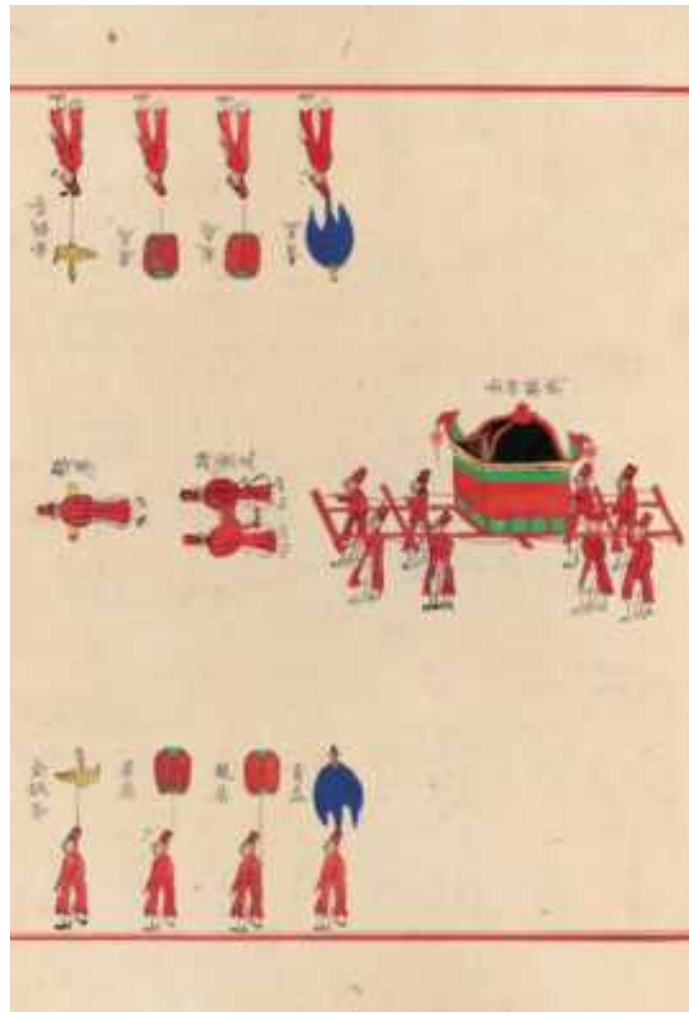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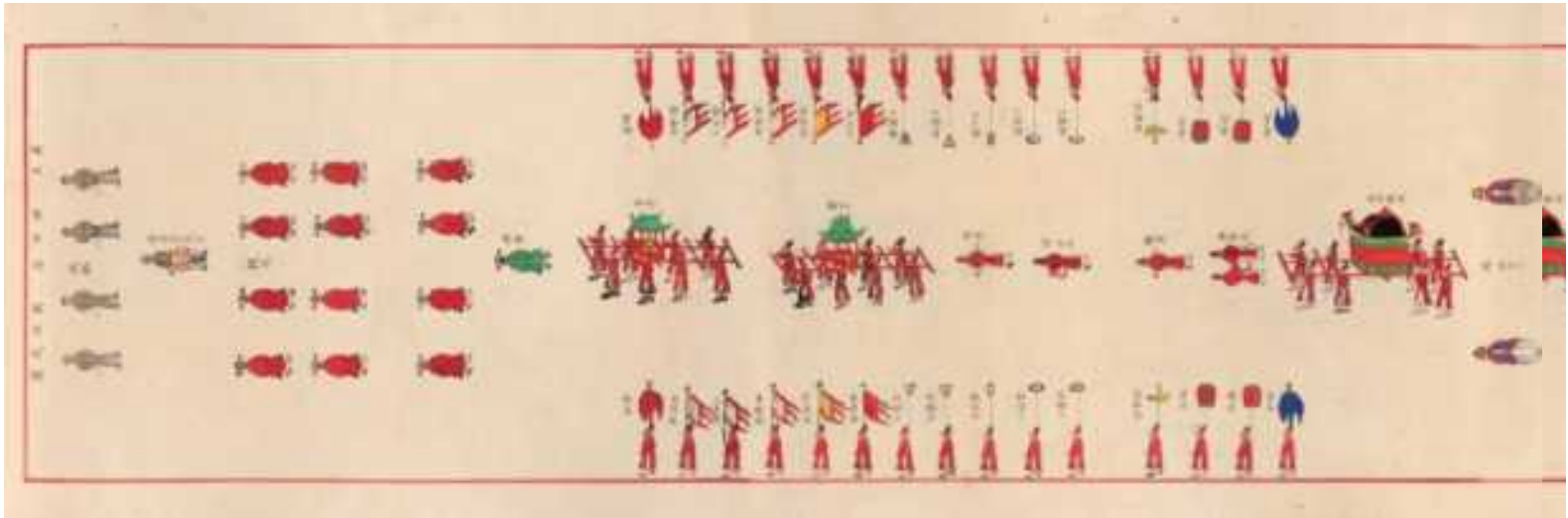
1900년(광무 4) 8월 17일, 중국 황제의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받아야했던 조선의 세자 책봉도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고종황제가 직접 두 왕자를 왕으로 책봉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종황제의 둘째 아들 의친왕, 셋째인 영친왕은 친왕親王이라는 작위에다 의義와 영英이라는 봉호가 책봉 당시 붙여진 것이다. 의친왕은 189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왕이 되고, 1906년 4월에 귀국하여 7월 24일에 책봉 의식을 거쳐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를 받았다. 1907년 10월, 흥선대원군의 대원왕大院王 추봉追封을 계기로 남편인 의왕과 작위가 맞지 않았던 연원군부인延原君夫人 김씨도 의왕비로 책봉이 되었다.



조칙詔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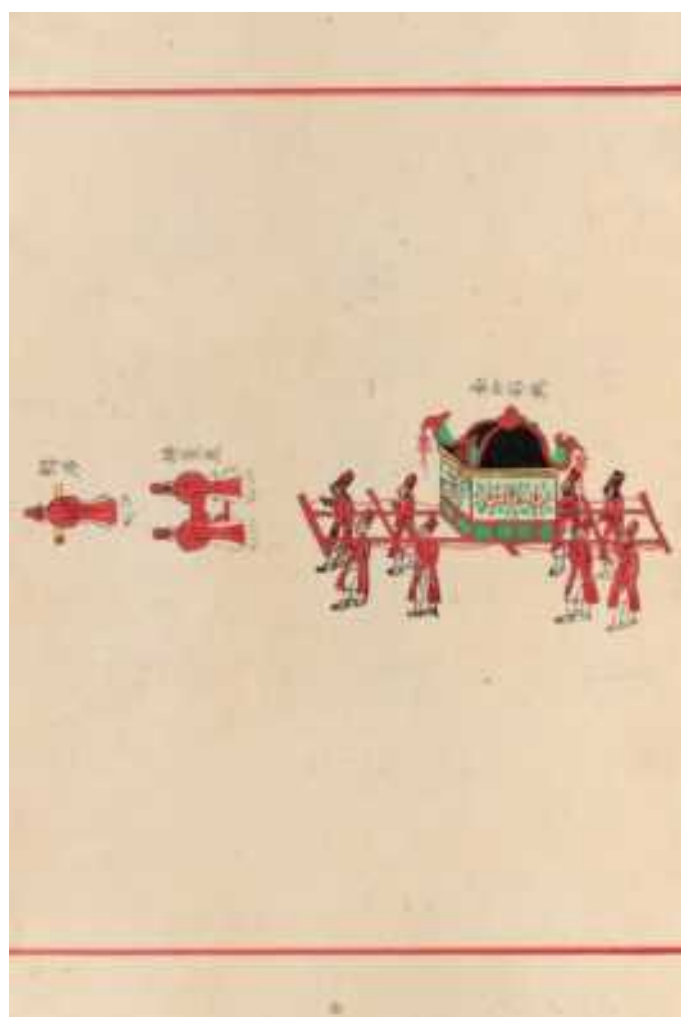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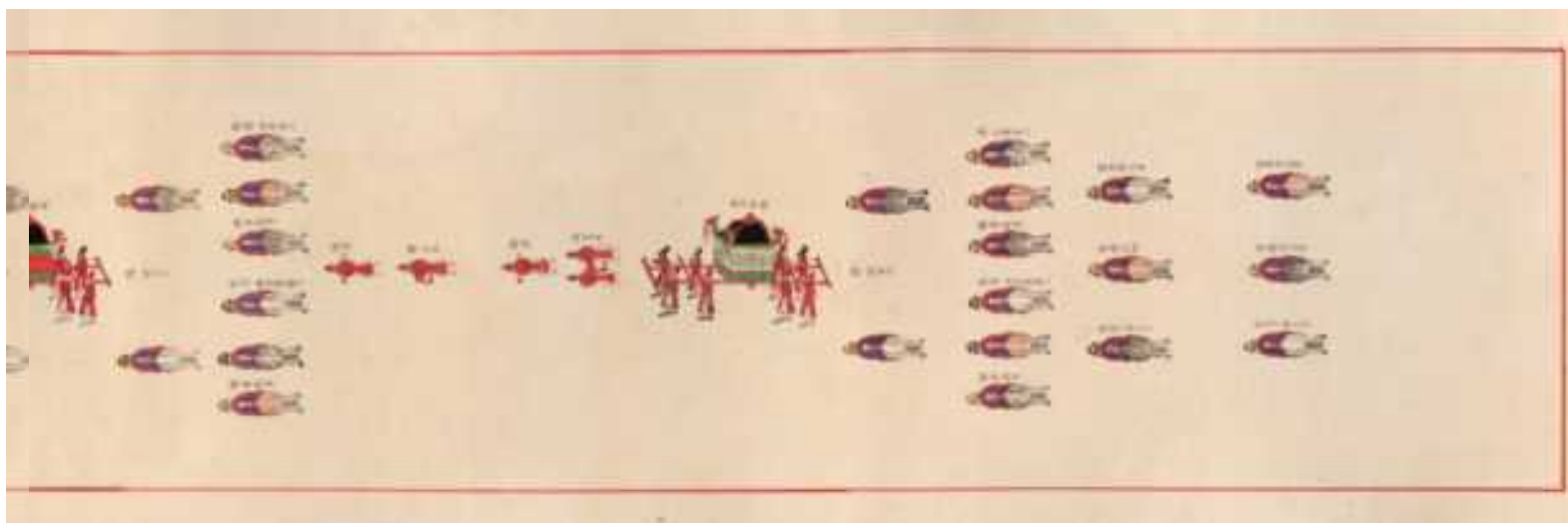
경자庚子 칠월七月 십사일十四日 의왕義王 책봉의식은授冊 의왕의 환조還朝(조정으로 귀환)를 기다려 거행舉行한다.

둘째 황자 의화군義和君의 봉호封號를 의義로 한다.



의왕영왕책봉의궤 영왕책인에궐반차도

의궤에는 금책金冊과 금인金印을 궁에 들이는 행렬을 그린 8면의 반차도班次圖가 있다. 당시 의친왕은 미국유학 중으로 환조 이후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왕·영왕 책봉의궤에는 영친왕의 반차도만 전해지고 있다. 의친왕의 반차 행렬 역시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005 의왕책봉금책문 義王冊封金冊文

Gold Book of Appointment for Prince Imperial Ui

1900년 | 1첩 척인본拓印本 | 가로 15cm 세로 27.3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의왕책봉금책문에는 금책문을 탁본한 첩과 책보인冊寶印 '의왕지인義王之印'을 날인한 닥종이가 붙어 있다. 의왕영왕책봉의궤 도설 중 그림으로 묘사된 금책과 금인의 실물이다.



의왕책봉금책문 중 책보인冊寶印 '의왕지인義王之印'



의왕·영왕 책봉의궤 도설 중 금인金印





의왕·영왕 책봉의례 도설 중 금책金冊



의왕책봉금책문 중 금책 帑本

006 의친왕 원유관 義親王遠遊冠
Crown Worn by Prince Imperial Ui

1900년 | 견 추사 금속
높이 21.8cm 폭 25cm 밑지름 16.5cm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74호

의화군이 의왕으로 책봉될 당시 착용한 관모冠帽 원유관이다. 현존하는 유일한 원유관으로 7줄의 양թ이 달려있으며 1줄은 소실되었다. 각각의 양에는 적赤, 백白, 청靑 3색 구슬珠翠 16개가 꿰어져 있다.



원유관 앞



앞면의 금식

원유관은 왕과 왕위 계승자가 붉은색의 강사포(絳紗袍)와 함께 착용하며 조선시대 법령자료 및 의궤의 원유관복 도설을 통해 그 형태와 갓춤을 알 수 있다. 원유관의 양의 수로 착용자 신분을 구분할 수 있으며 황제는 12량, 황태자나 왕의 것은 9량, 왕세자와 왕세손은 각 8량과 7량이다. 황제의 12량 원유관은 특별히 통천관(通天冠)이라 한다.



원유관 뒤



뒷면의 금식



원유관 7줄의 양[梁]과 3색 구슬[珠翠]



고종황제 통천관복

Emperor Gojong's Ceremonial Costume

1918년경 고종황제의 통천관복 착용 모습이다. 1937년 『황실황족 성감皇室皇族聖鑑』 대정편大正篇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비녀[簪]를 꽂는 구멍



붉은 매듭술[朱組]을 고정하는 구멍

007 의친왕 단령 義親王團領
Prince Imperial Ui's Official Robe

19세기 말 | 견 운문사
등길이 121.5cm 화장 87.5cm 품 45.5cm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의왕이 입었던 단령으로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자의 상복常服이다. 겹감은 흑색
운문사雲紋紗이고 안감은 홍색 운문사이다.



008 의화군궁 은제 티스푼 義和君宮銀製茶匙
Silver Teaspoons

1891~1900년 | 금속

수저 지름 2.6cm 길이 23.1cm 두께 0.7cm

보관함 가로 12.1cm 세로 24.5cm 높이 2.8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티스푼에는 오얏꽃으로 추정되는 꽃장식이 있으며 보관함 뚜껑 안쪽에 '의화군궁義和君宮' 인장이 찍혀 있다. 은수저가 놓이는 보관함 내부에는 수자원문壽字圓紋 직물을 붙여 장식했다.



009 의화군 10폭 병풍 義和君筆屏

Folding Screen written by
Prince Uihwa

19세기 말 | 종이에 먹
화폭 26.5cm 세로 78.4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친왕이 어린시절 직접 쓴 병풍이다.

語艾出狀我及也
遠其韻慎其樞機

令色鮮矣嗟夫言語
豈能細韻艾出日燠

鳥心笑矣豈能可不
思矣哉
全申育 李埏

細呵不非若正太強
斷體貌匪久出及時已

免巧言令色出俗不
雖不顧自己(으)法出

言語

君子必能訥於言而

敏於言則可知其於
處世於善言矣豈可

獨精於物根舍本而
取末乎論語曰巧言

若或對人言辭雖其
出於意雖不合於

道強取譎以鞫其
白其謬合於道則難



일본 보빙대사 파견 당시 의화군

Photo of Prince Uihwa and His Diplomatic Delegation

1894년

백택홍배 단령을 입은 의화군(앞줄 중앙)의 모습이다.

의화군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보빙대사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이해경, 『마지막 황실의 추억』, 유아이북스, 2017 자료제공

고종황제와 의화군

Burton Holmes Travelogues

1919년 | 종이에 인쇄
가로 17.5cm 세로 25.2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미국의 여행가이자 사진가, 영화제작자인 버튼 홀스 Burton Holmes, 1870~1958가 저술한 『버튼 홀스의 여행기 Burton Holmes Travelogues』이다. 책에는 고종황제와 의화군의 모습이 실려 있으며 의화군을 ‘One of the Imperial Princes’로 소개하고 있다.



고종황제와 의화군

Harper's Weekly

1900년 8월 25일자 | 종이에 인쇄
가로 28.1cm 세로 40.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00년 미국 주간지 하퍼스 위클리 Harper's Weekly '오늘날의 한국' 기사에는 당시 조선의 정세와 해외 유학중인 의화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의화군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외국 인사들은 훌륭한 젊은이인 이 왕자를 좋아하였고, 그는 대중에게도 인기가 있다.’

- 메리제이 험프리스 Mary Jay Humphreys





의화군 이강의 여권 사진

A Passport Photo of Prince Uihwa

의화군 이강이 1899년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가지고 간 여권용 사진으로 추측된다.

양상현·유영미 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눈빛출판사, 2020 자료제공

1900년 의화군은 미국에 있는 중에 영왕과 함께 의왕으로 책봉되었다. 황실의 견제와 다양한 정치적 음모의 중심에 있던 의화군 이강은 폭행과 암살의 위협까지 겪으며 귀국을 위해 10여 년을 일본과 미국을 떠도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다.



미국 유학시절 의화군과 김규식

Prince Uihwa and Kim Kyu-sik

1901년 3월 20일 촬영

미국 로녹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의화군(앞줄 중앙)과

김규식 선생(뒷줄) 사진

이해경, 『마지막 황실의 추억』, 유아이북스, 2017 자료제공

1893년부터 1920년대까지 30여명의 조선 청년들은 미국 버지니아주 로녹대학Roanoke College에서 수학하였다. 주미·주러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기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송헌주 등이 있다.

정자관(程子冠)을 쓰고 한복을 차려 입은 의화군

Prince Uihwa in Full Korean Uniform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문 '노보예 브레마 Novoe Vremya' 1903년 11월 1일자에 실린 것으로 "한국 황제 후궁의 아들로 일본에서 살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이 달렸다. 의화군이 1897년 미국으로 가기 전 한국이나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자료제공



010 태극기 담배펠트
Tobacco Felt of Taegeukgi(Korean f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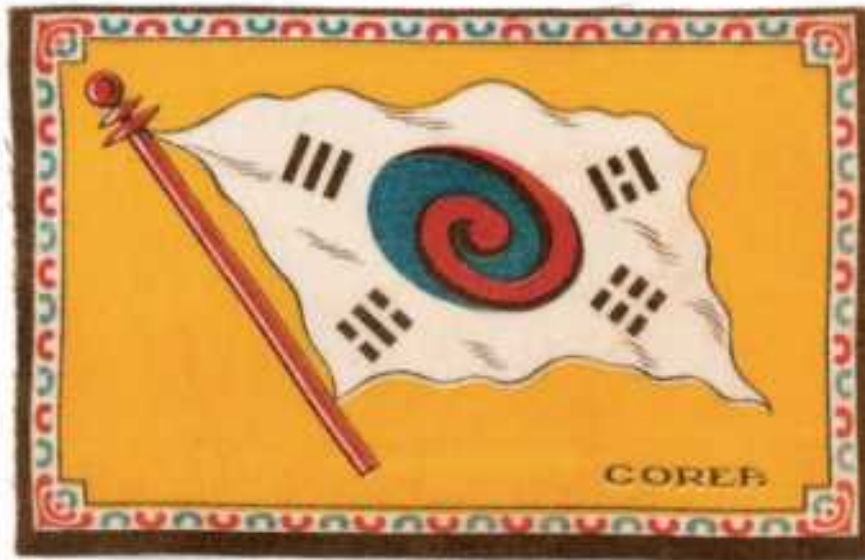
1908년 | 섬유

1_가로 20.7cm 세로 13.3cm

2_가로 21cm 세로 14.1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화군이 미국 유학시절 간직하였던 담배펠트이다. 아메리칸 타바코American Tobacco 회사의 담배펠트로 담배포갑 바깥쪽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태극문양의 회전이 강하며, 4괘의 위치가 다르게 배치된 형태이다.



1



2

011 담배주머니
Tobacco Case

19세기 말~20세기 초 | 가죽 금속
1_가로 21cm 세로 3.8cm
2_가로 12cm 세로 7.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화군이 미국 유학시절 간직하였던 담배주머니이다.



012 선글라스
Sunglasses

19세기 말~20세기 초 | 수정 금속
안경 13cm 렌즈지름 4.3cm 안경다리 13.2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화군이 미국 유학시절 간직하였던 선글라스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문 1903년 11월 1일자에 실린 의화군의 선글라스와 유사하다.



노보예 브레마 Novoe Vremya 1903년 11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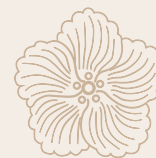


II 의친왕

義親王 His Imperial Highness Prince Imperial Ui



대한제국 육군부장 예복을 입은 의친왕, 1906년
Prince Imperial Ui in the Full General Uniform of the Korean Empire



의친왕義親王 이강은 1906년 4월 6일 귀국 후 4월 8일에 육군 부장副將에 임명되었고, 다음날에 고종황제로부터 대훈위금척대수훈장大勳位金尺大綬勳章을 받았다. 7월 12일에 제2대 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되었다. 의친왕부義親王府를 설치하고 관리를 두었으며 의친왕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의왕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책봉의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1906년 7월 24일에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를 받았다. 1907년 연원군부인 김씨가 의친왕비로 책봉되었으며 1908년 사동궁寺洞宮 양관이 건립되었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하던 의친왕은 귀국 후 대한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1910년 한일병합과 순종황제 폐위로 이강공李綱公으로 격하되었다.

As soon as he returned, he was given a title of high rank in the army on April 8, 1906. Emperor Gojong conferred him the Grand Medal of the Golden Rule on the next day. On July 12, he was appointed as the second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The ministry for the Prince Imperial Ui was set up and filled it with the civil officials. On July 24, he received the Gold Book and Seal since he was absent in his installation ceremony.

His wife of Yeon-An Kim clan was installed as Princess Ui in 1907. The western style Sadong Palace was built for him in 1908. He tried to lead an active role in Korean Empire to compensate for his long absence, but it didn't go well as planned. He was demoted to the status of Lord Kang Lee in 1910. Japan annexed Korean Empire forcibly and Emperor Sunjong was dethroned.



의친왕 귀국 보도 기사

An Article on Prince Imperial Yi's Return to Korea in 'Huangseong Shinmun'

황성신문 1906년 4월 7일자

1906년 황성신문에 의친왕이 4월 6일에 귀국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013 육군부장에복 陸軍副將禮服
Lieutenant General's Ceremonial Uniform

1900년 이후 | 모직
상의 등길이 44cm 가슴둘레 93cm 하의 길이 110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1900년 7월 2일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에 따른 육군부장 예복이다. 상의 전면에 도금된 오얏꽃(梨花) 무늬의 단추 14개가 두 줄로 달려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형이다. 8줄의 인자형 소매장식, 의령장의 금색 자수로 놓인 별 6개, 식대의 은색 솔 등으로 착용자(윤웅렬, 1840~1911)가 장관급에 해당된다. 1906년 4월 8일에 육군부장에 임명된 의친왕이 입고 있는 사진 속 예복과 일치한다.



대례견장



014 금척대훈장 金尺大勳章
Grand Medal of the Golden Rule

대한제국 | 금 견

대수: 길이 146cm 폭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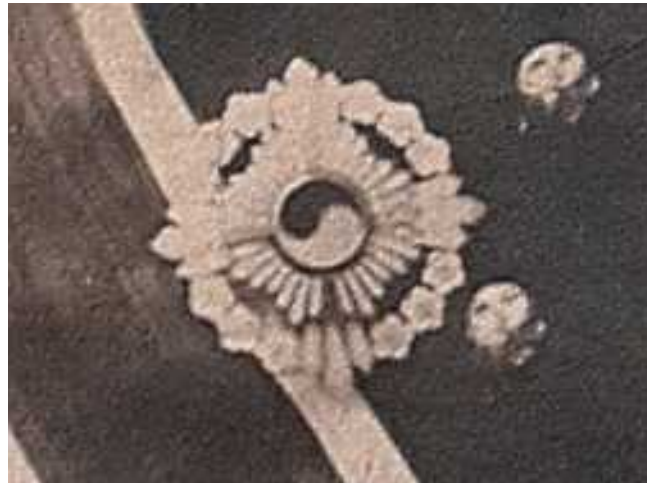
정장: 지름 7.8cm 길이 12.4cm

부장: 지름 8.9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자료제공

대한제국 훈장 중 가장 훈격이 높은 것으로 대수, 정장, 부장으로 구성된다. 대수는 황색을 바탕으로 하고 가장 자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며, 정장과 부장은 금척, 태극, 오얏꽃의 조합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의친왕은 1906년 4월 9일에 고종황제로부터 대훈위 금척 대수 훈장大勳位金尺大綬勳章을 수여 받았다.





정장 앞



정장 뒤

정장의 고리 뒷면에는 ‘금척대훈金尺大勳’이라고 새겨져 있다.



부장 앞



부장 뒤

부장의 뒷면에는 ‘금척대훈金尺大勳’이라고 새겨져 있다.

015 황제(고종)성수50주년기념장

高宗皇帝聖壽五十周年記念章

Imperial 50 Years Felicitations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

대한제국(1901년) | 은

지름 3.3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의 50주년 탄신 기념장으로 앞면에는 황제가 쓰는
통천관(通天冠)을 새겼고, 뒷면에는 '대한제국폐하 성수오십
년칭경기념은장 광무오년구월칠일'이라는 글자가 새겨
져 있다.



기념장 앞



기념장 뒤

016 황제(고종)망육순등극40주년기념장
高宗皇帝望六旬登極四十周年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s
51th Birthday and his Ruby Jubilee

대한제국(1902년) | 은
지름 3.3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자료제공

1902년 고종이 51세(망육순)가 된 것, 즉위 40
주년이 된 것,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발행하였다. 앞면에는 기로소에 있던 영수각(靈
壽閣)이라는 누각을 새겼고, 뒷면에는 '대한제국
대황제폐하 성슈망륙순어극수십년 급입기사 함
습경 기념은장 광무륙년십월십팔일'이라는 글
자와 함께 통천관을 새겼다.



기념장 앞



기념장 뒤

017 황태자(순종)가례기념장
皇太子(純宗)嘉禮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Prince Imperial
Wedding

대한제국(1907년) | 은
지름 3.3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자료제공

황태자(순종)와 황태자비 윤씨(순정효황후)의
결혼 기념장이다. 앞면에는 한 쌍의 비둘기를
새겼고, 뒷면에는 '대한제국 황태자전하 가례
식 기념장 광무십일년일월이십사일'이라고 새
겼다.



기념장 앞



기념장 뒤

018 의친왕 대한적십자사 총재 칙명

義親王勅命

Emperor Gojong's Letter of Appointment to Prince Imperial Ui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대한제국(1906년) | 종이에 먹

가로 60cm 세로 45.9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친왕을 적십자사 총재에 임명하는 칙명이다. 1906년 7월 12일에 적십자사 초대 총재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이 해임되고 의친왕이 제2대 총재로 부임하였다.



1905년 10월 10일에 개원한 대한국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자료제공



1908년 4월 7일자 《황성신문》 기사로 의친왕궁이
서양식으로 새로 건축되었다는 기사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도서관 자료제공

義親王宮新建築 義親王宮을洋
制로一切新建築하다 是은前報에已
揭을았거니와日前부터該宮內에行
廊을毀撤하고建築工役에着手을았

의친왕부 사동궁^{寺洞宮} 양관과 한옥 Sadong Palace of Prince Imperial Ui

의친왕과 왕비를 비롯한 일가는 이후 사동궁에 거주하였다.
사동궁은 지금의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길 30번대 지역 일대
에 걸친 큰 궁궐이었다.
서양식 양관 건물 1채에 수십 동의 한옥으로 내전에는 지밀,
행각, 구주방, 신주방, 침방, 유모방, 서행각 등이 있었다. 외전
부분은 사랑, 행각, 방회청, 행랑, 외행각, 창사루 등이 있어
총 426.5칸의 규모였다.

이해경, 『마지막 황실의 추억』, 유아이북스, 2017 자료제공



019 의친왕궁고직신 義親王宮庫直信
Wooden Seal of Palace Warehouse

대한제국(1900~1910년) | 나무
가로 3.6cm 세로 3.6cm 높이 6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궁에서 사용한 인장으로 인문은 '義親王宮庫直信'이고, 상면에는 '上'이라 새겼다.



020 의친왕부지인 義親王府之印
Wooden Seal of Palace Warehouse

대한제국(1900년경) | 나무
가로 6.7cm 세로 6.7cm 높이 1.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궁내부 소속 친왕부親王府에서 의친왕과 관계된 업무를 전담한 의친왕부의 나무 본이다. 인문은 '義親王府之印'이라고 새겨져 있다.





1 『황족화보』, 1924

1910년 이후 촬영된 것으로 일본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 의친왕의 사진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황실황족성감』, 1937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은 일왕을 비롯한 일본 황실 인물들의 사진과 이력을 모은 책이다.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전 3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사진은 대정大正 편에 실려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3 『황실황족성감』, 1937

황실황족성감 소화昭和 편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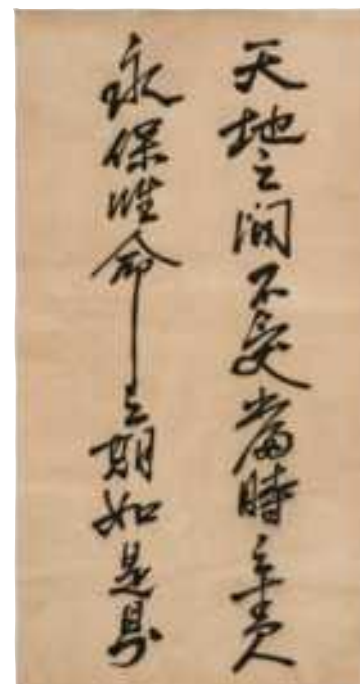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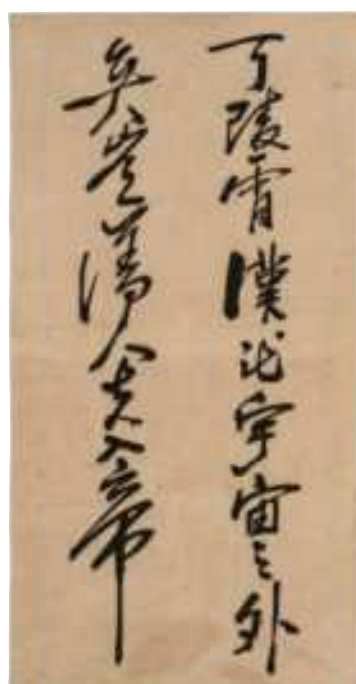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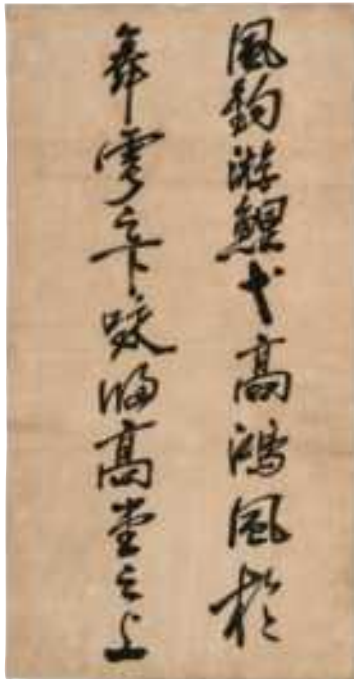


1928년 4월 9일 고베 항에서 의친왕 차남 이우, 의친왕 이강, 영친왕 이은, 영친왕비 이방자, 덕혜옹주, 영친왕비 어머니 나시모토 이쓰코, 영친왕비 아버지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좌측부터) 増田義一編『金枝玉葉帖：御大典記念』(昭和3年(1928)),実業之日本社

낙지론樂志論

가령 거처하는 곳에 좋은 밭이 딸린 넓은 집이 있다면 산을 등지고 앞엔 시내를 접하여 도랑과 못이 빙 둘러 있고 대나무와 나무들이 죽 펼쳐있으며 앞에는 채마밭을 짓고 뒤에다는 과수원을 마련했으리라. 배와 수레가 걷고 물 건너는 어려움을 대신하여 족하고 사령(심부름꾼)이 사지의 부리는 바를 쉬게 하니 족할 것이다. ...중략... 남풍의 우아한 곡조를 타고 청상의 묘한 곡조를 소리내며 한 평생을 소요하며 천지시간을 즐겨보며 세상의 책망을 떠맡지 아니하고 성명性命(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의 기한을 오래도록 보전하리라.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늘을 넘어 우주 밖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리니 어찌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

출전: 『후한서後漢書』 권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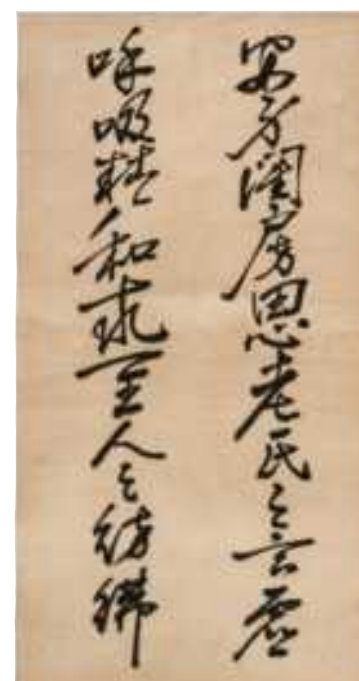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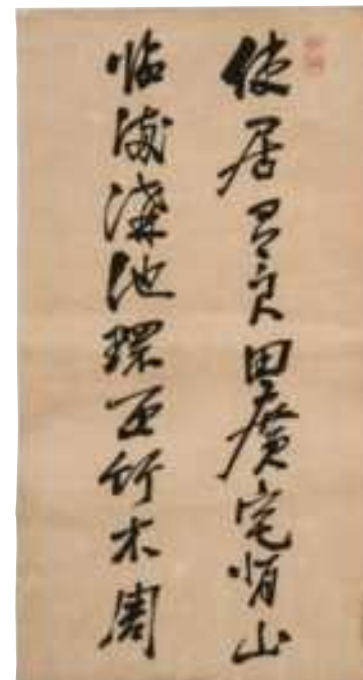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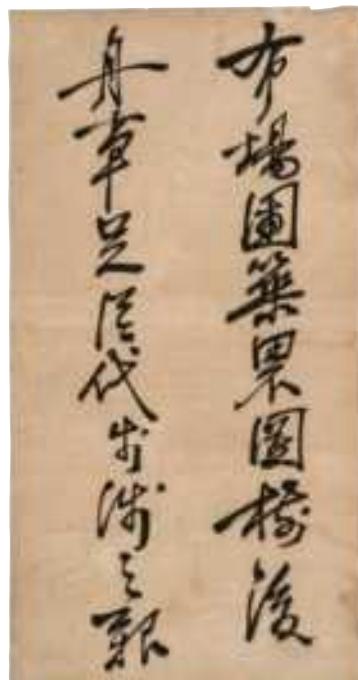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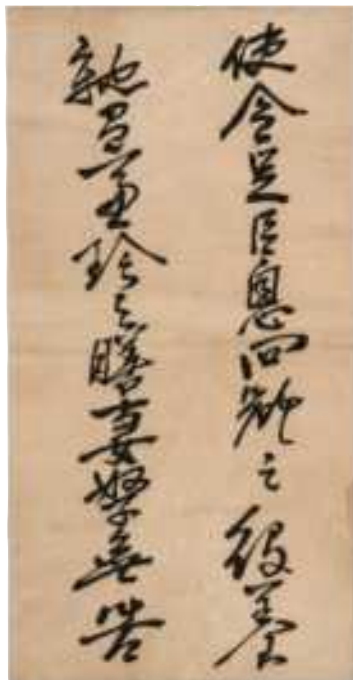


021 의친왕 병풍 義親王筆屏
Folding Screen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20세기 초 | 종이에 먹
가로 36.8cm 세로 71.2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친왕이 중장통(仲長統)(180~220)*의 '낙지론(樂志論) 즐겁게 사는 법을 논함'을 쓴 12폭 병풍이다. 마지막 폭에 그의 호와 이름인 춘암(春菴) 이강(李綱)이 쓰여 있다.

*자는 공리(公理), 후한 말, 삼국시대 위나라의 인물





022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20세기 초 | 종이에 먹

가로 56cm 세로 171.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하늘의 경륜과 땅의 의리는 예나 지금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지수인산知水仁山은 성정이 있다.

경오년 늦은 여름 춘암 이강



023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20세기 초 | 종이에 먹

가로 56cm 세로 17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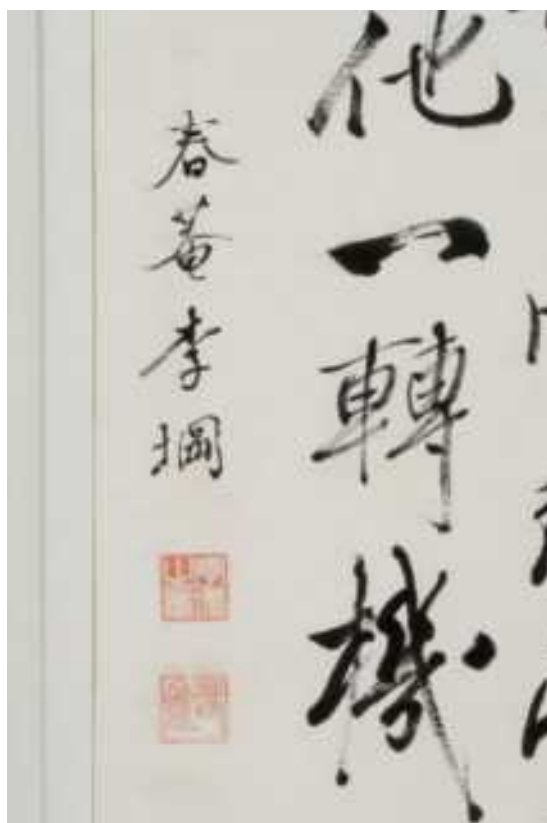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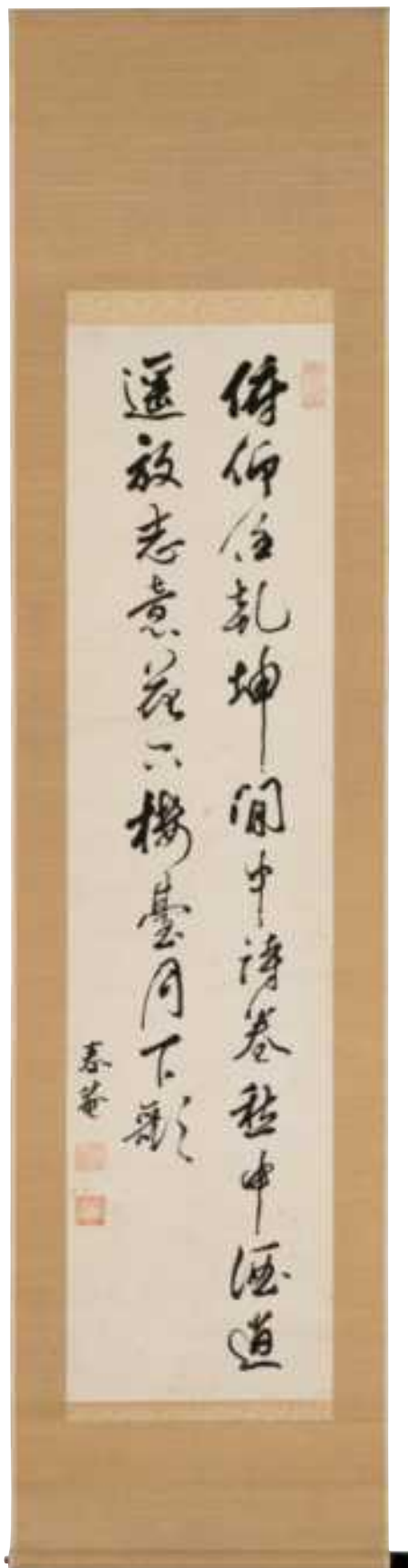
사십여년의 수고롭고 괴로운 행적 취몽 되어

푸른 하늘로 날아가네

인생 뜻같지 아니함을 어찌 원망할쏘냐.

흥하고 패하는 것은 일전의 기회에 따를 뿐. 춘암 이강.





024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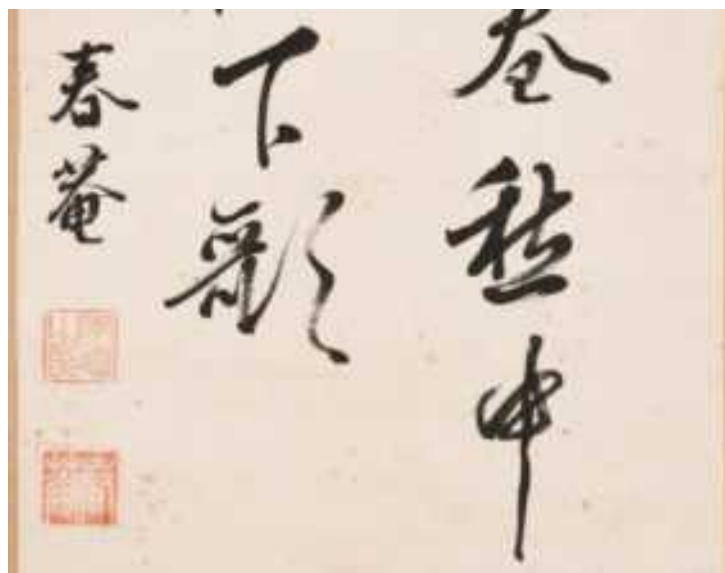
20세기 초 | 종이에 먹

가로 49cm 세로 200.7cm

(주)실크스톤 홀딩스 소장

의친왕이 종친 금석 錦石 이호석 李浩奭에게 써 준 글씨이다.

천지를 위아래로 살피고
한가로운 가운데 詩를 읽고
근심 속에 술을 마시네.
逍遙하여 생각을 내치고
꽃나무 아래의 누대에서
달빛 아래 노래하네. 춘암.



025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20세기 초 | 종이에 먹

가로 49.7cm 세로 15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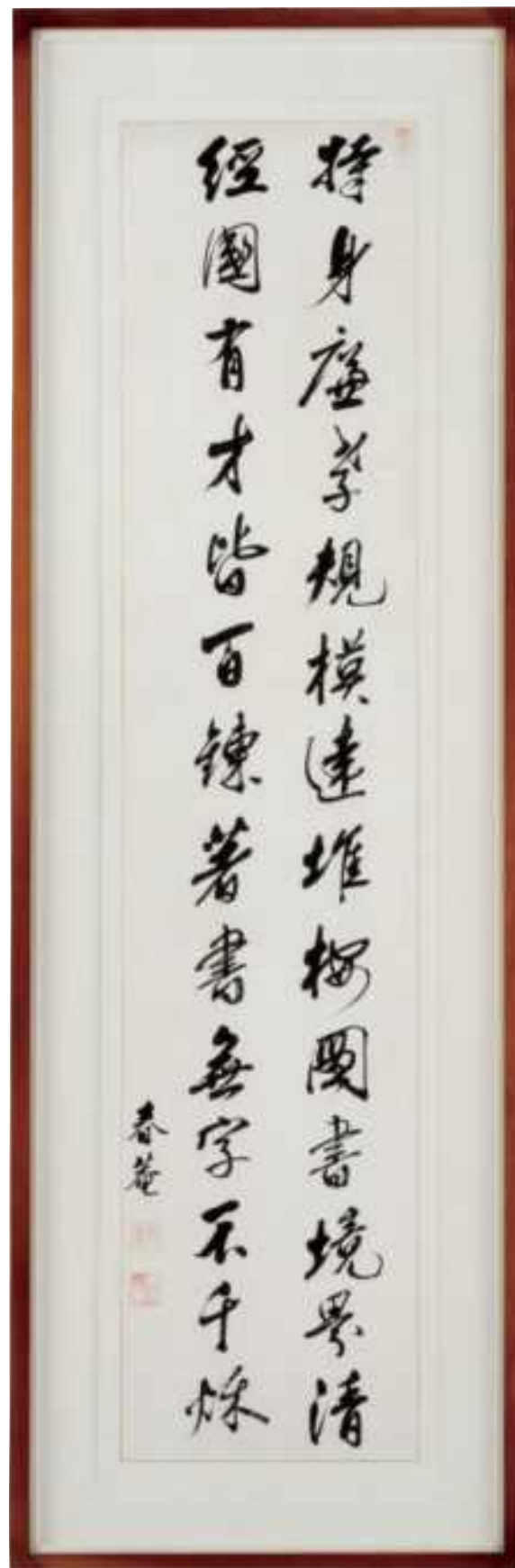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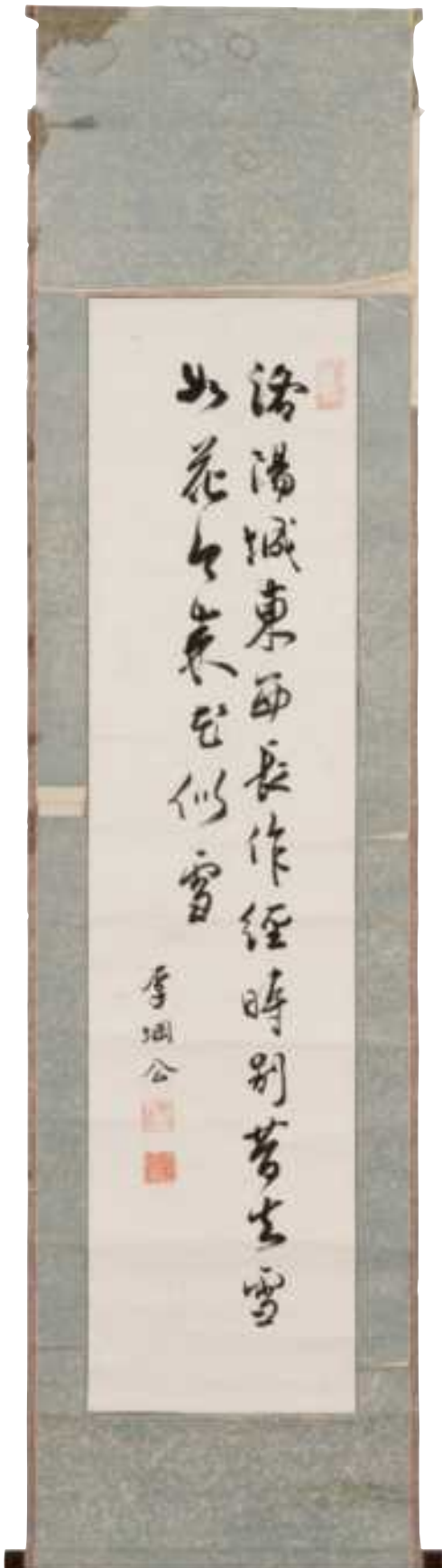
특별한 신분은 청렴하고 효도하며 규모가 원대하며

매화가 가득한 도서에는 맑음이 있네

나라를 다스리는 재원은 적어도 백번이상 단련되어서

나오고 저서에 글이 없으면 천추에 남지 않네. 춘암.





026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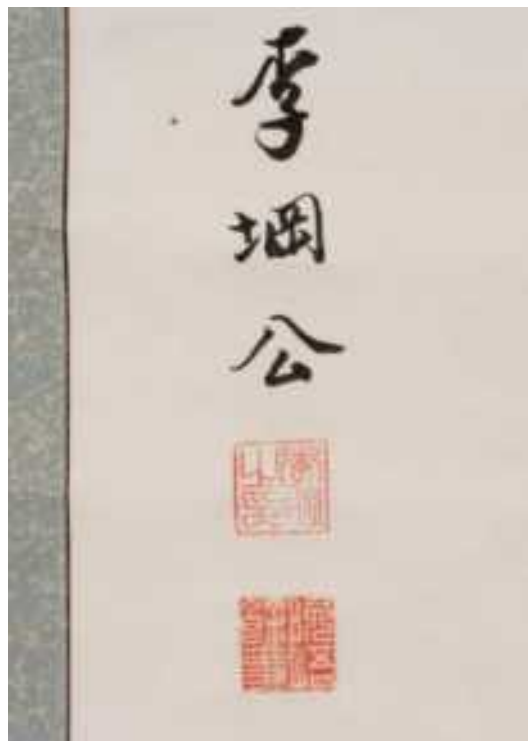
20세기 초 | 종이에 먹

가로 46cm 세로 179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남조시대 양나라 사람 범윤의 이별시이다.

낙양성 동쪽과 서쪽에 살지만
늘 헤어지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네
예전에 떠날 땐 눈이 꽃 같더니
이젠 돌아올 땐 꽃이 눈 같구나. 이강공.



027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20세기 초 | 비단에 먹
가로 49.7cm 세로 151.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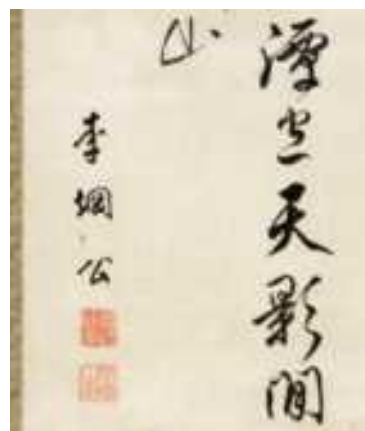
운무보다 맑고 은보다도 희구나.
소라껍질 조가비 그 값 몇 전.
우스워라 올림에서 태수를 탐한 것이.
초라한 배 한 척도 가난치 않구나.
“돌아가는 보따리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 속
바닷돌 십여개만 있구나” 이강공.

洪奭周의 “歸裝無物 囊中有海石十數枚”
(출전: 淵泉集 권1)



028 의친왕 글씨 義親王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Prince Imperial Ui

20세기 초 | 비단에 먹
가로 49.4cm 세로 199.5cm
이근배 소장



029 인장함 印章函
Seal Case of Prince Imperial Ui

20세기 | 나무 금속
높이 14.5cm 바닥지름 14.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30 의친왕 인장 義親王印章
Seals of Prince Imperial Ui

20세기 | 옥

1_가로 3.5cm 세로 3.4cm 높이 7.8cm

2_가로 3cm 세로 6cm 높이 6cm

3_가로 4cm 세로 4cm 높이 3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춘암 春菴



이강지인 李綱之印



III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Prince Imperial Ui and
His Involvement in Independence Movement



제국익문사비보장정, 19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의친왕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활발한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 일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1902년에 설립되어 황실 독립운동의 최전선 역할을 한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는 을사늑약 이후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지만 의친왕은 관계 인물들과 비공식적 활동을 이어갔다. 1909년 10월 의친왕은 거창지역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의병을 지원하다가 일제에 발각되었다. 호남의병의 대표적 인물인 임병찬(林炳瓚)과 오계엽(吳啓暉)의 초상화에서 의친왕의 찬문을 볼 수 있는데 그가 호남 의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본인의 친서(親書)를 전달하였으며 항일단체인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과 긴밀히 협의의 후 국내를 탈출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대동단 사건 이후 가택에 연금되어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지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 파리위원부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자유한국 La Corée Libre』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미국 교민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에도 일본의 공작을 고발하고 조국의 평민으로 죽기를 희망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1921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 회의에 대한민족대표단이 참여하여 한국 독립문제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 작성에도 의친왕이 황실의 대표로 함께 하였다. 1930년 의친왕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은퇴 각서를 쓰고 장남 이건(李鍵)에게 사동궁(司東宮) 작위를 물려준 후 일본에 임시로 거주하기도 하였다.

Prince Imperial Ui actively involved in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Imperial Press was founded in 1902 to prevent the Japanese invasion. The royal court used this press as the forefront to support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Press was officially disbanded after the brutal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The prince continued the unofficial connection with the interested personnels. He got exposed in October 1909 while he was stationed in the Guchang Province for a month to support the righteous army of the area. We found the clues of his involvement in prince's praise letters in the portraits of Byungchan Yim and Kaeyup Oh who were the leaders of the righteous army of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He sent his personal message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hanghai. He wanted to exile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ith the help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but failed.

He was house arrested and subjected to a tight surveillance from Japan since the exile attempt. Despite this, he continued to work to let other countries to know the brutal Japanese rule over the Korean Empire. He wrote an associated article in La Corée Libre which was the monthly magazin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s Paris division. He also wrote in Shinhanminbo, the paper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SA, of Japanese cruel maneuvering. He asserted that he rather wanted to die as a commoner of his home country. In 1921, he participated as the representative of royal family in drawing up a petition for the reconciliation of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 to present it to the conference in Washington DC which conferred the pending issues of the East Pacific Asia. In 1930, he was forced to sign on his retirement letter and passed his Lord title of Sadong Palace to his son, Geon Lee. Then he moved to Japan and stayed there temporarily.

031 제국익문사비보장정 帝國益聞社秘報章程
Imperial Press

대한제국(1902년) | 종이에 먹
가로 15.1cm 세로 23.3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902년(광무6)에 대한제국 황제 직속 항일 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의 목적, 활동, 인원 등에 대한 23개조의 사항을 명시한 책으로 1책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국익문사는 수집된 정보를 본사에서 정리해 황제에게 보고할 때 종이를 빛에 비춰야만 글자를 볼 수 있는 화학 비사법秘寫法을 사용하고, 오얏꽃과 황제를 보좌한다는 '성총보좌聖聰補佐'란 글귀를 넣은 전용 인장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1910년 이후 고종 황제의 권한을 의친왕이 물려받아 독립운동 비자금 조달 및 외부 상황을 순종 황제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제국익문사비보장정〉

제 1조 본사本社는 제국익문사라 칭하여 사무소를 한성중앙에 둘 것

제 2조 본사는 매일 비보秘報를 작성 하여 오로지 성종聖聰을 보명補明하는 것을 주의로 할 것

제 3조 본사가 비밀히 탐지하는 사항은 4종으로 나누어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거나 이미 드러난 것을 물론하고 비밀로 조사하되 이미 드러난 일은 근저를 쫓아 탐득하고 드러나지 않은 일은 시작과 끝을 미리 정리하여 황제께 보고할 것

...

제 9조 본사 비보를 황제에게 올릴 때 먹을 사용하지 말고 화학 비사법秘寫法을 정서하여 비밀히 황제가 보시게 할 것

...

150p~152p 논고 참고



032 성총보좌인장 聖聰補佐印章
Seal of Imperial Press

대한제국(1902년) | 옥돌
가로 4.6cm 세로 4.8cm 높이 6.8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33 제국익문사독리지장 帝國益聞社督理之章
Seal of Imperial Press

대한제국(1902년) | 금속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고종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 봉투에는 '성총보좌聖聰補佐' 인장을, 문서 내지에는 '제국익문사독리지장帝國益聞社督理之章'을 사용하였다.

제국익문사는 독리督理 1인, 사무司務 1인, 사기司記 1인, 사신司信 1인, 상임통신원 16인, 보통통신원 15인, 특별통신원 21인, 외국통신원 9인 그리고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은 임시통신원으로 구성되어 총 60여 명의 정보원이 있었다. 이중 독리는 제국익문사의 총 책임자이다.



034 화약통 火藥筒
Powder Keg

20세기 | 종이 옷칠
길이 17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친왕이 의병 활동할 때 사용하던 화약통이다.

화약통은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머리부분을 열어 화약을 담는다. 배딱지腹甲는 '왕포'자 형상으로 장식했다.



아랫면



윗면

거창의병

Geochang Righteous Army

1909년 10월 의친왕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의 전 승지 정태균(鄭泰均)을 방문하였다. 40일간 머물면서 이 지방의 뜻있는 우국 청년들과 접촉하고 거창의 사선대 일대를 의병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준비하였다.

의친왕이 머무른 거창屠昌 동계종택(桐溪宗宅)은 조선 중기 문신 동계(桐溪) 정온(鄭蘊)(1569~1641)이 태어난 집으로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친왕이 40일간 머물렀다는 경남 거창군 위천의 사랑채 전경과 이준 황손
의친왕기념사업회 자료제공



동계 정온 고택에 남아 있는 의친왕의 친필 '모와某窩' 현판
동계 정온家 소장



사선대는 조선 왕실의 근원인 선원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거창군 문화관광과 자료제공

호남의병

Honam Righteous Army

호남의병의 기억, 동의기념비

동의기념비(同義紀念碑)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제9호로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66에 위치하고 있다. 1928년 이희봉(李喜鳳), 권영모(權泳謀), 민영석(閔泳碩) 등 도내 유림 34인이 발의하여 창건(創建)하고 최익현(崔益鉉), 임병찬(林炳燾), 오계엽(吳啓晔), 박재규(朴在珪), 박재구(朴在救)를 향사하였다. 정읍시청 문화예술과/문화재팀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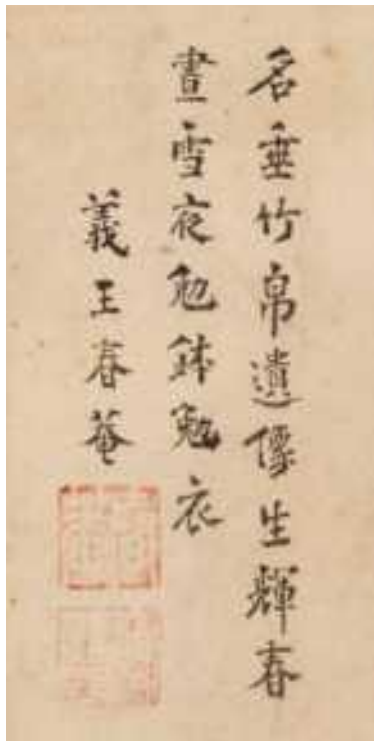


동의기념비 전경



의친왕의 호와 이름인 춘암(春菴) 이강(李綱)이 새겨져 있다.

의친왕과 호남의병의 연관성



오계업 초상화 속 명문

의친왕은 오계업의 초상화가 모셔진 하청사 인근에서 1906년 병오창의丙午倡義와 1912년 고종 황제의 밀조를 받아 대한독립의군부 활동에 참여한 우국지사를 추모하기 위해 동의기념비의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쓰기도 했다.

초상화의 좌측 상단에 의왕義王 춘암春菴과 그의 인장이 적혀 있다. 임병찬의 초상화 좌측 상단에도 이와 동일한 의친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名垂竹帛명수죽백 이름이 역사에 길이 드리우네
遺像生輝유상생휘 남긴 초상화는 빛이 나
春晝雪夜춘화설야 봄날 눈 내리는 밤에 그리니
勉鉢勉衣면발면의 스님의 발우와 옷처럼 영원히
후세에 전하라

義王의왕 春菴춘암



오계업 吳啓曙 Oh Gye-yup 1857~미상

고종 대에 중추원 의관까지 역임했으며, 1906년 최익현, 임병찬 등과 함께 호남 최초의 의병 활동인 병오창의에 참여, 3·1운동 당시 전라도 지역 책임자로 항일투쟁을 하였다.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최익현 崔益鉉 Choe Ik-hyun 1833~1906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최익현은 임병찬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4백여 명을 인솔하고 순창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었다. 대마도에 유배되어 단식 끝에 숨을 거두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임병찬 林炳瓚 Im Byeong-chan 1851~1916

최익현과 함께 호남의병을 조직하여 항일의병활동을 하였다.

1912년에는 고종의 밀조를 받아 독립의군부 전라남북도 순무대장이 되어 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했다. 1914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유배된 거문도에서 순국하였다.

임백(임병찬 후손) 소장

송암 김재식 松菴金在植 Kim Jae-sik 1860~1928

문의군 부강면에서 제국익문사 요원들과 금광을 기반으로
독립자금을 마련한 김재식



035 송암신정기 松菴新亭記 A Memorial Record of Song-am Pavilion

1930년경 | 나무
가로 92cm 세로 48.5cm
백원기 소장



김재식 고택 자료제공

사비강은 속리산에서 나와서 멀리 서쪽으로 300여리를 흘러 낭비성의 보만정 북쪽에서 꺾인다. 그리고 물이 모여서 연지의 용당에서 고여서 더욱 맑게 물결쳐 거울 같이 부들이 펼쳐진 깨끗한 모래가 4~5리를 황우산에서부터 너울댄다. 그리고 못에 이르러 회전하는 것을 왕께서 이리시길 명확리는 옥빛이 아득한 것이 특별히 빼어나 강을 건너 내조한 이들이 이르기 부용산이라 한다 하셨다. 그 동쪽의 태산은 기려하게 별자리를 이루었으며 북쪽으로는 부강리로 통하는데 마을은 영호간의 큰 도회지이다. 시장이 자못 떠들썩하다. 작은 산을 넘고 남쪽으로 갈라져 별장이 하나 열렸는데 천죽정이 있는 곳이다. 고인이 악양루의 경치를 찬하여 이르기 한적함과 변화함을 함께 갖춘 그 아름다움을 향주의 미목¹이라 하였다. 이 정은 실제 그것과 닮았다. 아! 옛적 승평공경의 벼슬에서 물러난 이나 호화자제들이 근처를 점거하여 노래와 피리소리로 서로 풍류를 주고받으며 아름다움을 독차지 하려했지만 오직 자산만은 그 노는 자취에 들질 않았으니 기이하다. 자고로 명승지구는 반드시 그 주인과 드러나길 기다리는 법인데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는 것으로 오늘을 기다리는 것을 삼가는 것이구나. 송암 김공은 은거하여 스스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름이 드러남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친구들도 알아주지 못함에도 또한 화내지 아니하였다. 가슴에 품은 회포를 말끔히 씻어내고도 번려함이 기쁘

036 송암신정기 松菴新亭記
A Memorial Record of Song-am Pavilion

1928년 | 종이에 먹
가로 23.2cm 세로 31.2cm
백원기 소장

의친왕이 김재식 가문에 내려준 ‘송암신정기’ 편액과 친필 서첩에는 일제강점기
임에도 “의왕 이강”이라고 쓴 의친왕의 당당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지 아니하니 어느 때 감흥이 일어나 시를 써 술회를 해도 친구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표연히 홀로 용당과 명학 사이로 가서 소요하며
종일 돌아오길 잊었다. 일찍이 이곳에 정자를 지어 만년의 토구지지²로 여겨 뜻이 있으나 이루지 못하였으니 거연히 죽기를 원하였
다. 고향의 인사들이 일찍이 공의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며 돈을 각출하고 계를 만들어 장차 이로써 존송의 쓰임이 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상고하여 이르길 우리 공의 곤곤의 자취가 폐하여 풀이 덮이도록 할 수 없고 거칠어져 덮여버리도록 할 수 없으니 정자를 세
우는 것을 의논하여 갱장지모³의 이유로 삼기로 함은 어떠한가 하니 이에 정자를 짓기 시작하고 이를 계획하니 공의 아들 학현과
학경이 울며 이르길 우리 부친의 본받음이 날로 요원하고 효도를 다함이 누가 있어 계속 이어감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고향
의 유신들이 우리에게 앞서 정자 짓기를 계획하여 우리 부친의 뜻을 마치고자 하니 스스로 감동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
으니 어찌 그 서로 돕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와 돌을 갖추고 벽돌을 준비하여 집의 기초를 하루도 못되어 완성하
고 샘과 돌을 고쳐놓으니 앞에는 맑은 못이 맑게 빛나고 가을 달 밝은데 물은 뒤면에 기대있네. 가산은 신령한 곳과 같아 하인들과
더불어 그 후손이 이 정자에 올랐더니 원통하고 분하게 추모의 마음을 일으키니 송암공의 뜻을 잊고 수리하여 영원히 존재하도록
한 까닭이다. 비록 오늘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자릉의 유조대와 같이 무궁하게 전하게 되었으니 아! 아름답구나. 송암 성 김씨 휘 재
식은 천보 개국공신 계림군의 후손이다. 사람들을 아끼고 베풀기를 좋아하니 호서의 인사들이 다두어 그 어짐을 말하는 것을 마지
않고 산천을 지나는 바는 더욱 아름다움이 있어 그 뽐뽐하고 푸른 기운이 더욱 늘어가는 것은 마땅하구나.

무진년(1928) 팔월 하순
의왕 이강 씀

1 소동파가 서호의 아름다움을 미녀 서시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쓴 표현 2 벼슬을 내려놓고 은거하여 만년을 보내는 곳 3 조상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

獨立新聞

日本人之...

日本人之... (Main article text columns)

日本人之... (Small text columns)

義親王詳報

義親王詳報 (Text columns)

義親王親書

義親王親書 (Text columns)

歡迎會

歡迎會 (Text columns)

辭職再新任

辭職再新任 (Text columns)

新韓青年

新韓青年 (Text columns)

最後一人... (Bottom section text columns)

독립신문 상해판으로 보는 의친왕의 행적과 활동

Prince Imperial Ui's Activities Shown on the Shanghai Version of
'Dongnip Shinmun(The Independent)' Newspaper



의친왕이 서문에 경성을 출발하기 전 먼저 사람을 상해로 보내어 친서를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의친왕이 상해로 향하는 4가지 목적을 보도하고 있다.

1919년 11월 20일자 독립신문 1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의 친서

1. 일본은 몇 간신과 부동하여 나의 부황^{父皇}과 모후^{母后}를 시해^{弑害}하였으니 이 원통한 사정을 열국에 통곡하며 호소할 것이다.
2. 3월 1일 이래로 전 국민이 빈손으로 독립을 절규하여 외치는데 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와 인도를 무시하고 학살을 자행하나 우리 국민은 백절불굴의 기세로 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의 열혈이 더욱더욱 끓어 국민의 정신이 결코 일본에 동화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할 것이다.
3.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10년 전후에 제반조약으로 우리의 국토를 합병한 것은 간사한 도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제 체결한 것이지 결코 나의 부황^{父皇}이 금종^{肯從}하심이 아닌 것은 내가 확실히 아는 바이다. 그러니 이를 세계에 공포할 것이다.
4. 나 역시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나는 독립되는 우리나라의 평민이 될지언정 합병으로 나라를 잃고 일본의 황족^{皇族}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임시정부가 성립된 당지에 나아가서 정부의 제공^{諸公}과 더불어 손을 맞잡고 생사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에 갈력하여 동포들의 고심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노니 나의 이와 같은 결심은 하나인즉 복수를 위함이고, 또 하나인즉 조국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함인 것이다.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1920)-의친왕의 피체(被逮)》

조선민족朝鮮民族

대동단大同團

Daedongdan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3·1운동 이후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이다. 대동단은 모든 신분제를 타파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항일투쟁에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였다. 조직은 관료, 유림, 학생, 의병, 승려, 여성, 보부상 등 각계각층 11개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수만 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일본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 형성, 세계의 평화 확보, 사회주의를 실행한다는 3대 강령을 내세웠다. 총재 김가진이 상하이로 망명한 후 본부를 상하이로 이전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와 긴밀히 공조하여 의친왕의 임시정부 망명 작전을 준비했다.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대동단선언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이천만 민중의 정성에 의지하여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는 것과 우리 민족이 자유민이라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선언하며 또한 증언하노라.

조정에는 순국한 신하가 있었고 재야에는 순절한 백성이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고 국민이 복이 없었다.
황제께서는 입장을 밝히셨지만 도리어 자리에서 쫓겨나는 모욕을 당하셨고,
의롭게 일어난 선비와 백성들은 일족까지 모조리 몰살당하는 재앙을 겪어야만 하였다.

세계 개조와 민족 자결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고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자유를 부르짖는 소리는 나라 안에 울려 퍼졌다.

3월 1일에는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0일에는 정부를 건설했다.
하지만 저 간악한 일본이 시대적 대세가 어떠한지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표범과 이리와 같은 야만스러움으로 무자비한 억압을 저질러
맨손의 군중들을 총으로 싸죽이고 도시와 촌락에 불을 싸지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인류의 양심에 비추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 민족의 참된 충성과 뜨거운 피는 결코 이러한 도리에 어긋나는 압박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의와 인도로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아가길 뿐이다. 만일 일본이 끝내 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부득이 3월 1일의 공약에 따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목숨을 건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대한민국 원년(1919)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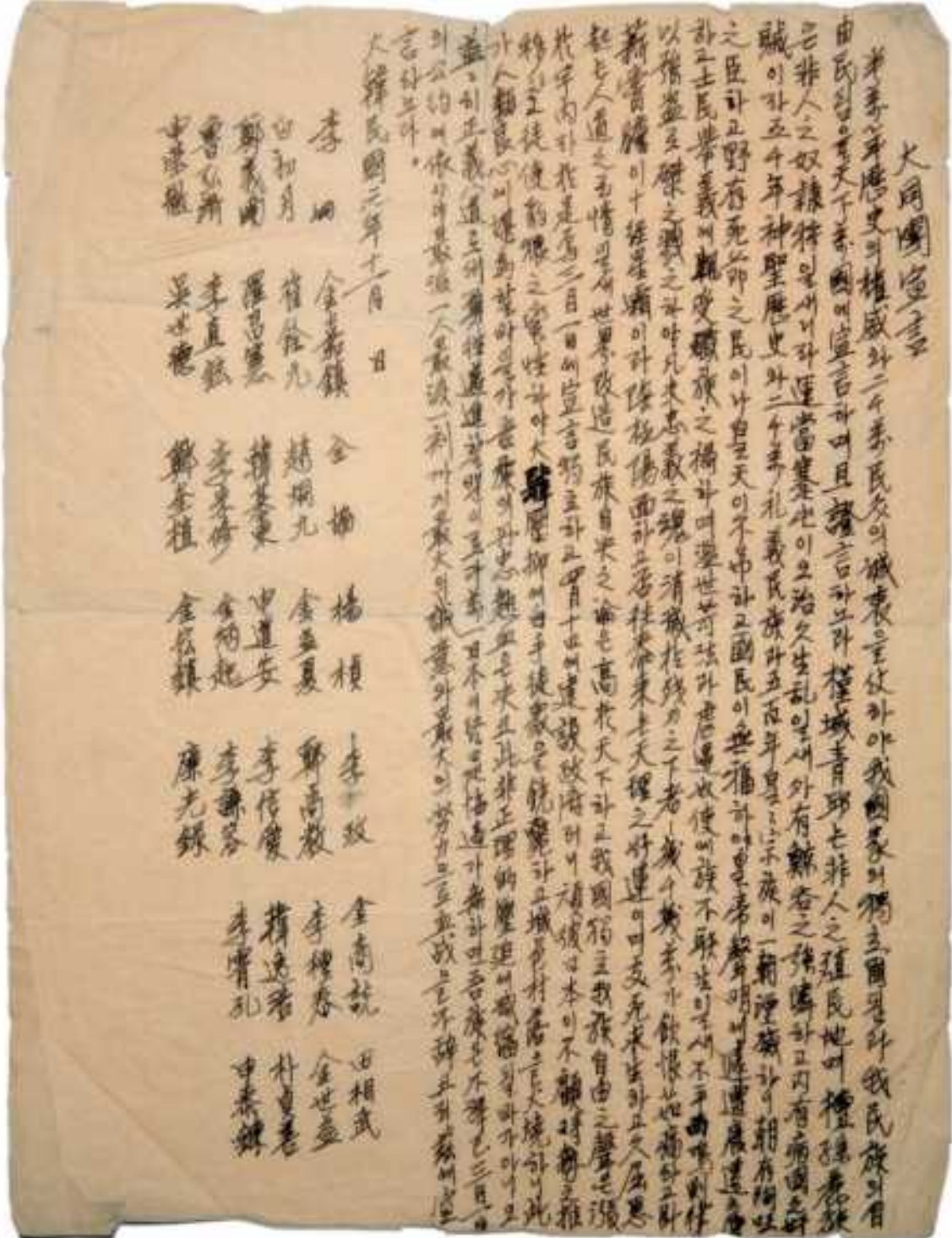
의친왕 이강, 김가진, 전협, 양정, 이정, 김상설, 전상무, 백초월, 최전구, 장형구, 김익하, 정설교, 이종춘, 김세웅, 정의남, 나창현, 한기동, 신도안, 이신애, 한일호, 박정선, 노홍제, 이진현, 이래수, 김병기, 이겸용, 이설후, 신태런, 신헌철, 오세덕, 정규식, 김홍진, 염광록

©국사편찬위원회

037 조선민족대동단 선언서
朝鮮民族大同團宣言書
The Daedongdan Declaration

대한민국 원년(1919) | 종이
가로 16.5cm 세로 21cm
김선현 소장

1919년 3월 서울에서 설립된 조선민족대동단은 총재 김가진이 상하이로 망명한 후 본부를 상하이로 이전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선언서에는 의친왕 이강, 김가진, 전협을 포함하여 33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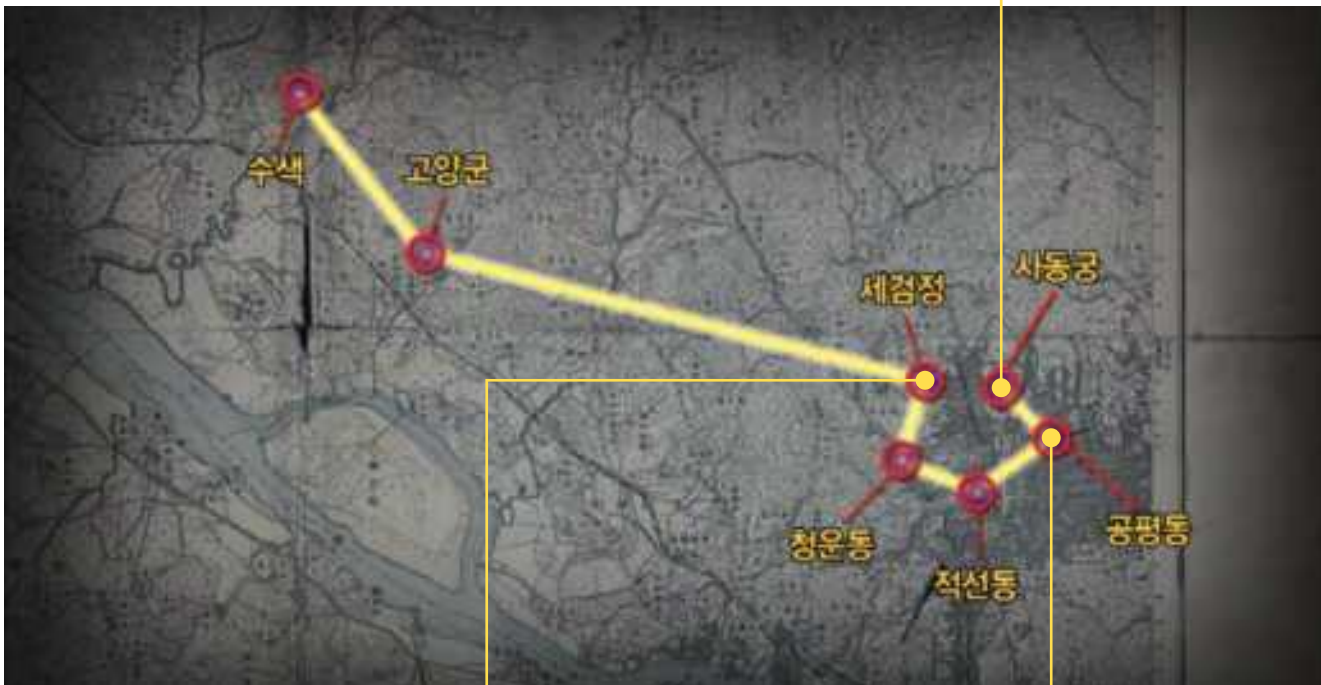
서울 종로에서 중국 안동역^{安東驛*}까지 2km를 남기고 체포된 의친왕

A Route of Escape by Prince Imperial Ui
from Jongno, Seoul to Andong, China

* 안동^{安東}은 중국 단둥^{丹東}의 옛 명칭이다.



의친왕 사저이자
친왕부(親王府) 사동궁 양관
《대경성사진첩(1937)》



의친왕 이강의 상해 임시정부 망명을 위한 이동 경로



이강궁 전하의 상해 도거를 계획하던 창의문 밖 세검정
(매일신보 1919년 11월 27일)
©한국연구원



공평동 비밀 가옥(동아일보 1927년 7월 13일자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의친왕 이강과 대동단원의 일자별 활동

©신복룡, 《대동단실기》

1919년

11월 9일
오후 11시 사동궁을 나와 공평동 비밀 가옥 접선,
의친왕 상해 임시정부 망명 결심

11월 10일 의친왕 변장 후 대동단원과 함께
인력거를 타고 적선동, 청운동 지나
세검정 이동

11월 10일
새벽 3시경 의친왕과 전협 일행
세검정洗劍亭 도착

11월 10일
새벽 밝아올 무렵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에 있는
비밀 가옥 도착

11월 10일
오전 수색역 도착

11월 10일
오전 11시 안동행 열차 놓침,
구기리 가옥에서 1박

11월 11일
오전 11시~ 수색역발 단동 행(舊 안동역)
열차 탑승

이룡양행怡隆洋行 선박에 탑승하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는 의친왕을 알아 본
일본 경부에 의해 체포, 의친왕 경성 압송



매일신보 1919년 11월 27일자 기사에 실린
의친왕 탈출 사건
©한국연구원



전 황족이 안동현서 체포
독립신문 1919년 11월 1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동단사건...수염 난 사람이 전협(全協: 1878~1927) 단장
...십구일 지방법원에서 (매일신보 1920년 11월 20일)
©한국연구원

獨立新聞

日本人에게

日本에서

義親王

義親王殿下에서上海로오시던길에安東에서敵의게잡히시도다。殿下의一生의不遇에同情하고殿下의愛國的勇氣를稱頌하던國民은殿下를敵手에서救濟지 못함을 슬퍼하고泣하리로다。

大韓國民으로되려日本의背信과虛虛에對하야徹天의怨을 품지아니하리오만은殿下는다른國民보다도二重三重的怨恨을 품으셨도다。

(獨立되난大韓의平民이될지언정合併한日本의皇族이되지아니하리라)하심과(我의此行의目的은國家의獨立과父皇及母后의怨讐를平復하심이라)하심이엇더케沈沈한일삼이뇨。

아마敵은殿下의再舉를許치아니하러니와殿下에서安心하소서。殿下의素願을풀어줄일이멀지아니하리이다

의친왕

의친왕이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다 중국 안동현 安東縣에서 일본에 체포된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의친왕의 애국적 용기를 칭송하던 국민들이 의친왕을 일본에서 구제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는 기사이다.

1919년 11월 20일자 독립신문 2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과 독립운동

의친왕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탈출하여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지만, 일본에 의해 체포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내 주요 지역의 독립운동 계획도 전부 탄로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기사이다.

1919년 12월 2일자 독립신문 2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義親王과獨立運動

京城電에韓國前皇의長子인義親王은京城을脫하야上海로向하는길에日本官憲의探知한뒤되어韓國革命黨의一首領과함하安東驛에被擒하야京城으로護送되다此事件으로因하야某日을期하야全韓重要各地에서一齊히起하란計劃이全部暴露되다

東京二十七日路透電

의친왕출경상보

조선민족 대동단에 관한 조직과 단장 전협(全協, 1878~1927)의 활약을 소개하며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한 대한독립운동 참가를 위해 의친왕이 탈출을 시도하였던 대동단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19년 12월 25일자 독립신문 2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향호의 동기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한 조선민족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이 의친왕 전하가 상해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종황제 독살 사건 이후 일본의 불의(不義)와 폭학(暴虐)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의친왕이 단독으로 결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간접적으로 대동단과의 동행을 상의한 것을 보더라도 망명 결심이 오래되었으며 자발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가진이 붕어 5일 전에 고종황제를 직접 알현하였을 때도 극히 건강하시고 유쾌하게 담화하셨음을 언급하며 고종황제는 일본의 독살로 붕어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의친왕은 일본에 의해 살해된 부황(父皇)과 모후(母后)와 조국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국내를 탈출하려 함이 인정(人情)이 아니겠냐며 말하는 김가진의 눈물에 기자도 슬프고 침울함을 금치 못하다고 적고 있다. 이에 덧붙여 김가진은 일본이 의친왕에 대할 방침에 대해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유폐하였듯이 은거(隱居)라는 명의로 유폐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1919년 12월 25일자 독립신문 2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과 임시정부

의친왕이 상해로 가려고 했던 사건을 기회로 임시정부가 인심을 거두어 잡기 위해 의친왕을 수령으로 삼으려 했고, 김가진의 상해 망명 역시 인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본이 혈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한제국 황족이나 귀족은 새로운 한국정부에 들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격만 있으면 어떠한 공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황실 우대나 인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1920년 1월 8일자 독립신문 4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환궁

대동단사건 이후 체포되어 조선총독부 내 녹천정 綠泉亭에 억류 중이던 의친왕이 신년축하로 환궁하여 본인의 사저에서 일본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1920년 1월 17일자 독립신문 1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근상

조선총독부 내 녹천정에 갇힌 의친왕이 의친왕비가 거처하던 지밀의 내당에 유폐되었다. 일본은 밤낮으로 의친왕을 감시하고, 일절 내외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수인당 김홍인은 궁내에서 산보하다 일본 사무관의 공갈에 경겁하여 낙태하고 병석에 누웠다.

1920년 1월 31일자 독립신문 2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천거

대동단사건 이후 독립운동에 관계된 의친왕을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강제 천거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실려 있다.

1920년 1월 22일자 독립신문 2면,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소장



의친왕이 동경행을 강경히 거절

일본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의친왕을 강제로 동경東京으로 이사하기를 압박하고 있으며 의친왕은 일본 귀족의 호칭을 버리고 평민으로 고국에서 죽기를 원한다며 동경행을 강경히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1920년 4월 13일자 독립신문 1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의친왕과 함께 한 애국지사

Patriots Who Worked with Prince Imperial Ui



대한제국 2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고 있는 김가진의 초상화
김선현 소장



김가진이 60세가 되던 1905년 법무대신 대례복을 입고
백운동 사저에 지었던 몽룡정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김선현 소장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김가진 金嘉鎭 Kim Ga-jin 1846~1922

구한말 개화관료로서 주일·주청 외교관을 지내며 자주 외교의 틀을 세웠고, 1896년 독립협회 창립에 가담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중추원 의장을 역임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1919년에 조선민족대동단의 총재로 추대되었고, 같은 해 10월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2022년은 김가진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의 유해는 상하이 송경령능원에 묻혀있다.



038 훈공3등 팔괘중수장

Cordon of the Palgwae for the Order of Merit, Third Grade

대한제국 | 금속

중수: 길이 24cm 폭 3.8cm | 문채: 지름 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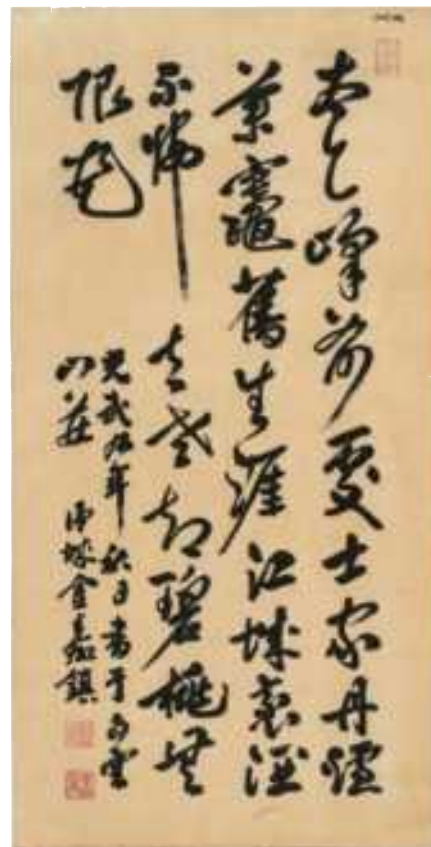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01년(광무5) 4월 16일 칙령 제10호로 반포된 팔괘장은 훈격을 1등부터 8등으로 구분하였고, 목 아래에 패용하는 중수는 3등에 해당하였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1년 9월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가진은 훈 3등에 서훈되었는데, 김가진의 초상화와 사진에서 확인되는 팔괘중수장과 동일하다.



039 김가진이 의친왕에게 써 준 글씨
Calligraphy written by Kim Ga-jin

대한제국(1905) | 종이에 먹
가로 69.2cm 세로 137.7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40 칙임관 2등 문관 대례복
Court Costume of a Second Rank Chigimngwan

대한제국(1900~1905) | 모직
상의: 화장 77cm 품 43cm 어깨길이 38cm 전체길이 94cm
모자: 길이 42cm 폭 16cm 높이 15cm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1904~5년 개정된 문관복장제식을 따른 칙임관 2등 문관 대례복이다. 칙임관 2등은 상의 앞부분 좌우에 무궁화 문양을 2개씩 넣어 총 4개의 무궁화를 장식하였다. 상의 뒷부분에 무궁화와 당초무늬를 시문하였다. 대례복에 자수된 무궁화는 여섯 개의 꽃잎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가진의 초상화와 사진에 보여지는 대례복과 유사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金奎植 1881~1950

The Vic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Kim Kyu-sik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후 외무총장, 학무총장에 임명되었으며, 국제연맹 임정 대표로서 독립청원을 위하여 외교 활동을 하였고 임정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독립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1932년 후 국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주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였다. 김규식은 1950년 6.25 전쟁 중 사망하였다.



파리강화회의 대표단(1919) 김규식(1열 맨 오른쪽)

독립기념관 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Paris Delegation



자유한국 제6호 표지
태극기 수집가 이병근 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자료제공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공표하는 고종황제 밀서
자유한국 제3호(1920.7.)

자유한국 La Corée Libre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통신국에서 불어로 발행한 월간잡지이다.
1920년 4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총 13호 10책을 간행하였다. 「자유한국」
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의 침략·박해 등 극동 상황을 소개한 잡지
로, 매호 1,000부씩 유럽과 미주를 비롯한 세계 요처에 배포했다.



자유한국 제3호(1920.7.)-한국의 활약, 의친왕(Prince Eui)

중 · 미 통신사, 서울 발

본인의 귀하께서 본인이 중국에 갈 당시
귀하의 경찰에 의해 어떻게 제지되었는지를 알려 드렸던
본인의 앞서의 서한들을 잘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귀하의 경관들이 본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경에 가도록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상 각하, 본인은 본인의 왕자의 지위를 거부하며
본인의 유일한 희망은 일개의 시민으로서
간주되길 원하면서...

이왕자(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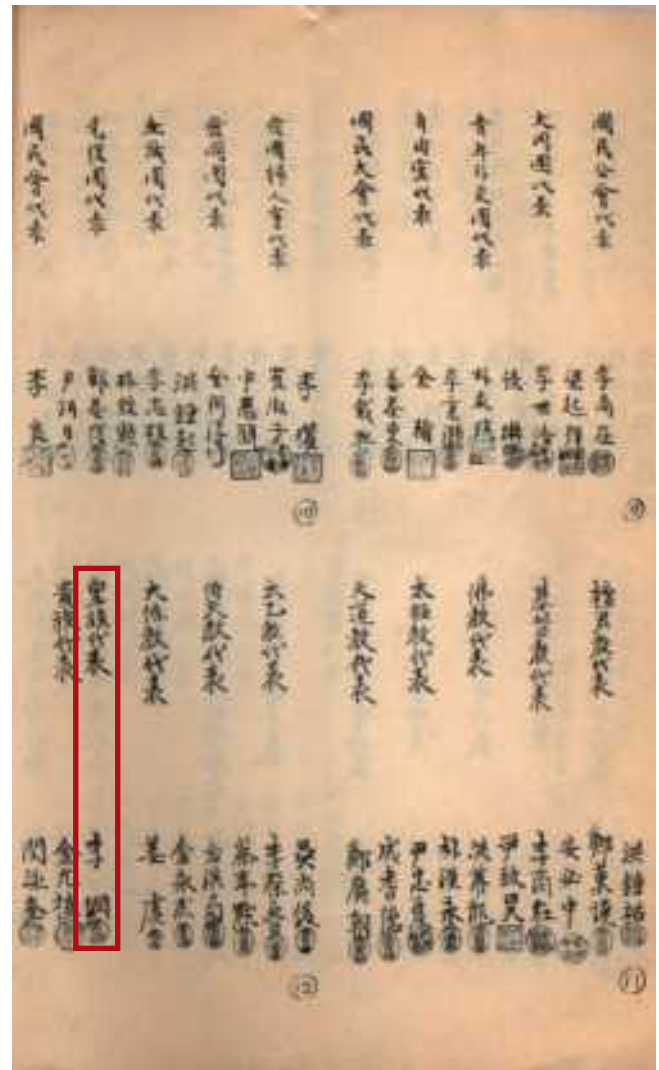
Foreign Activities of Prince Imperial Ui



Petition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and the Far East

이 회의에 제출된 건의서는 1921년 8월 대한민족대표단을 조직, 1921년 11월 워싱턴 5대 열강회의에 한국독립문제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재필(徐載弼, 1864~1951)이 대표단후원회 조직, 외교 경비를 담당하였고 건의서는 국내 이상재(李商在, 1851~1927)와 연락하여 작성하였는데, 국내 13도 260군과 각 사회단체 대표자 272명이 서명하였다.

NAME OF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The Buddhists of Korea	Hong Ho-Bang
Tai Kyoik (a religious sect)	Pak Han Young
The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Yoon Chong Ha
Tai Ji (a religious sect)	Sung Lo Tok
Si-Chon (a religious sect)	Chung In Cho
Dai Chong (a religious sect)	Oh Sang Choon
Korean Imperial Family	Lee Young Lo
Korean Nobility	Choi Dong Nook
Korean Buddhists Union	Kim In-Kook
The Society for Propagation of Buddhism	Kim Young-Soul
The Confucians of Korea	Kang We
The Confucius Society	Prince Yiha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Classical Learning	(The second son of the former Emperor Yi)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Kim Young-Sick
The Labor Society	Min Young-Kin
Young People's National Union	Lee Meng-Win
The International Y. M. C. A.	Kim Tai-Hyun
The 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	Kim Hong-Cho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Cylin-Wu-Kin
The Young Men's Daishongkyo Association	Sung Ki-Woon
The Students' Alliance	Lee Byung-Chul
Manual Labor Benefit Society	Lee Song-Ha
	Kim Young-Han
	Uh Yoon-Juh
	Lee Kang-Nip
	Min Kwang-Ho
	Choi Chong-Kwan
	Moon Taek
	Lee Byung-Hi
	Chung Tsh-Soo
	Kim Sa-Kook
	Lee Byung-Cho
	Hong Hyung-Sup
	Kim Sang-Ho
	Do-Chun-Ho
	Chung De-Joon
	Park Sa-Chil
	Park Il Byung
	Ja-Roun-Su
	Chun Il
	Kim In-Ei
	Pak Ei-Kin
	Lee Chun-Hi



건익서 명단에 영문으로 대한제국 황실 중 고종의 둘째 아들인 의친왕 Yi, 한문은 황족대표 이강李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동단사건 이후 의친왕은 일본의 감시 하에 있었지만, 미국까지 전달된 그의 항일독립 의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독립기념관 소장



신한민보 1920년 6월 4일

Shinhanminbo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며 의친왕은 국외에도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렸다.



일본에 가자는 강박을 거절

차라리 평민으로 고국에서 죽을지언정 일본의 더러운 공작을 마다하고 결심하여 한국 각처에서 남녀 노소가 일심 단결하여 국권 광복에 많은 희생이 있는 중에 의친왕을 중심으로 하고 서울에 있는 유림들과 원로들 중에서도 광복 활동에 은근한 활동을 시험하는 일을 탐문한 일인들은 의친왕 전하를 동경으로 유인하여다가 가둬 한 일생을 허송시키려 계획을 정하고 혹은 글로 혹은 경관을 보내어 위협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정중한 책망을 하였는데 그 전문을 아래에 기록함(중미 통신사 통신).

일본 총리대신 · 내무대신 · 총독 사이트에게 보낸 글

일전에 경관이 졸지에 와서 동경으로 이사하기를 아울러 내가 자원하여 가기를 압박하니 이와 같은 일은 실로 가당치 않으며 이와 같은 일은 죄수나 다름이 없는지라.

내가 말하건대 살피사 이 잔명(殘命: 남은 수명)을 공작(公爵)의 지위에서 떠나 평민으로 남은 나를 지나게 하면 실로 나의 원하는 바로다.

©이해경, 마지막 황실의 추억(2017)

일제의 감시

A Close Watch by Japanese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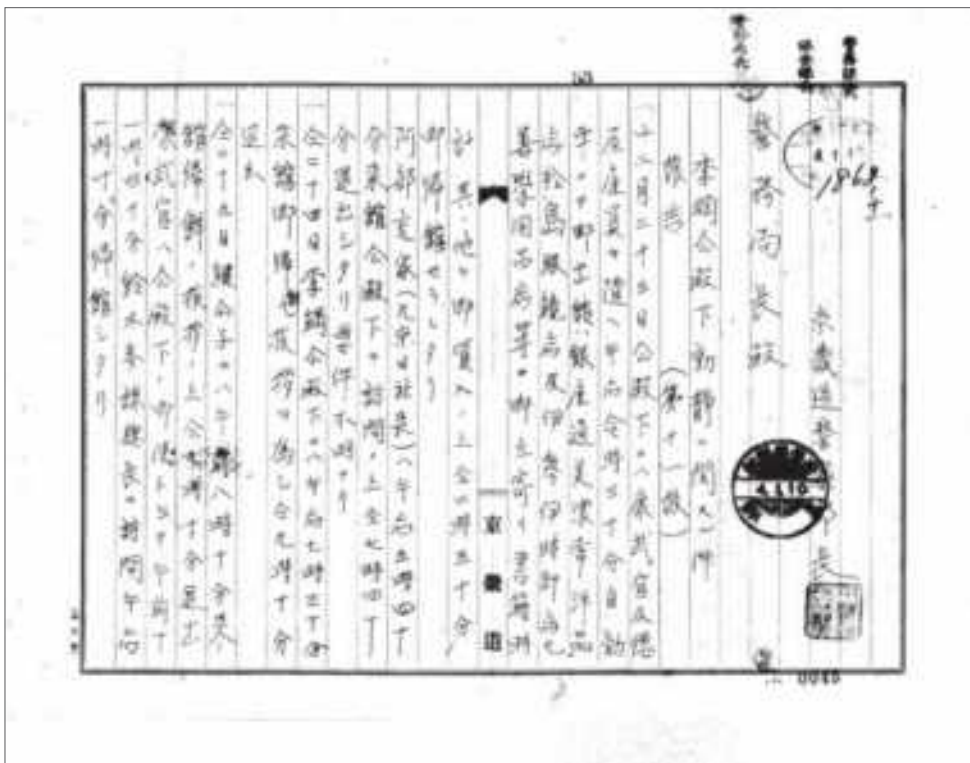
경비관계철-이강공비 양전하 관계

警備關係綴-李垺公妃兩殿下關係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경무과警務課에서 1929년에서 1931년까지 3년간에 걸친 의친왕 이강 부부에 대한 일본 경찰의 감시 일지 서류철이다.

이 문건은 <이강공전하李垺公殿下 동정動靜에 관한 보고>로 의친왕 이강의 행동이나 건강상태, 외출상황 등 어떤 용무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국가기록원 소장



이강공 전하 동정

1929년 12월 23일

오후 0시 30분 여관 출발

양품점과 안경점 등에 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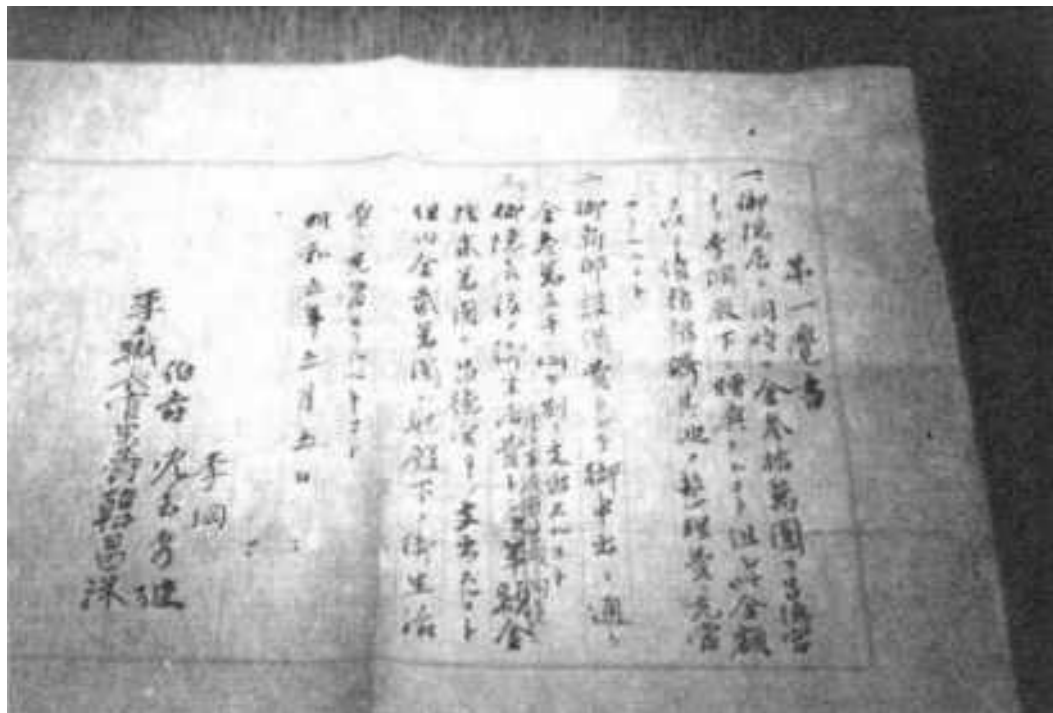
서적, 시계 구입

오후 2시 50분 여관으로 귀가

오후 5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

아베충가를 면담

요건은 분명하지 않음



일제의 의해 강제로 쓰인 의친왕의 은퇴 각서(1930년)

A Forced Retirement Letter

의친왕은 은퇴하고 공의 칭호와 모든 재산을 큰아들인 이건李鍵에게 물려준다.

은퇴 후에는 일본에 머물러야 하며 일본 국내에서는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의친왕에게는 30만 원을 지불하고 의친왕비에게는 매년 12만 원씩 생활비로 지급한다.

이해경, 『마지막 황실의 추억』, 유아이북스, 2017 자료제공

IV 의친왕비 1880~1964

義親王妃 Her Imperial Highness Princess Ui



1937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친왕비(義親王妃, 1880~1964)는 연안^{延安} 김씨 김사준^{金思濬}의 따님으로 본명은 김덕수^{金德修}이다. 1893년 10월 29일 의화군^{義和君} 이강^{李綱}과 혼인하여 연원군부인^{延原郡夫人}에 봉해졌다. 1900년 의화군이 의친왕^{義親王}에 봉해지고, 1907년 의친왕비^{義親王妃}로 추봉^{追封}되었다.

의친왕비와 의친왕 사이에는 소생이 없고 후궁들이 낳은 아이들이 의친왕의 공식적인 자녀로 입적되었다. 의친왕의 자녀들은 궁 밖에서 생모와 살았으나 다섯째 딸 이해경을 비롯한 몇몇 자녀들은 생모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의친왕비가 사동궁에서 돌보았다. 아이를 낳은 후실을 인정하는 뜻에서 당호^{堂號}를 내려주고 아이들을 ‘전하의 아이들’이라 칭하며 각별히 아꼈다.

성품이 어질고 사리에 밝았으며 학문도 뛰어났다. 마지막 황실의 일원으로 궁의 예법과 법도를 지키며 의친왕을 극진히 모셨다. 1955년 천주교에 귀의하여 세례를 받았다. 경제적 곤궁과 한국전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고 살다 1964년 칠궁에서 돌아가셨다.

Princess Ui (1880~1964) was the daughter of Sajoon Kim of Yeon-An Kim clan. Her name was Duksoo Kim. She was married to Prince Uihwa on December 6, 1893, and named Lady Yeonwonkoon. Prince Uihwa was installed in 1900 and Princess Ui was installed later in 1907.

The couple had no children of their own. Children by royal concubines were registered later as their legal children. Most of the children by concubines were raised by their own mothers outside of the palace. A few of the children including the fifth daughter, Haikyung Lee, were raised by Princess Ui in Sadong Palace. She endowed the royal concubines who bore children with honorable status and let them live in the special residence. Princess Ui cherished the children and called them royal highness's children.

She was kind, wise and well read. She tried to maintain the royal etiquettes and rules as the last line of royal family. She took good care of Prince Imperial Ui. She was baptized as a catholic in 1955. She died with dignity in 1964 in Chil Palace even after all the suffering of poverty and Korean War.

순헌황귀비와 의친왕비

Imperial Honored Consort Sunheon and Princess Ui

1904~1907년경

영친왕의 어머니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1854~1911, 왼쪽 첫줄)와 의친왕비(왼쪽 첫줄 두번째)의 모습이다. 의친왕비는 어머리에 봉황흉배를 부착한 원삼을 입고 있다. 한삼에 찍힌 수복(壽福)자와 어깨와 소매 무늬는 경운박물관 소장 의친왕비 원삼의 금박 무늬와 매우 유사하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 친잠례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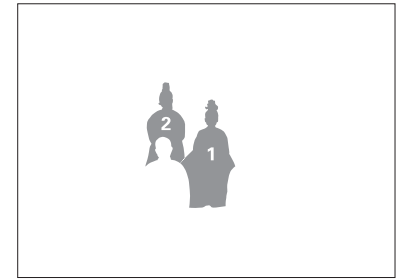
The Chinjam Rites of Empress Sunjeonghyo

1911년

순종비 순정효황후(1894~1966, 중앙)¹와 의친왕비(왼쪽)²의 모습이다. 친잠례를 거행한 후 찍은 기념사진으로 『일본지조선日本之朝鮮』에 실려 있다. 황후와 의친왕비는 수복壽福자가 장식된 당저고리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이왕가 사진 앨범에는 동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친잠례 기념사진이 있다. 건물 기둥에 ‘어친잠실御親蠶室’이 적혀 있고, 일본인 여성과 함께 촬영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041 의화군 길례 시 발기

義和君吉禮衣服件記

List of Costumes

1893년 | 1장 종이에 먹 | 가로 144cm 세로 25.4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계사년^{癸巳年} 10월 의화군 길례 시 마련한 부인의 발기이다. 초록색 금 수복^{壽福}자 당저고리를 비롯해 각종 저고리, 치마, 단속곳, 신발, 베개와 이불을 당주홍색 칠을 한 함통에 넣도록 하였다.



042 의화군 길례 시 자장 발기

義和君吉禮資粧件記

List of Accessory and Costumes

1893년 | 1장 종이에 먹 | 가로 33cm 세로 26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계사년 10월 길례를 위하여 마련한 부인의 장신구와 의복 목록이다. 칠보 족두리, 진주 이당, 가라치, 진주 낭자 등 장신구와 초록색 직금전자 원삼, 송화색과 분홍색 장원주 저고리, 다홍색 공단 봉대, 남색 옷치마, 다홍색 겹치마 등을 갖췄다.



043 추봉책봉의궤 追封冊封儀軌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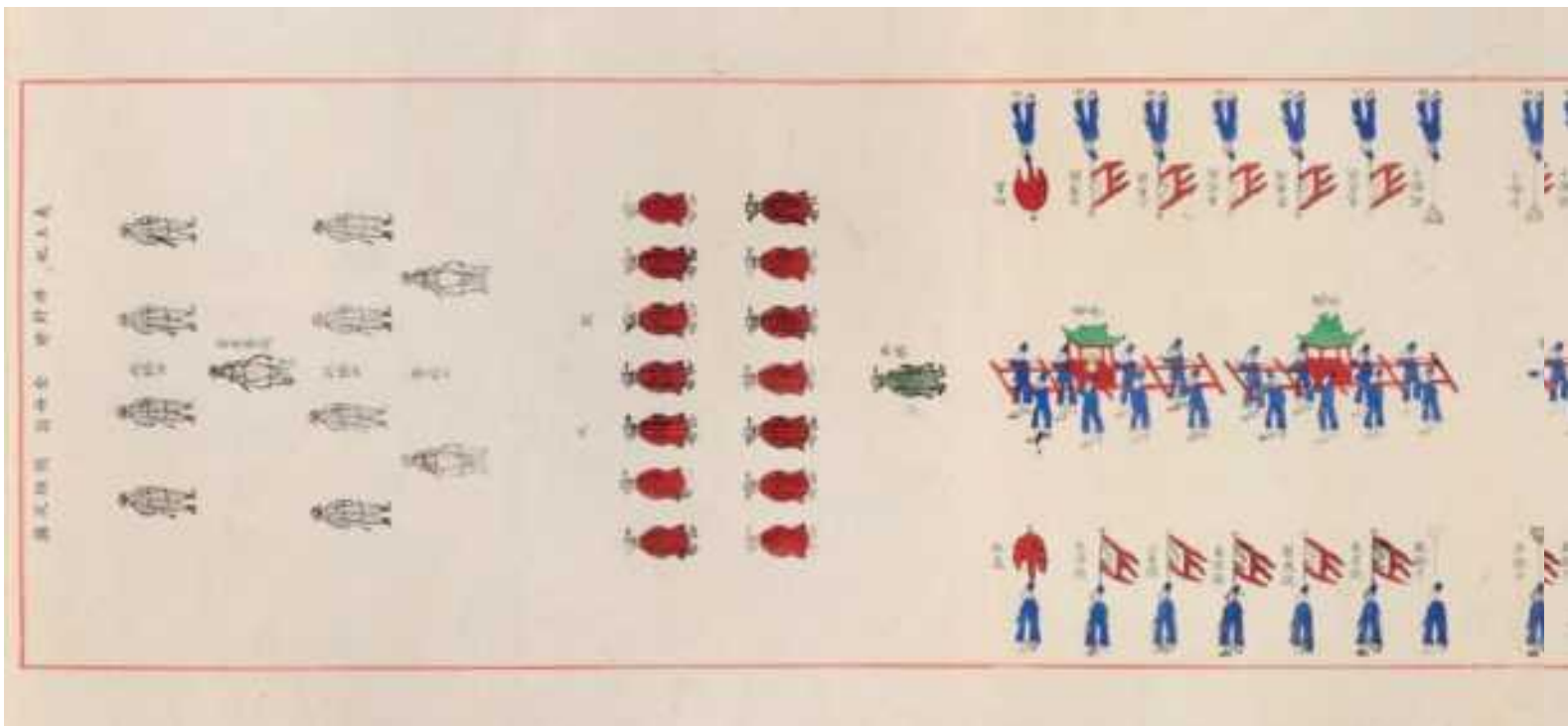
1907년 | 1책 필사본 | 가로 32cm 세로 45cm
오른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보물 제190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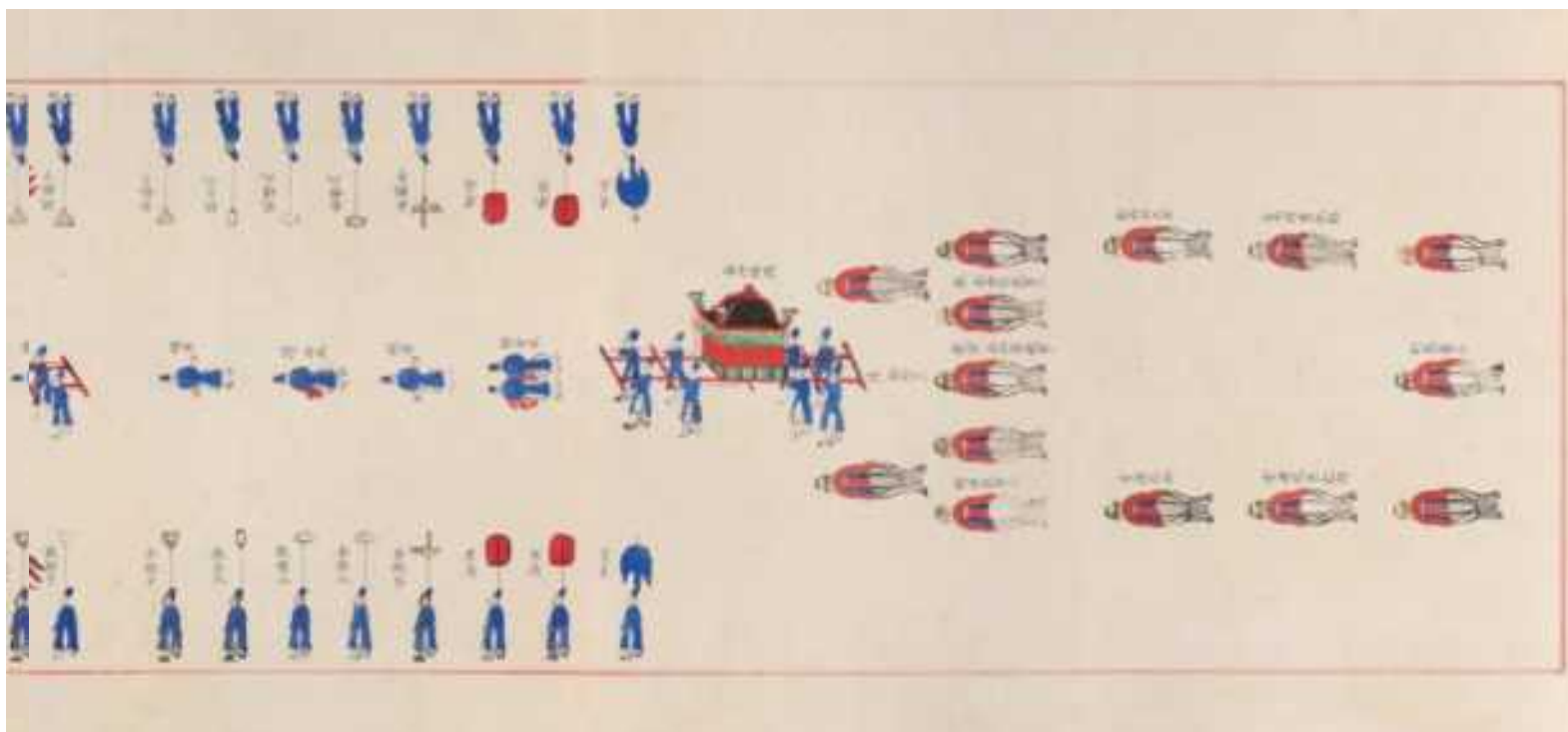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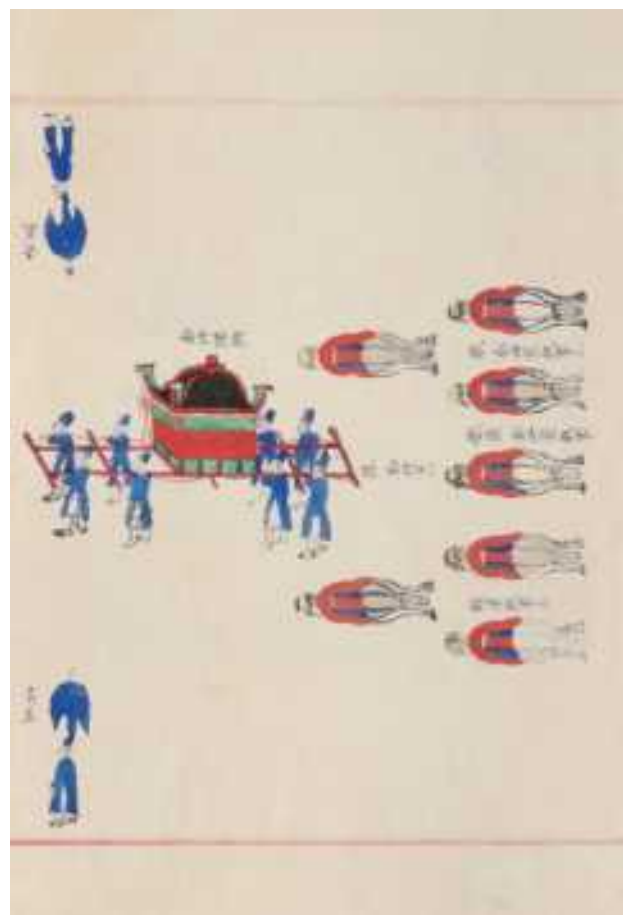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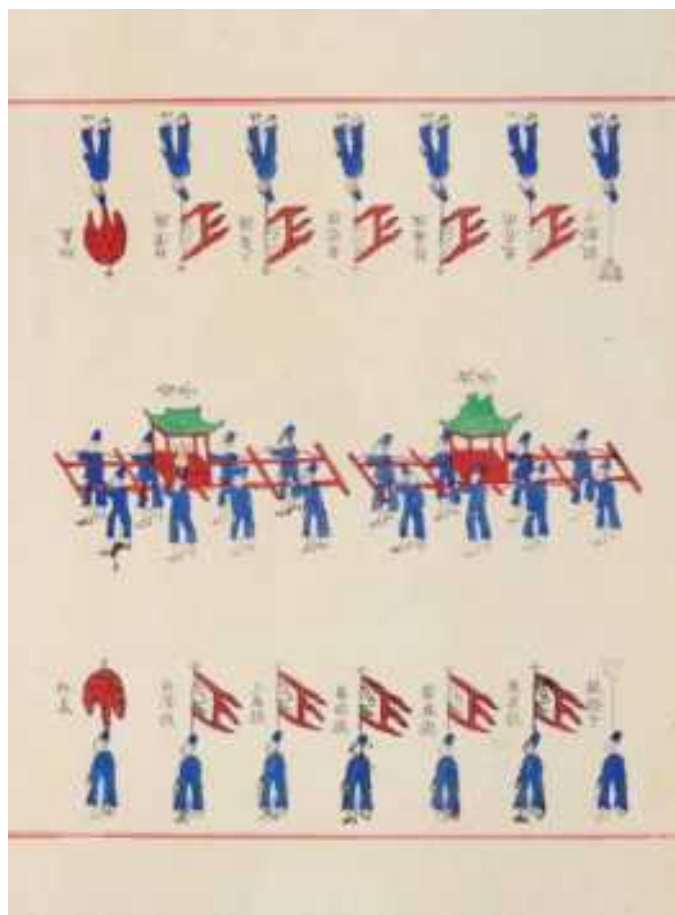
1907년 10월부터 흥선대원군, 여흥부대부인 민씨, 완화군, 연원군부인 김씨(의친왕비)를 추봉하고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어람용 의궤이다. 1907년 10월 2일에 의친왕비에 대한 책례冊禮를 행하였다.



의왕비 책봉의식의 반차도

의왕 책봉과 마찬가지로 금책을 곁에 들이는 행렬을 그린 6면의 반차도이다.







044 의친왕비 원삼 義親王妃圓衫
Princess Ui's Ceremonial Robe

19세기 말 | 견 생고사 직금단 금박
등길이 140cm 화장 114cm 품 43cm
경운박물관 소장

원삼圓衫은 조선말기 궁중 여성과 사대부士大夫 부인의 대례복으로 신분에 따라 색과 금박 무늬를 달리하였다.

이 녹원삼은 의친왕비가 입으셨던 원삼으로 길과 소매부분은 연두색 도류사桃榴紗로 만들고, 소매끝의 색동 부분은 홍색과 황색의 직금단織金緞으로, 한삼은 소색 생고사生庫紗로 만들었다. 어깨와 도련에는 수복화문壽福花紋 금박을 찍었으며, 한삼에는 수자壽字 금박을 찍었다.



045 의친왕비 당의 義親王妃唐衣
Princess Ui's Ceremonial Jacket

19세기 말 | 견 생고사 금박
등길이 86cm 화장 67cm 품 39cm
경운박물관 소장

당의는 조선말기 궁중 여성과 사대부 부인이 저고리 위에 입은 소례복小禮服이다. 비빈妃嬪의 것은 금박金箔이나 직금織金으로 장식하였으나 사대부 부인의 것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이 녹색 당의는 의친왕비가 1945년까지 입으셨던 것으로 겹감은 연두 생고사生庫紗, 안감은 진분홍 생고사로 지었으며 어깨와 도련에는 봉황문 금박을 찍었다. 가슴과 등, 양쪽 어깨에는 금사로 수놓은 오조룡보를 붙였다.

046 의화군 길례 시 원삼대 圓衫帶
Ceremonial Robe Belt

19세기 말 | 견 문주(영초단) 금박
길이 345.4cm 너비 6cm
경운박물관 소장

금박으로 화문이 찍혀 있는 원삼대이다. 원삼대 뒷면에는 '계사길례시의화궁팔' 목서가 적혀 있다. 계사년 길례는 1893년 의화군의 길례를 말하며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047 의친왕비 스란치마 義親王妃膝襪赤々
Princess Ui's Ceremonial Skirt

19세기 말 | 견 대화단 | 길이 105cm 폭 235cm
경운박물관 소장

스란치마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입던 예복치마이다. 겉감은 남색 대화단, 안감은 연보라색 자미사이며 무명 허리를 달았다. 밑단에는 봉황문 금박을 찍은 스란단을 붙였다.



048 의친왕비 스란치마 義親王妃膝襪赤々
Princess Ui's Ceremonial Skirt

19세기 말 | 견 생고사 금박 | 길이 130cm 폭 336cm
경운박물관 소장

남색 도류사에 금박 스란단을 붙였다. 스란단 무늬는 다초, 백귀, 만류, 수축자 사이에 각종 보문과 화문이 있다. 치마 말기는 없으며 스란단은 절반만 남아 있다.





049 의친왕비 화관 義親王妃花冠
Princess Ui's Ceremonial Coronet

20세기 초 | 옥 산호 비취 진주 비취모 등
가로 9cm 세로 12.5cm
경운박물관 소장

화관은 여성용 예모禮帽의 일종으로 관모보다는 장식의 성격이 강하다. 이 화관은 의친왕비가 1945년까지 쓰셨던 것으로 정면에 회자문 回字紋 옥판을 달아 꾸미고, 정수리에는 옥 봉황을 중심으로 산호·비취·진주 등으로 꾸몄다. 뒷면에는 비취모翡翠毛를 붙이고 진주를 달아 장식한 화관 금비녀 1쌍이 꽂혀 있다.

050 의친왕비 쪽댕기 義親王妃唐只
Princess Ui's Hair Ribbon

20세기 초 | 건 문단 청파리 홍파리 자개 금박 등
길이 56.6cm 너비 2.4cm
개인소장

쪽을 장식하였던 땃기이다. 자주색 문단으로 만든 작은 땃기 위에 박쥐 금박을 올리고 정교하게 만든 화형 자개를 청파리, 홍파리로 장식하였다.



051 의친왕비 호리병 노리개 義親王妃葫蘆瓶佩飾
Princess Ui's Pendants

19세기 말 | 견사 금속

길이 30.48cm

경운박물관 소장

두 개의 봉술이 달린 호리병 본체가
은파란 띠돈에 연결된 소삼작 노리개
이다. 호리병 장식은 가금으로 제작
되었다.



052 이해경 노리개 李海瓊佩飾

Lee Haikyung's Pendant

20세기 초 | 건사 금속 비취모 | 길이 30.5cm

경운박물관 소장

한 쌍의 봉황이 마주 있는 단작 노리개이다.
봉황 날개 일부는 비취모로 장식했다. 5녀
이해경이 돌과 6남 이곤(명길) 결혼식에
당부와 함께 패용했던 노리개이다.





053 이해경 새앙머리댕기 李海瓊唐只
Lee Haikyung's Hair Ribbon

20세기 초 | 견 진주 금박 | 길이 134.5cm 너비 5cm
경운박물관 소장

이해경 李海瓊 Lee Haikyung 1930~
1956년경
이해경 제공

이해경은 의친왕의 다섯째 딸이며 생모는 김금덕 여사이다. 1945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했다. 3세에 의친왕비와 함께 사동궁에서 거주했다. 1955년 의친왕비와 아버지 의친왕의 홍서薨逝를 지키고 다음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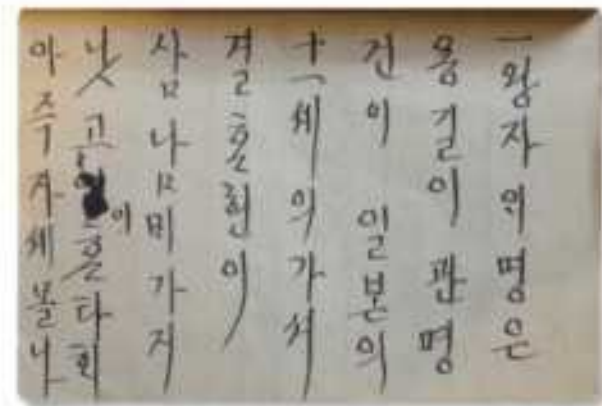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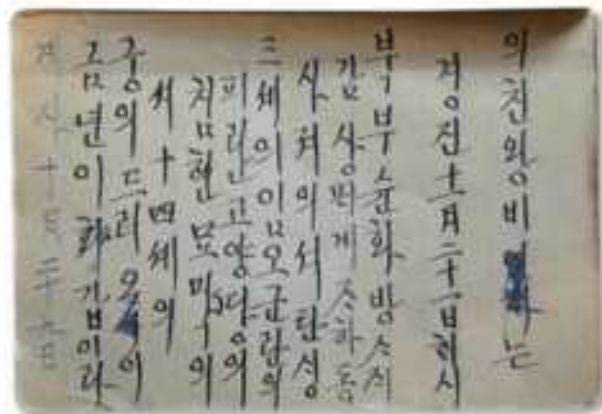
사진 속 이해경은 미국 유학 직전 의친왕비께서 하사하신 당의와 스란치마, 화관을 갖춰 입고 촬영한 것이다.



054 의친왕비 유언장 義親王妃遺言狀
Princess Ui's Last Words

20세기 초 | 종이 | 가로 7.62cm 세로 10.16cm
경운박물관 소장

의친왕비가 후손에게 남긴 친필 유언장이다. 의친왕과 본인의 탄생일부터 의친왕의 자손과 그들의 생모를 총 정리한 자료이다. 의친왕비의 출생일을 경진년(1880) 11월 21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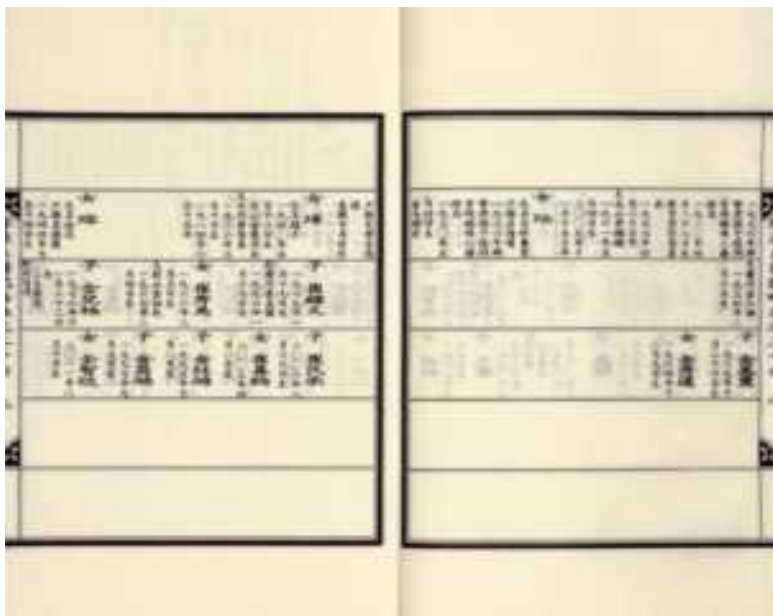


055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紀略 八
Imperial Family Tree

2015년 | 종이 | 가로 23cm 세로 34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선원계보기략』은 조선시대 왕실 족보이다. ‘선원璿源’이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옥포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왕실 조상의 계통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왕실 족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때는 1412년 태종太宗대이다. 왕실 족보는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 세 가지로 나누어 작성되었고 숙종肅宗대에 기존의 족보를 종합하여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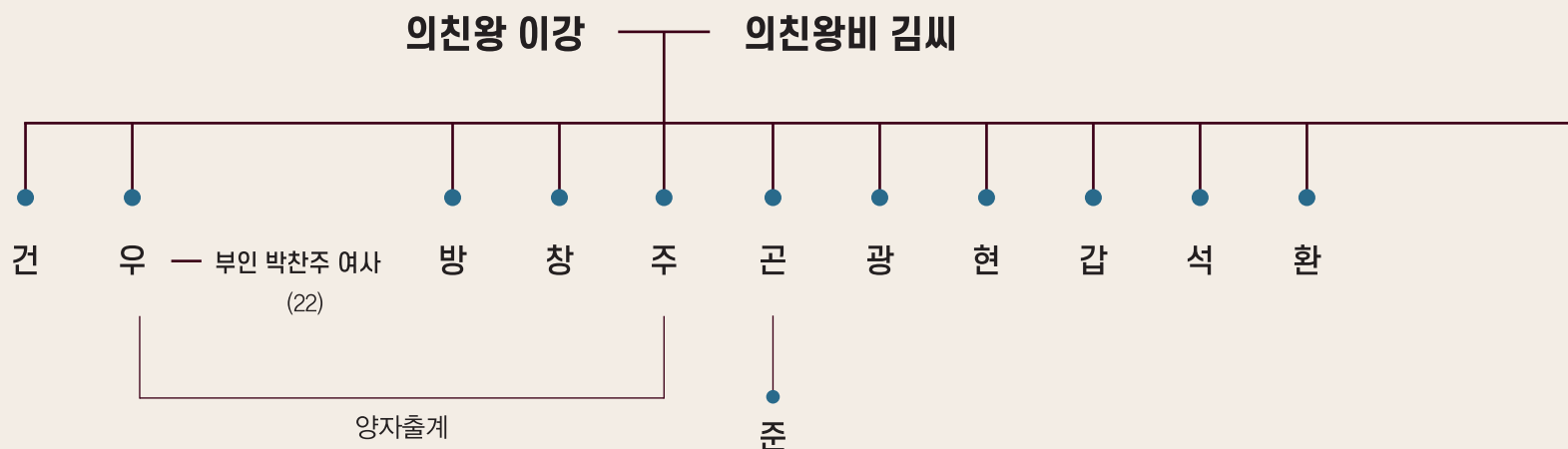
이후 왕위계승에 따라 개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 영친왕 양자 이원(李源, 1962~) 황사손과 의친왕손 계보를 추가 기록한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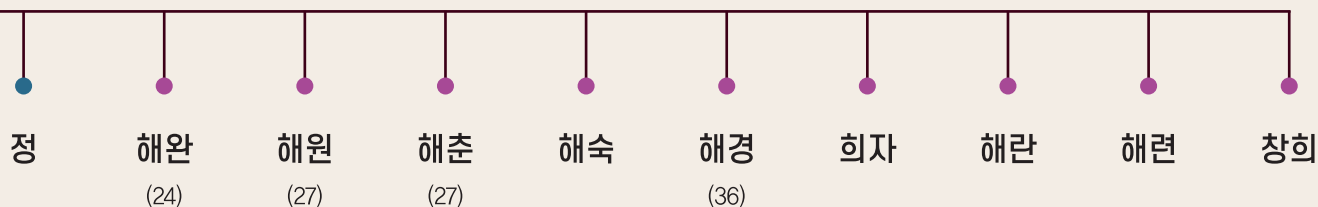
V 사동궁 이야기

Family Story of Prince Imperial Ui

의친왕 가계도



● 남 ● 여 () 경기여고 졸업회차



다 각각 있어 고생도 많고 설움도 많고 오직 회포가 많겠는가
나는 다 못 보고서 죽을 듯 하니 모든 자녀 손이 잘들 자라서
좋은 사람 되기를 천만 바라는 것 뿐 더 부탁 아니 하나니
설움에 자라나는 것 분할수록 잘들 해서
후세사람 부끄럽지 않게 되기만 희망이라

- 의친왕비 유언장 중에서

I am sorry that we all fell apart. I sorrow for your suffering and burden.
I might not be here long enough to meet you again.
I deeply wish that all my offspring become person of good upbringing and nature.
Please keep your sorrow in mind.
And be fine person worthy of respect not to disgrace ourselves in the future.

- Excerpt from Princess Ui's last words to her descendants

056 황실어사진첩 皇室御寫眞帖
Photo Album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1934년 | 종이 | 가로 18.8cm 세로 26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쇼와천황昭和天皇의 첫 번째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여 일본에서 발행한 사진첩이다. 일본 황실 인물 사진을 비롯하여 조선 황실 인물 사진과 계보가 기재되어 있다. 조선 황실은 왕공가로 격하 분류되어 책의 가장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황실 및 왕공가 어창계보 皇室及び王公家御畧系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계보에는 조선 황실을 왕공가로 격하하여 분류하였고 영친왕 이은李垕 내외, 의친왕 이강 내외, 덕혜옹주를 비롯한 자손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강李綱 전하 대훈위大勳位

이강비李綱妃 전하 훈동 2등

이건공李鍵公 저택(도쿄東京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이강 전하는 고 이태왕(고종)의 둘째 아드님으로 메이지明治 10년 (1877) 3월 30일 탄생하셨습니다. 인자하신 분으로 현재 육군중장의 예우를 받고 계십니다.

비전하는 故 김사준 남작의 맏따님으로 메이지 11년(1878) 12월 22일 탄생. 현숙하고 부덕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동궁의 후손들 Descendants of Sadong Palace



이건공 전하(육군기병중위 훈 1등)

이건공비 성자(誠子) 전하

이충 공자

이건공 전하는 이강 전하의 첫째 아드님으로 메이지 42년(1909) 10월 28일 탄생. 쇼와(昭和) 5년(1930) 6월 부왕이신 이강 공께서 물려나신 뒤 그 자리를 잇게 되셨습니다. 같은 해 여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육군기병중위(陸軍騎兵中尉)로 근무하고 계시다 합니다.

비전하는 마쓰다이라(松平) 허씨댁의 첫째 따님으로 메이지 44년(1911) 10월 6일 태어나셨습니다. 지센(實踐)여학교를 졸업하시고 쇼와 6년(1931) 6월 백작인 광도(廣度) 진광(眞廣)씨 가문에 입적한 뒤 같은 해 가을 혼례를 치루셨습니다.

이충 공자는 이건공 전하의 첫째 아드님으로 쇼와 7년(1932) 8월 14일 탄생하셨습니다.



이우공 전하(육군포병소위 훈 1등)

이우공 전하는 이강 전하의 둘째 아드님으로 다이쇼(大正) 원년(1912) 11월 15일 탄생. 다이쇼 6년(1917) 5월 특별고지에 의해 돌아가신 이준공(영선군(永宣君) 이준용)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쇼와 8년(1933) 7월 11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야포병 제1연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건 李鍵 Yi Geon 1909~1991
1937년

이건은 의친왕의 첫째 아들이며 1930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기병 중위로 재직하였다. 1931년 영친왕비 이방자의 외사촌 마쓰다이라 요시코松平佳子와 결혼했다. 1955년에 일본으로 귀화하였으며 귀화명은 모모야마 겐이치|桃山虔一이다.

『황실황족성감皇室皇族聖鑑』 소화편昭和篇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057 **이건 계급장** 李鍵階級章
Yi Geon's Insignia

20세기 | 직물 금속
가로 8.3cm 세로 65.4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깨띠는 어깨에서 가슴을 가로질러 착용하며 ‘응소군인應召軍人’ 글자가 찍혀 있다. 완장은 붉은 모직물이며 중앙에는 하프 모양 장식이 덧대어져 있다. 완장 뒷면에 삼베를 대었고 좌우 끝에는 총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계급장은 장방형의 붉은 모직물 중앙에 금띠를 덧붙여 제작한 것이다. 견장은 카키색 모직물에 붉은 계급장과 별모양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058 의친왕궁 아기 의복 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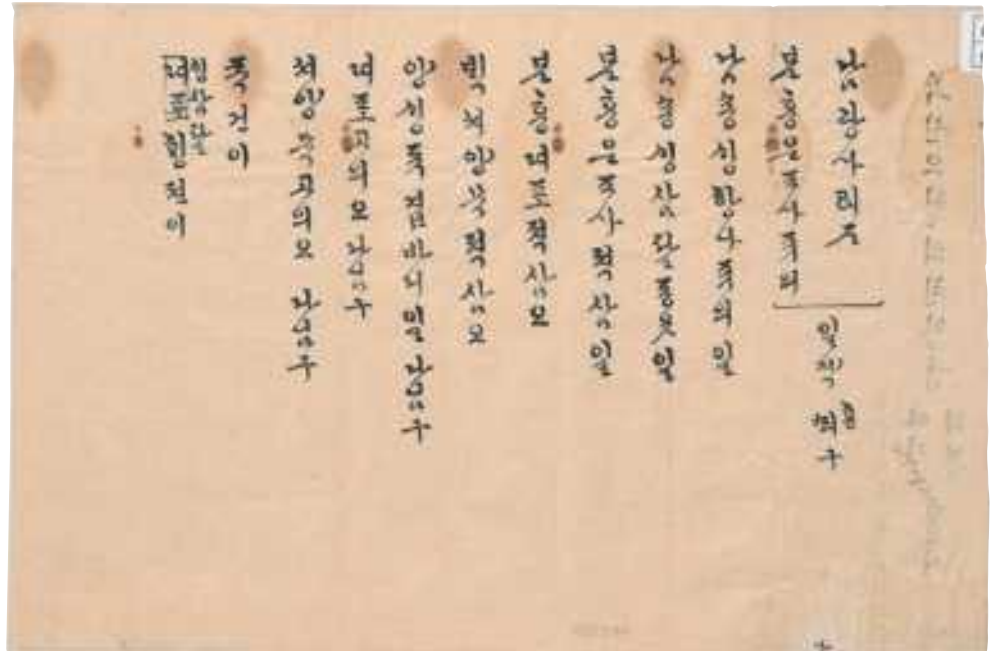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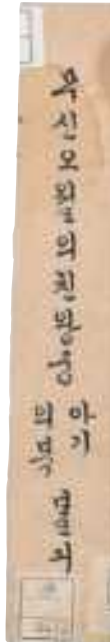
義親王宮兒只衣服件記

List of Costumes

1908년 | 1장 종이에 먹 | 가로 25.5cm 세로 38.5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무신(戊申) 1908년 5월 의친왕 궁가(宮家)의 아기를 위해 마련한 의복의 발기로 추정된다. 목록에는 남색 광사로 만든 쾌자와 분홍색 은조사로 만든 두루마기 한 벌에 홍색 띠를 갖추었다. 이외에도 두루마기, 적삼, 겹바지, 행전 등이 확인된다.



059 이건 만찬초대장

李鍵晩餐招待狀

Invitation Card

1939년 | 종이 | 가로 9.1cm 세로 14.1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육군기병중위 타카다 히코고로(高田彦四郎)

등에게 보낸 만찬초대장 및 만찬 식단, 식탁기호표 등이다. 초대장 상단에는 겹오얏꽃 장식이 있다.





이건 부부 사진 Yi Geon and His Wife

20세기 초

혼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진 속 이건은 조복朝服과 금관金冠을 착용하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부인은 대수大首머리에 봉황 흉배胸背를 부착한 원삼圓衫을 입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060 이건 벼루함, 벼루, 연적 李鍵硯函, 硯, 硯滴

Yi Geon's Inkstone and Case, Water Dropper

1931년 추정 | 돌 나무 자개 등

벼루 가로 8.1cm 세로 13.6cm 높이 1.8cm

벼루집 가로 22cm 세로 26cm 높이 4cm

연적 바닥지름 4.1~4.7cm 높이 1.1cm

개인소장

벼루집을 보관하는 상자 뚜껑에는 '이건전하어혼식어행기념李鍵殿下御婚式御行記念'이라는 목서가 있으며 이는 1931년 의친왕의 장남인 이건李鍵 결혼식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벼루와 연적의 바닥면에는 오얏꽃 형태의 테두리 안에 '미美'자 명문이 찍혀 있다.





이건 결혼 기념사진 A Photo Taken to Commemorate Yi Geon's Wedding
1931년

일본 다나카氏 사진관에서 촬영한 이건 결혼기념 사진이며 촬영 날짜와 명단이 적혀 있다. 사진의 첫째 줄 중앙에는 첩지머리에 저고리 치마를 입은 의친왕비의 모습이 보이며 양옆으로 이건 부부가 앉아 있다.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이우 李鰐 Yi Wu 1912~1945

이우는 의친왕의 둘째 아들이며 1917년 영선군永宣君 이준용의 양자로 들어가 운현궁의 가계를 이었다. 193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제국 육군에서 근무했다. 1935년 박영효의 손녀 박찬주(경기여고 22회)와 결혼했다.

『박찬주 히로시마 방문 사진첩』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의친왕과 이건·이우 Prince Imperial Ui and his Sons
1930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우 Prince Yi Wu
1930년경

『이우 박찬주 결혼 사진첩』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운현궁 이우와 박찬주 Prince Yi Wu and Park Chanju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1987



이우 결혼기념 Wedding Commemoration of Prince Yi Wu
1930년대

『이우 박찬주 결혼 사진첩』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이우와 박찬주 Prince Yi Wu and Park Chanju

연도 미상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영친왕과 이건·이우 Imperial Prince Yeong · Yi Geon · Prince Yi Wu
1938년

『靖國神社臨時大祭記念寫真帖：昭和十三年十月』, 靖國神社臨時大祭委員, 昭和13年10月



이우공 전하 히로시마 원폭 기사

매일신보 1945년 8월 9일자

매일신보는 일제 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이며 당시 이우의 원폭 사건에 대해 전하고 있다.

이우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廣島로 전출되어 말을 타고 출근 하던 중 훈가와교川橋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다음날인 8월 7일 34세에 별세했다.

한국연구원 자료제공



이우공 전하 히로시마 원폭 기사

아사히신문 1945년 8월 9일자

아사히신문은 1879년에 창간된 일본 신문으로 매일신보와 동일한 이우의 원폭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근배 소장

061 박찬주 천담복 淺淡服
Park Chanju's Jade-green Hanbok

20세기 중반 | 견 순인
저고리 등길이 31cm 화장 66cm
치마 길이 104cm 폭 287.5cm
경운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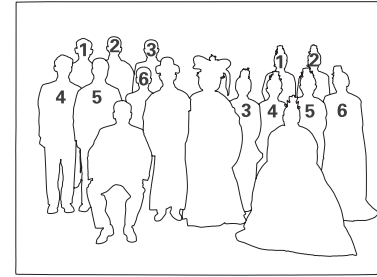
국상^{國喪}이나 3년 상^喪을 치르고 100일 동안 입는 옥색 제례복^{祭禮服}이다.
박찬주는 남편 이우가 별세한 후 화려한 복색^{服色}을 피하기 위해 옥색 옷만
입었다. 저고리와 치마의 겹감은 옥색 순인이며 안감은 갑사를 사용했다.



박찬주 朴贊珠 Park Chanju 1914~1995

이우의 부인 박찬주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남편을 잃은 후 운현궁에 거처했으며 1950년 추계학원(現중앙여자고등학교)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남

1. 의친왕 4남 이창
2. 의친왕 5남 이주
3. 넷째(이해숙) 사위
4. 의친왕 8남 이현
5. 셋째(이해춘) 사위 박찬범
6. 의친왕 3남 이방

여

1. 셋째 며느리 황씨
2. 의친왕 1녀 이해완(경기여고 24회)
3. 의친왕 5녀 이해경(경기여고 36회)
4. 의친왕 4녀 이해숙
5. 의친왕 3녀 이해춘(경기여고 27회)
6. 의친왕 5남 부인 하시구치 치에코

의왕 일가족 義王一家族 Prince Imperial Ui Family

20세기

의친왕의 여섯째 아들 이곤李鉰(본명은 이명길, 1919~1984년)의 결혼 기념사진이다. 첫줄에는 양복을 착용한 의친왕(왼쪽)과 수복壽福자 당의唐衣와 화관花冠을 쓴 의친왕비(오른쪽)가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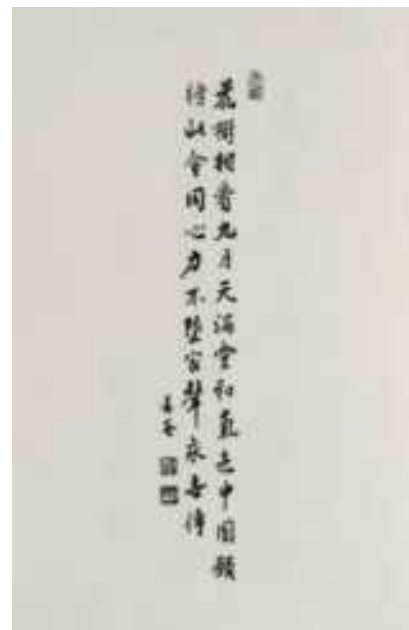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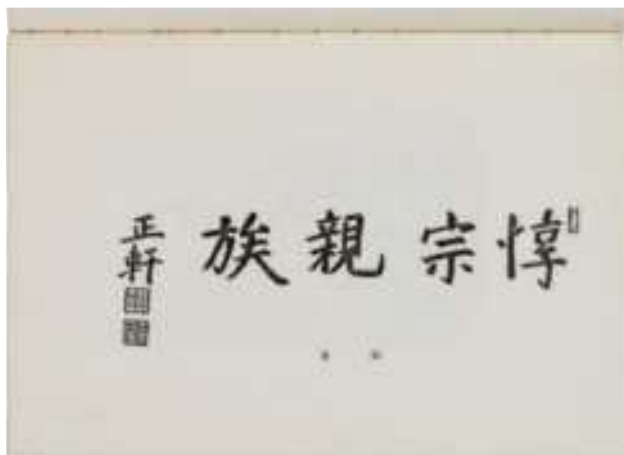
오류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이곤과 그 초실初室

Yi Gon and His Wife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1987



062 동광 東光
Donggwang, The First Edition of Jeonju Lee Clan's Magazine

1924년 3월 | 종이에 인쇄
가로 15.5cm 세로 22.3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전주 이씨 기관지인 「동광」의 창간호이다. 순종純宗의 '돈종친족' 惇宗親族 친필과 의친왕의 친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꽃과 나무는 구월 하늘 아래 서로를 바라보고
조화로운 기운 집안에 가득하고 맘속의 뜻도 원만한데
원컨대 이 모임을 한마음으로 힘써 이끌어
떨어지지 않을 가문의 명성을 오래도록 전하세나. 춘암.

사동궁 생활유물 Everyday Relics of Sadong Palace

063 호랑이 깔개 虎皮席
Tiger Skin Rug

19세기 | 가죽
길이 220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내가 6학년 때
형제들이 양관에 모여 댄스파티를 했어요
오빠(이건)가 “너 이리 와” 해서 가보니
나를 호랑이 위에 눕히고 둘둘 말아 장난을 쳤죠
그때는 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던지

오빠들은 내가 놀라는 게 귀여워
그 장난을 자주 치곤했어요

— 이해경 황손 인터뷰 중에서

064 표범 가죽 豹皮
Leopard Skin

19세기 | 가죽
길이 144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65 황실이층농 皇室二層籠
Imperial Two-tiered Chest

20세기 초 | 나무 금속
너비 102.7cm 옆너비 48.5cm 높이 196.7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창덕궁에서 사용하던 이층농이다. 부분적으로
봉황 문양 자개장식이 있으며 장식에는 오얏
꽃이 새겨져 있다.



066 은입사정병 銀入絲淨瓶
Silver-inlaid Kundika

고려 13세기 | 금속
바닥지름 5.4cm 높이 2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67 자사호 紫砂壺
Purple Clay Ceramic Teapot

19~20세기 | 자사

1_바닥지름 10cm 높이 10.3cm

2_바닥지름 6.8cm 높이 9cm

3_바닥지름 9.5cm 높이 8.3cm

4_바닥지름 7.5cm 높이 6.7cm

5_바닥지름 6.2cm 높이 16.5cm

의천왕기념사업회 소장

자사호는 명나라 10대 황제인 명무종(明武宗) 정덕(正德)(1506~1521)연간에 만들기 시작했다. 자사호의 자사(紫砂)는 '자줏빛 모래'라는 뜻으로 중국 장쑤성(江蘇省) 남부에 있는 이싱(宜興) 일대에서 채취되는 자사토를 말한다.



1



2



3



4



5

068 청화백자주자 靑華白磁注子
Blue and White Porcelain Teapot

명나라, 14~17세기 | 도자기
바닥 가로 9.8cm 세로 5cm 총 높이 2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69 청화백자주자 靑華白磁注子
Blue and White Porcelain Teapot

명나라, 1426~1435년 | 도자기
바닥지름 12.5cm 총 높이 12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대명선덕년제大明宣德年製

070 청화백자주자 靑華白磁注子
Blue and White Porcelain Teapot

명나라, 14~17세기 | 도자기
바닥 가로 10cm 세로 10cm 총 높이 21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1 은제 봉보니에르와 향합 銀製器物
Silver Bonbonnière and Incense Case

20세기 | 은

1_입지름 4.8cm 뚜껑지름 5.2cm 높이 4.8cm

2_입지름 4.3cm 높이 4.7cm

3_가로 7.9cm 세로 2.6cm 높이 1.3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고종황제가 사동궁 후손에게 수여한 황실 하사품이다. 은제품 하단에는 '순은 純銀'과 '미美'자 명문이 있어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1



2



3

072 은제향합 銀製香盒
Silver Incense Case

20세기 | 은

높이 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3 은제 주전자와 잔 銀製注子
Silver Teapot and Cups

20세기 | 은

주전자 바닥지름 7cm 높이 18cm

잔 입지름 5.5cm 높이 3.5cm

잔받침 지름 9.1cm

쟁반 지름 29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4 은제도금술잔 銀製鍍金酒杯
Silver Wine Vessels

20세기 | 은, 도금

입지름 4.2~15cm 밑지름 1.4~4.9cm 높이 2~5.1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5 은제술잔 銀製酒杯
Silver Wine Vessels

20세기 | 은

높이 7.3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6 은제주전자 銀製注子
Silver Teapot

20세기 | 은
높이 20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7 은제티스푼 銀製茶匙
Silver Teaspoons

20세기 | 은
길이 9~11.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8 은제 주전자 銀製注子
Silver Teapot

20세기 | 은
바닥지름 5.5cm 높이 17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79 은제합 銀製盒
Silver Bowl with a Lid

20세기 | 은
뚜껑지름 17cm 바닥지름 6.8cm 총 높이 13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80 신선로 神仙爐
Royal Hot Pot

20세기 | 동

뚜껑지름 15cm 바닥지름 9.6cm 높이 12.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81 수인당 은제비녀 修仁堂銀製簪
Princess Imperial Consort Suindang Kim's
Silver Ornamental Hairpins

20세기 | 은
길이 9~10.5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82 은제뒤꽂이 銀製簪
Silver Ornamental Hairpin

20세기 | 은
길이 5.9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83 수인당 은제가락지 修仁堂銀製指環
Princess Imperial Consort Suindang Kim's
Silver Rings

20세기 | 은
지름 2.8~2.9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84 위원화초석 송죽포도문 일월연
渭原花草石松竹葡萄文日月硯
Prince Imperial Ui's Inkstone and Case

조선 15~16세기 | 돌 나무

벼루 가로 2,5cm 세로 33,5cm 높이 3cm

벼루집 가로 29cm 세로 39cm 높이 7cm

이근배 소장

의친왕이 사용하던 벼루이다. 위원화초석은 평안북도 위원군 위원강(渭原江)에 있는 귀한 돌을 말한다. 이 돌은 녹두색과 팔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녹두색은 풀을 상징하고 붉은 팔색은 꽃을 상징해 화초석(花草石)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송죽포도(松竹葡萄) 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가운데 둥글게 파낸 두 개의 못이 해와 달을 상징한다.



085 이우공 벼루 李鰐公硯
Yi Wu's Inkstone and Case

20세기 | 돌 나무

벼루 가로 12,5cm 세로 19,2cm 높이 2cm

벼루집 가로 15cm 세로 23,3cm 높이 4,5cm

이근배 소장



086 흥선대원군 시화 興宣大院君詩畫
Calligraphy written by Heungseon Daewon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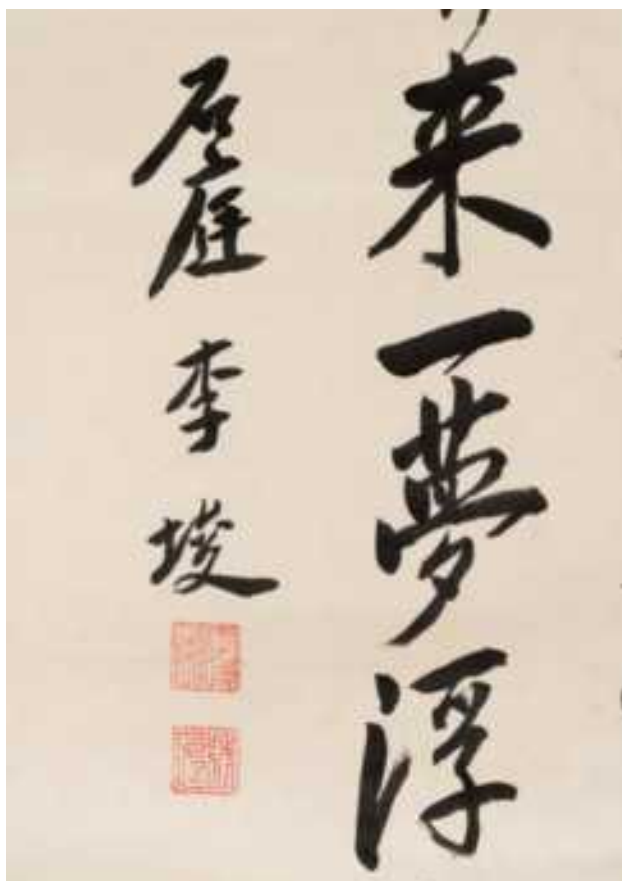
20세기 초 | 종이에 먹 | 화폭 33.7cm 세로 136.9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087 영선군 이준용 글씨 永宣君李竣鎔筆書
Calligraphy written by Yi Junyong

20세기 초 | 직물에 먹 | 화폭 34.6cm 세로 137.4cm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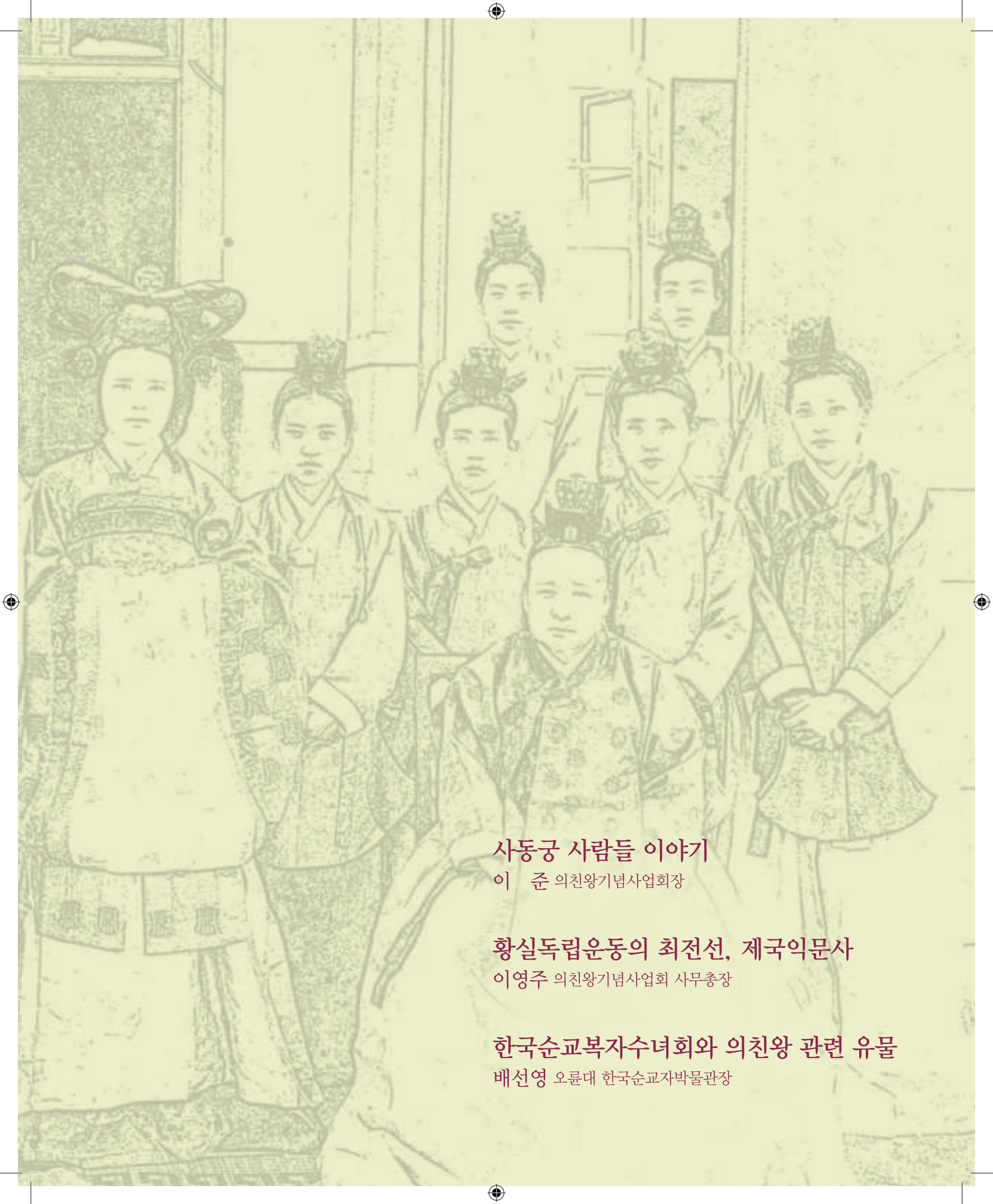
이준용(1870~1917)은 흥선대원군의 손자로 영선군에 봉해졌다.
부친의 공위를 세습하며 이준李竣으로 개명하였다. 호는 석정石庭
이다.



VI 특별논고

Essays





사동궁 사람들 이야기

이 준 의친왕기념사업회장

황실독립운동의 최전선, 제국익문사

이영주 의친왕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 의친왕 관련 유물

배선영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장

사동궁 사람들 이야기



이 준

의친왕가 종손, 의친왕기념사업회장

1. 사동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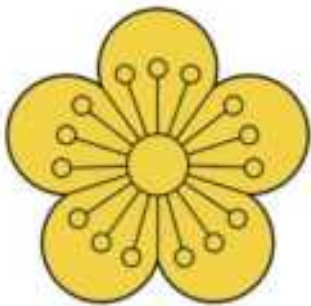
사동궁의 고종황제의 차남 의친왕 이강이 살던 궁궐이자 의친왕부義親王府가 있었던 곳이다. 순종황제의 손아래 동생이자, 영친왕의 형님으로서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이후 조선왕실의 의화군에서 대한제국의 의친왕으로 책봉됨에 따라서 격에 걸맞는 궁궐이 건립되었다. 사동궁은 지금의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길 30번대 지역 일대에 걸쳐 큰 궁궐이었으며 조계사가 위치한 견지동까지 아우르는 큰 궁궐이었다. 서양식 양관 건물 1체에 수십 동의 한옥이 있었는데, 내전 부분은 지밀 12칸, 행각 42칸, 구주방 14칸, 신주방 34칸, 침방 8칸, 유모방 12.5칸, 서행각 18칸, 이상궁방18칸, 한상궁방 18칸, 안상궁방 23칸, 동행각 22칸이었고, 외전 부분은 사랑 20칸, 행각 30칸, 방회청 8.5칸, 행랑 16칸, 외행각 12칸, 창사루 100칸, 즉 총합 426.5칸의 규모였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이후 사동궁은 의친왕이 이강 공으로 강제로 일제에 의해 격하됨에 따라 ‘이강공저李綱公邸’로 불리었고, 1930년 일제가 의친왕을 강제로 궁 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장남 이건에게 넘겨주면서 ‘이건공저李鍵公邸’로 불리다가 광복 이후 다시 의친왕의 소유가 되면서 사동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바둑을 즐기던 의친왕께서 한국기원의 모태인 한성기원의 설립자 조남철에게 사동궁의 한옥 15칸을 기원으로 제공하여, 한성기원은 사동궁에 자리를 잡은 적도 있으며 1955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사동궁의 일부를 매입하여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서울시가 매입하여 사동궁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서인사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어 현재 사용 중이며, 사동궁 한옥 중에 한 채를 수리해 현재 “인사동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사동궁은 의친왕 이강의 궁궐로써 의친왕 가문의 애환과 황실독립운동의 중요한 역사가 서린 곳이다. 의친왕의 자녀분들, 사동궁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대한제국 황실의 국장과 가문의 문장



대한제국 황실



사동궁



운현궁

2. 사동궁의 후손들

첫째 아들 이견

선선했던 바람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식사를 하면서 전하가 며칠째 의친왕궁에 안 계신다는 말을 듣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가을 바람이 요란하게 문풍지를 진동시켰다. 밖에서는 큰바람이 분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이들로 소란했다. 잠시 정적이 감도는 긴장감 속에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의친왕궁을 뒀었다. 아침에 분만의 조짐이 보이신다는 윗방 나인의 전갈을 받았을 때 곧 태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모의 힘겨운 소리는 잠시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길 반복하고 있었다. 오후에 갑자기 밖이 소란스럽더니 일본 군인들이 의친왕궁을 에워싸고는 긴장감을 조성시켰다. 장교로 보이는 군인들이 마당을 분주히 오가며 지밀방 쪽으로 몰려들어서 무언가를 엄하게 질책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심각하게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가고도 산모의 신음은 하루를 넘겼다. 다음 날도 이어졌고, 모두의 긴장과 걱정 속에서 지루한 하루가 또 지나갔다. 그리곤 새벽에 의화궁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 모두들 기쁨과 함께 안도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산모는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명을 놓는다. 안중근의 사의 손에 이토히로부미가 처단되던 날로부터 진통이 시작되었고, 이틀만인 1909년 10월 28일에 태어난다. 이견은 해맑고, 총명했으나 유년기에 일본에 볼모로 끌려 간다. 아우 우와 학습원에 들어가서 유년기를 보냈다. 청년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았다. 전쟁의 광분이 휘몰아치는 1930년대 일본 여인과 정략적 결혼을 한다. 조선인 징용을 독려하는 선전에 앞장세워졌다. 해방되기까지 일본에 잡혀서 전쟁선전용 군인으로 굴욕적인 삶을 산다. 일본의 패망 후 황족의 지휘와 군인의 직업이 박탈당한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류가 없는 해방조국은 그의 교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귀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일본에 귀화한다. 이후 국적을 상실하고 1947년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한다. 1991년 자녀들이 지켜보는 이국 땅에서 슬픔에 가득 찬 눈을 감았다. 자녀는 일본인 부인과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다.

둘째 아들 이우

1912년 늦은 가을 철거한 천제단에 철도여객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우가 태어났다. 건강하고, 총명한 눈동자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의왕께서도 좋아하셨다. 전하의 그런 미소는 의화궁에 들어온 후로 처음 보았다. 태어난 지 다섯 해 만에 운현궁으로 양자를 갔다. 고종황제께서 친히 의친왕궁에 오셨다. 내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는 우를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얼마 후 건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학습원에 들어가서 조선과 일본이 한나라라는 선전용 볼모로의 역할을 하며 살았다. 이후 의지와 관계없이 군대에 입대하고, 전쟁선전용으로 동원되는 삶을 산다. 이우는 자녀들 중에서 가장 출중했다. 명석하고, 총명했으며, 예리하게 정세를 판단하여 의친왕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가 휴가를 내어 돌아오면 모든 형제들이 모였다. 그의 휴가는 사동궁과 운현궁의 휴가가 되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다사다난한 날을 보냈다. 그리고 세계정세에 대해서도 분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조리 있게 잘 설명해주었다. 그리고는 일본에 가있는 형제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권했다. 만주에 선전용위문으로 파견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을 핑계로 운현궁에 머물렀다. 패망의 목전에 둔 일본으로의 귀국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일왕의 의사를 보내 진료를 해주겠다는 전문을 받고는 할 수 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원폭에 세상을 떠났다. 의친왕궁은 절망과 실의에 빠져버리다. 부인 박찬주와의 사이에서 2남을 두었다.

셋째 아들 이방

소현세자와 봉사손으로 양자입적이 되었다.

서늘해진 공기 탓에 풀벌레 소리가 멈추었다. 환구단이 부서지고 철도호텔이 들어섰다.

황제국의 상징인 환구단이 철거됐다. 대한제국은 절망의 시간이 길어만 지고, 지루한 정국은 온전히 받아내기 어려운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전국에서 저항의 불길이 일었던 지난 시간은 서서히 꺼져가 버리고 있었다. 의친왕궁의 셋째가 태어났다. 초롱한 눈빛이 사람들의 눈 길을 사로잡았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리듬감이 좋았다. 가족들이 모이면 춤을 잘 추었고, 흥이 있어서 인기가 가장 많았다. 해방되고 6.25때 피난을 가지 못해 인민군에게 고초를 당했다. 그래서인지 1.4후퇴 때 국민방위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켜보고자 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죽음을 맞는다. 자녀도 없이 부인 황씨는 노락당 한 칸에서 쓸쓸한 삶을 이어가시다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넷째 아들 이창

은전궁으로 양자입적이 되었고 2남을 두었다.

다섯째 아들 이수

대궁(인평대군)으로 입양을 갔다. 해방직전 동생 이곤과 일본에서 귀국하여 궁정동에서 사신다. 6.25전쟁 직전 일본에 사업체 정리 차 나가신다. 전쟁이 나서 귀국을 못하시다가, 휴전이 되고 귀국하시어 칠궁으로 들어가신다. 장면 정부시절 문화재관리국장을 하신다. 이후 영친왕을 돌보시고 귀국시키시는 일을 주도하셨다. 영친왕의 아들 구(전하)와 함께 창업을 하시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을 접고, 모든 접객을 끊으시고 칠궁에 칩거하신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도 역임하셨다. 자녀는 현재 이호가 있다.

여섯째 아들 이곤

의친왕 이강을 이어 의친왕가문을 계승한다.

수인당께서는 세명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의친왕의 둘째 아드님 우와 다섯째 아드님 수를 낳으셨고, 여섯째 아드님이 필자의 부친이신 곤이시다. 의친왕께서는 1920년대 중후반 전국순회를 김비마마와 수인당을 동행하여 떠나신다. 순회는 명목이고 일경의 눈을 피해 독립자금을 모으실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신다. 그 일이 발각되어 큰 고역을 치르신다. 각서를 쓰시고, 1930년에 일본으로 강제 압송되신다. 이때 수인당도 함께 가시는데 그분의 소생인 수와 곤(아버지)도 동행하게 된다. 의친왕궁의 장자인 건과 운현궁의 장자인 우는 영친왕에 이어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학습원에 대외 선전용으로 있으셨고, 아버지를 포함하여 모두 네분의 아드님들이 일본에 볼모가 되어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다. 세분의 형님과 마찬가지로 암울한 상황의 교육을 받으셨다.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내셨다. 리교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일본이 곧 패망하니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우 형님께서 권유하셔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시고 들어오신다.

필자의 부친 이곤 황손은 귀국하신 직후에 6.25전쟁 때는 병환으로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사동궁의 수인당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부역에 끌려가서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셨다고 한다.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자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납북자들을 색출할 때 아버지를 알아보는 이가 나와서, 지목을 당하시게 되어서 끌려가신다. 하천을 끼고 끌려가는데, 미군기의 공습이 있었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팔이 떨어져나가고 피가 튀며 미군기가 다가왔다고 하셨다. 잠시 침묵을 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셨다. 혼란한 틈을 타고, 남북대열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하셔서 비어있는 민가에 숨어들어 몸을 숨기고 하루를 물만 드시며 지내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다.

휴전 후에 의친왕께서 78세 되시던 해에 붕어하신다. 이곤은 의친왕가의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신다. 황시관의 딸 황경생(필자 모친)과 결혼하고 국회 사무처에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신다. 정권이 바뀌면서 실직을 하시고, 딸 제를 낳으시고, 아들 준(필자)을 낳으신다. 이 후 다시 국회사무처에 취직이 되셔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신다.



수, 영, 창, 방(뒷줄 왼쪽부터) 곤, 진(앞줄 왼쪽부터, 건과 우는 일본에 볼모로 감),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운현궁 앞에서 이건을 제외한 자녀와 사위며느리가 함께,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나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퇴근하시면서 매일 소년중앙을 사서 들고 오셨다. 거기에는 뱀, 베라 같은 요괴인간이 나오는 만화도 있었고 신비한 과학도 많이 나왔다. 책을 기다리다 잠이든 적도 있다. 동네 친구들이 책을 보기 위해 집에 오기도 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살라는 말씀을 자주하시면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또 역사 왜곡에 대해 지적도 자주하셨다. “우리 역사가 너무 알려진 것도 없고,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진 것만 교과서에 있구나!” 퇴직 후에는 윤현궁의 봄이라는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대원군의 본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많은 분들과 만나시고, 고종황제와 의친왕의 행적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방문하시고, 사료를 찾아 다니셨다. 당신 생전에는 역사학계나, 사회적으로 아무 성과도 없이 비난만 받으시다가 교통사고로 투병생활을 하시던 중, 나라를 잃은 제국에 상처 받으신 후손들로부터 초겨울의 서늘한 냉대를 받으시며 별세하신다.

일곱째 아들 이광

계동궁(남연군 종가)으로 양자입적 되었다. 일본의 학습원을 졸업하고 동경제대 독어학과에 재학 중 학병징집이 나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함경남도 원산에 위치한 철공장으로 강제징용을 당하셨다. 해방 후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와 숙명여대에서 국어를 가르쳤으며 1952년 외무부 통상국 정책과 사무관으로 발령받아 황손들 중 최초로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 신선대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임종하니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여덟째 아들 이현

의친왕의 아들 중 가장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셨다. 특히 미술에 소질이 있으셔서 유화와 미술재료로 각종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셨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자녀가 없으셨다.

아홉째 아들 이갑

현재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명예총재이자 황사손 이원의 부친으로, 아들 이원을 영친왕계로 양자를 보내 황사손을 잇게 한다. 의친왕 승모회를 결성하시어 예를 행하셨다. 현재까지도 이 모임이 의친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의친왕 기신제(8월 15일)를 모시고 있다.

열번째 아들 이석

〈비둘기집〉으로 유명해진 ‘노래하는 황손’이란 별명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한옥마을내의 승광재에 머무시면서 황실문화사업을 하신다. 전주시와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자녀로 2녀가 있다.

열한번째 아들 이환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며 정년퇴직을 하시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

열두번째 아들 이정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



의친왕비 장례식에서 상주喪主를 하고 있는 이곤 황손,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의친왕 가문(사동궁)을 이은 이곤 황손, 의친왕기념사업회 소장

3. 이준, 의친왕가 사동궁 종손



2022년, 평생을 직장생활만을 하다가 이제 어느덧 환갑이 지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 의친왕가의 종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그동안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 생활 속에서 외면하고 살았던 술한 세월이 떠오른다. 미국에서 항상 의친왕가의 장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라는 당부를 주시는 해경 고모님과 의친왕을 존경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과, 의친왕가의 후손들이 모여 〈의친왕기념사업회〉라는 비영리법인을 발족하였다. 수년 만에 의친왕 기신제(8월 15일)를 제대로 모시고 그 발족을 고하였고, 첫 사업으로 순종황제께서 건립하신 경기여고의 경운박물관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의친왕의 관련 유물을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

망한 황실이라는 미명하에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커왔기에 더더욱 황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학창시절인 1987년 덕혜옹주님의 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황실의 관심을 가져 주셨다. 그로 인해 9일 뒤 영친왕비 이방

자 여사께서도 돌아가신다. 상청에 앉아서 생각해보니 몸이 온전하시지 못한 덕혜옹주께서 먼저 가시기를 영친왕비께서는 병상에서 참고 계셨던 것 같다. 앞서 보내시고 그제서야 당신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덕혜옹주와 영친왕비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원수의 적대국이었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두분의 삶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상청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회한과 통한의 눈물이 상복을 적시며 새벽을 맞았고, 상이 끝나고 의친왕 할아버님의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역사 교과서가 이상해!”

흘려들었던 것들이 집안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분류가 되고 분석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쁜 날을 보내면서 틈틈이 공부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친왕의 제사와 비석을 세우는 문제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 개인은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큰 난관에 부딪혔다. 마치 거대한 절벽 앞에 서있었다. 그런 좌절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공감좌절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포기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기승을 부린 한 날, 완은궁의 동생 영주가 경기여고에서 오얏꽃 황실 전시를 하니 함께 꼭 가보자고 한다. 뉴욕의 고모님께 전시를 보러 간다하니 “경운박물관에서 맹현가의 남주가(필자에게는 누님 뻘) 보유한 왕실유물을 전시를 하니 가봐라!” 하셨다. 무심코 찾았던 곳에서 장경수관장님과 박경자, 설영자 부관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황실의 인물 중 고종, 순종 황제나 영친왕, 영친왕비에 관한 전시를 수차례 있었지만 이제껏 의친왕에 대한 전시는 단 한번이 없었다. 전국에 흩어진 의친왕의 유물을 모아서 전시하고 황실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의친왕과 관련인물 등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박물관 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로 우리의 의친왕 전시 개최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렇게 이번 전시가 시작되었다. 의친왕가의 장손으로서 전국의 의친왕 후손들을 수차례 만나며 유물을 대여하고, 미국에 산재한 의친왕가의 유물을 모으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나 또한 잘 모르던 집안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분들의 자취를 살피다 보니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그 속에 있었다.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퍼즐이 맞추어가지만, 독립운동의 특성상 사료가 남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료와 증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라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전시로, 내 세대에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세대의 몫으로 넘겨주기 위하여 위대한 첫 발을 디더본다. 분명 후대의 학자들과 후손들이 또 자료를 찾아내고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과제를 전해주고 싶었다.

여기에 제시되는 기록은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여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기록을 내어보고자 한다.

대한제국과 일제시대, 해방과 6.25전쟁,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황실의 무거운 책임을 안고, 동고동락 해오신 나의 숙부님들과 고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친왕 전하와 함께 뜻을 펼치고자 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 글과 전시를 바치고 싶다.

의친왕 가계도

의친왕 이강 1877.03.30~1955.08.16

의친왕비 김덕수/김숙 1880.12.22~1964.01.14

순위	성별	왕실명	아명	호적명	생존연대	생모	손자	양자출계
1	1남	건	용길	－	1909.10.28~1991.12.21	수관당 정씨	킨야, 아키코 코우야	일본귀화 킨야-마에다家 양자 입적
2	2남	우	성길	－	1912.01.15~1945.08.07	수인당 김홍인	청	운현궁 양자 ¹⁾
3	3남	방	홍길	해진	1914.11.22~1951	수현당 정운석	－	소현세자파 이기손
4	4남	창	창길	해직	1915.04.11~1986.11.13	조병숙	일주, 석주, 제	은전궁 양자 ²⁾
5	5남	주	수길	해일	1918.02.23~1982.12.10	수인당 김홍인	한주, 호	대궁 양자 ³⁾
6	6남	곤	명길	－	1920.11.04~1984.03.23	수인당 김홍인	양, 기, 준, 제	사동궁 종손
7	7남	광	형길	해청	1921.03.30~1952	수은당 송은점	－	계동궁 양자 ⁴⁾
8	8남	현	경길	－	1923.03.30~1996.02.17	수경당 김창희	－	
9	9남	갑	충길	해룡	1938.03.07~2014.12.13	함개봉	원, 정, 은영	원-영친왕가 ⁵⁾
10	10남	석	영길	해석	1941.08.30~현재	홍정순	홍, 진	
11	11남	환	문길	해선	1944.02.15~현재	김혜수	성준, 연재	
12	12남	정	정길	해준	1947.03.17~현재	홍정순	－	
13	1녀	영	길순	해완	1915.10.05~1981	수덕당 이희춘	－	계동궁 입적
14	2녀	진	길운	해원	1919.04.24~2020.02.08	수덕당 이희춘	진휴, 진왕, 진홍, 진주	계동궁 입적
15	3녀	찬	길연	해춘	1920.04.08~1986	수완당 김정완	박형우	계동궁 입적
16	4녀	숙	길영	해숙	1920.04.18~1991	수길당 박영희	이숙경	계동궁 입적
17	5녀	공	길상	해경	1930.05.04~현재	김금덕	－	
18	6녀	장	희자	희자	1940.05.13~2022.08.11	김혜수	최종문, 최수미	
19	7녀	용	숙기	해란	1944.07.14~현재	홍정순	전설환, 전경련, 전해련	
20	8녀	현	향숙	해련	1950.03.10~현재	홍정순	박정현, 박수현, 박진현	
21	9녀	민	창희	창희	1953.02.24~현재	김혜수	정유식, 정유진, 정유경	

승적^{承嫡}* 관계 *서자를 종친적자로 올리는 것

1) 윤현궁

1대 흥선대원군 ⇒ 2대 흥친왕 이재면 ⇒ 3대 영선군 이준용 ⇒ 4대 흥영군 아우(의왕2남) ⇒ 5대 이청

2) 은전궁

1대 은전군 ⇒ 2대 완평군 이승응 ⇒ 3대 이현용 ⇒ 4대 이해직(의왕4남)

3) 대궁

9대 이연응 ⇒ 10대 이재극 ⇒ 11대 이안용 ⇒ 12대 이수길(의왕5남) ⇒ 13대 이호

4) 계동궁

1대 연령군 이훤 ⇒ 2대 낙천군 이온 ⇒ 〇대 은신군 이진(사후 봉사손 지정) ⇒ 3대 남연군 이구 ⇒ 〇대 흥녕군 이창응(부친보다 먼저 별세) ⇒ 4대 완림군 이재원 ⇒ 5대 이기용 ⇒ 6대 이해청(의왕7남)

5) 영친왕

1대 영친왕 이은 ⇒ 2대 황세손 이구 ⇒ 3대 황사손 이원(의왕9남 갑 아들)

황실독립운동의 최전선, 제국익문사



이 영 주

의친왕기념사업회 사무총장

3110 1412 351 4106 512 7310

‘대한독립만세’를 뜻하는 제국익문사에서 사용했던 암호숫자

대한제국은 1902년 6월 통신사를 가장하여 고종황제의 명으로 황제 직속 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당시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광무개혁을 통해 교통, 산업, 군사 등에서 부국강병의 근대화 정책을 수립하며 1902년 무렵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고종황제의 밀서를 외국에 전달하는 업무가 많았기에 완벽한 보안을 요구했으므로 겉으로는 통신사를 위장했으며 매일 보고서 비보(秘報)를 작성하여 황제를 보필하였다. 정부 고관과 한성(漢城) 주재 외국 공관원의 동정, 국가 권력을 침해하는 국사범(國事犯)과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탐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1903년 육군과 해군의 창설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황제의 조치가 발표되고 이는 점차 증액되는 군사비 지출로 확인이 된다.

1901년에 이르면서 대한제국의 예산규모는 확실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그 중 군사비에 대한 지출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하게 된다.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만은 만주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확인받는 외교적 타협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반대급부인 한반도에서의 대한제국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또한 그것을 빌미로 러시아와 교섭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유일한 배타적 식민지 영역인 한반도의 상실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다방면에 걸친 대한제국에 대한 견제를 구사하게 되는데 제국의 상당수의 고급관료를 매수 대상으로 하여 그 공작을 통해 내각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황제권을 견제하여 그 근대화의 방향을 일본의 정책적인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침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국에서의 황제권을 보전하고 역정보의 탐지를 통해 일본의 공작을 확인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국익문사라는 정보기관이 설립되게 된다.

고종황제는 일본에 의해 언론이 장악되는 것을 염려하였고 이에 일본의 언론장악을 막고 황실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국가에 필요한 책과 신문을 인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현대판 통신사를 설립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제국익문사의 총 책임자 독리 밑에 61명의 통신원을 두고 한성 지방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한성에 드나드는 일본 낭인, 정치인, 수비대, 헌병대 뿐 아니라 대한제국 경계를 어지럽혔던 일본 상인들의 움직임, 익명의 전단과 유언비어로 민심을 선동하는 사람들, 국가 기밀을 외국인에게 넘기거나 외세에게 빌붙은 친일 고관대작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보고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져서 헤이그 특사파견을 통해 을사늑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공작활동과, 뤼순 감옥에 갇혀 있던 안중근 의사를 구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밀사 2명을 파견하기도 하였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후 안중근 의사의 관할 권한을 일본에서 러시아 법정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였고,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스티븐스 암살 의거 촉발을 하기도 했다.

정보활동에 대한 주요 대상은 일본 수비대장관과 경과, 일본 정당과 낭객, 일본 상인배로 폭약 등 각종 금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 일본인 조선협회 지회, 일본 정토종 교당, 인천과 부산의 일본 철도회사, 일본인 경영의 한성신보사, 일본 전신 수비대와 헌병, 일

본인 창립학교와 그 학생, 일본인으로 뚜렷한 이유없이 돌아다니는 자, 일본인으로 인삼을 몰래케고 증삼(인삼을 찌는것)하는 자 일본인으로 내지에 함부로 거주하는자 등이 포함되었었다.

고종이 독살당한 이후 제국익문사 조직은 의친왕 이강이 조직을 물려받아 황실독립운동의 최전선으로 활동하게 되며 만주, 연해주, 러시아, 미국 등에서 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 사동궁은 삼엄한 일본의 감시 아래 있었기에 의친왕 이강께서는 파로호 생활을 자처하며, 기생들을 통해 문서들을 지금의 수구문이 위치한 동대문 일대의 유곽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제국익문사 요원들이 독립자금 전달 및 비밀보고서와 간찰을 전국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제국익문사는 황제 직속의 제실기관의 형태로 총 책임자인 독리는 특별히 황제가 신임하는 1인으로 임명 되었고 그 아래 3명의 장교, 사무司務, 사기司記, 사신司信이 있었으며 총 61명의 정보원이 있었다.

- 상임 통신원 16인 : 13도 관청, 군대, 지방의 사역담당
- 보통 통신원 15인 : 한성부 담당
- 특별 통신원 21인 : 외국 공관, 경찰, 일본의 군사, 사업, 항만 시설 담당
- 해외 통신원 9인 :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 외국
- 임시 통신원 :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은 임시통신원

수집된 정보는 제국익문사 본사에서 정리하여 황제에게 수집된 정보를 보고할 때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글자가 보이지 않게 처리하여 불빛에 비춰야 읽을수 있는 화학비사법化學秘寫法, 내용을 적어서 특수 화학 약품을 써야 비칠 수 있는 글씨를 사용하고 봉투에는 황실문양이었던 오얏꽃과 성총보좌聖聰補佐 즉 황제를 보좌한다는 전용인장을 사용하여 보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했다. 대한제국을 위하여 그리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애썼던 고종황제는 직속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의 설치 목적과 활동 영역, 조직 운영 시스템 등을 명시한 규정집『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이란 책에 남겨 놓았다.

〈제국익문사비보장정〉

제 1조 본사는 제국익문사라 칭하여 사무소를 한성중앙에 둘 것

제 2조 본사는 매일 비보秘報를 작성하여 오로지 성총聖聰을 보명補明하는 것을 주의로 할 것

제 3조 본사가 비밀히 탐지하는 사항은 4종으로 나누어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거나 이미 드러난 것을 물론하고 비밀로 조사하되 이미 드러난 일은 근저를 쫓아 탐득하고 드러나지 않은 일은 시작과 끝을 미리 정리하여 황제께 보고할 것

- 경성에서의 일 - 내지에서의 일 - 항구에서의 일 - 외국에서의 일

제 4조 위 4종의 관할 구역을 분정하는 일

- 경성 : 5서 각 방곡, 외국공관 거류지, 철도 정차장, 연로 각 나무, 각 사찰
- 내지 : 13도 관찰부 목, 부, 군
- 항구 : 8항구 개항장
- 외국 : 통상국과 기타 긴요한 지방

제 5조 경성에서 비밀히 탐지할 사항을 세분하는 것

(총 33개 사항 일본측 대상으로 지목 7개 사항 *생략)

제 6조 내지에서 비밀히 탐지할 사항을 세분하는 것

(총 18개 사항 일본을 대상으로 지목한 것 7개 사항*)

제 7조 항구에서 비밀히 탐지할 사항을 세분하는 것

(총 12개 사항 그중에 일본을 대상으로 지칭 3개 사항*)

제 8조 외국에서 비밀히 탐지할 사항을 세분하는 것

제 9조 본사 비보를 황제에게 올릴 때 먹을 사용하지 말고 화학 비사법秘寫法을 정서하여 비밀히 황제가 보시게 할 것

제 10조 본사 비보를 진정할 때는 인장을 봉투에 찍어 표준 할 것

제 11조 본사의 사무실을 정리함을 위하여 임원을 둘 것

- 사무司務 1인 - 사기司記 1인 - 사신司信 1인

제 12조 사무는 아래 사항을 관장 할 것

- 사중 사무를 주관할 것
- 비보 수집修輯에 종사할 것

제 13조 사기는 아래 사항을 관장 할 것

- 사중 재정을 주관할 것
- 비보 수진修進에 종사할 것

제 14조 사신은 아래 사항을 관장 할 것

- 사중 장부帳簿를 관장할 것
- 비보 수사에 종사 할 것

제 15조 통신원은 5종으로 나누어 통신 사무에 복종케 하여 그 배치와 정액을 아래와 같이 하되 그 수를 증감할 것

제 16조 본사 비보를 구성하여 올리는 것 이외에 외면으로 매일 사보를 발간하여 인민에게 알리고 국가에서 필요할 시에 서적으로도 인쇄할 것

제 17조 본사의 비보는 외국 반관보의 예에 따라 제실의 기관으로 칙령에 의해 봉송하여 간포하는 요지가 아래와 같이 할 것

(*인민에게 알리는 행동전략에 관한 지침 부분 생략)

제 18조 본사는 통신 보고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파견지의 통신은 전보로 하되 전보통사와 지사의 계약에 의할 것

제 19조 본사는 외국 통신을 접수함을 위하여 외국 통신사와 연합 계약함을 의정할 것

제 20조 본사의 신보는 각 부, 원, 청과 각 지방관청 칙주관임관(사법재판관)에게 분전되 매월조에 관보 예를 위하여 각기 사계국으로 추정하여 경비중에 보용할 것

제 21조 본사의 매월 지급금액의 명세서는 매월조에 정리하여 황제께서 어람하심을 공할 것

제 22조 특별히 제실의 보신하는 1인으로 본사의 독리를 명하사 사원을 감독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것

제 23조 본사의 세칙은 성지(황제의 뜻)를 받들어 수후 규정할 것

제 24조 확정하여 본사를 설립하고 충애지성을 다하여 근소를 보답하기로 깊이 맹세한다

광무光武 6년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고종황제에 의한 공식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자, 이 조직은 의친왕 이강이 물려받아 독립운동 비자금 조달 및 순종황제에게 외부의 상황을 알리기도 하였다.

활동 내용은 우선 각국 공사관 및 영사관과 관련된 사항과 각국의 정부, 국회, 육·해군, 전쟁, 대한방침對韓方針 그리고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거나 국가의 재산과 영토를 외국에 몰래 판매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첩보 활동에 속하는 것이 많다. 이 밖에 천주교와 기독교, 동학교도, 정감록을 믿는 자들, 화적들에 대한 사항들도 사동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국익문사의 요원들은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져서 정사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황제가 신임했던 제국익문사 주요 요직의 종친들 및 신하의 후손의 증언과 의친왕의 국내외 활동반경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요원들의 직업도 일반 상인, 농민, 대장장이, 포수, 나인 등 다양한 직업군 속에서 제국익문사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친왕 이강과 함께 독립운동을 진행한 송암 김재식, 동계 정온가, 경주 최부잣집의 인물들의 활동을 눈여겨 볼 수 있고 특히 그동안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의친왕 이강의 해외 활동, 특히 러시아 등 유럽국가 들에서의 활동과 미국, 일본에서의 긴밀하고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독립운동의 의지는 비록 겉으로 화려한 결실로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그 숭고한 정신만큼은 이름 없이 활동한 수많은 제국익문사 요원들과 함께 지켜져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 의친왕 관련 유물



배 선 영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장

I. 들어가는 말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창설자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와 공동창설자 윤병현 안드레아, 홍은순라우렌시오 수녀가 1946년 4월 21일 경기도 개성에서 창설한 한국 수도회이다. 수도회는 ‘순교자 현양’이 고유한 사도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에 들어온 한역서학서에 대한 중대한 관심은 1770년대 말과 1780년대 초에 이르러 천주교 신앙을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그 결과 1784년에는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양에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1784년 무렵 이를 주도한 양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천주교가 전파되어 갔다.

그런데 성리학이라는 사유형태에 침잠해 있던 대다수의 조선 학자들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천주교 신앙만은 이단시하였다. 심지어는 서양의 문물까지도 천주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여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천주교는 그 유입 초기부터 수용과 배척이라는 사상적 대립의 양상을 조선 사회 안에 배태시켰다. 이러한 양상이 당시의 정치 현상 내지는 사회 윤리와 결부됨으로써 천주교 박해라는 현실로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한국천주교는 1784년 한국천주교회 창립 이후 조선왕조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유교와 충돌하여 박해를 받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수도회는 이러한 한국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데 사명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수도회는 그 사명의 일환으로 창설 초기부터 전국의 교우촌을 중심으로 순교자들의 유물과 유품 등을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에도 관심을 가져 각 지역에 흩어진 민속품들도 함께 모았다. 그러던 중 의친왕과 의친왕비 관련 유물을 기증받게 되었다. 이 발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친왕과 의친왕비 관련 유물의 소장 경위와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하여 앞으로 이 유물들의 보존을 위한 노력과 그 가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II. 의친왕과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의 만남

의친왕 이강(1877~1955)은 고종의 둘째 아들로 의왕 또는 의화군이라고도 불린다. 1893년 김사준의 딸 김덕수(1880~1964)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자, 1900년 8월 의왕에 봉해졌다. 그리고 그의 비인 김덕수는 1907년 의왕비로 봉해졌다. 의친왕은 황제의 아들로서 언제나 당당하였고, 특히 배일排日 정신과 독립정신이 다른 어떤 황족보다 높았다. 임시 정부로 망명하기 전 보낸 편지에 “나는 차라리 독립된 한국의 한 서민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은 『의왕 원유관遷遊冠』, 『의왕영왕책봉의궤』, 『추봉책봉의궤』 등 다양한 황가皇家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가톨릭 박물관에서 천주교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궁중유물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공동창설자인 마텔 윤병현 수녀와 브로마텔 홍은순 수녀가 의친왕비 김덕수(마리아)와의 만남으로 가능하

게 된 것이다. 소장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설자인 방유룡 신부가 서울 가회동 성당에 재임하던 시기(1950.5~11)에 홍은순 수녀는 성당에서 교리를 가르쳤다. 당시 의친왕과 의친왕비가 거처하던 안국동 별궁은 가회동 성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어느 날 별궁 근처에 사는 이복홍(우르술라) 여사에게 홍은순 수녀가 의친왕비의 안부를 묻게 되어 의친왕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만남으로 의친왕비가 청파동에 위치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을 몇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때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 이들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의친왕비는 그 수녀들을 수양딸로 삼고 싶어할 만큼 그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후 의친왕은 1955년 8월 9일 병석에서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의친왕비는 8월 14일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의친왕은 생전에 입교를 권유하는 윤형중(마태오, 가회동 성당 초대 주임, 1946.6~1950.3) 신부에게 “할아버지(홍선대원군)가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였으니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천주교에 귀의하겠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바람으로 의친왕은 병석에서 세례를 받았다.

의친왕과 함께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한 의친왕비는 이후 건진 성사(1956년 5월 20일)를 받았고 그 사진도 남아있다. 신앙생활을 하던 의친왕비는 당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순교자들의 유품과 유물 등 한국교회사 관련 자료 뿐 아니라 한국전통문화와 관련된 자료들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복홍(우르술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에 의친왕비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뜻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원유관, 의대衣帶, 대한제국기 의궤 등 다양한 유물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하였다.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가 의친왕비로부터 직접 기증받았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의친왕비의 뜻에 따라 몇몇 수녀들에게만 기증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다. 아마도 의친왕비가 국가의 기록인 의궤를 수도회에 기증하는 것에 대해 당시 상황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친왕 관련 유물을 비롯한 궁중 유물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소장하게 된 것이다.

III.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과 의친왕 관련 유물 보존을 위한 노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6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립 초기 공동창설자인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는 창설자 방유룡 신부와 함께 수도회 특수목적인 순교자 현양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교자 유물 수집, 순교자 현양 연구에 매진하였다. 한국전쟁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도회가 지향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실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파견된 전국 분원의 수녀들도 그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한국천주교회와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은 천주교 관련 서책, 유물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친왕 관련 유물을 비롯한 궁중유물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었다.

이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고 교육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산 오륜대에 한국순교자기념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서울과 떨어진 지역민들을 위해 서울에서 먼 부산지역에 순교자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1982년 9월 25일 기념관을 개관하였고 이후 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은 1784년 천주교회가 창립된 이후부터 100여 년간 모진 박해 속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언한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높이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사명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물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설립된 후 2층에 별도로 궁중유물 특별실을 마련하여 의친왕비가 기증한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이렇게 왕실의 유물은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이 개관되면서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2009년 3월 2일 부산광역시에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궁중 유물 중 의친왕이 착용했던 「원유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2009년 10월)을 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몇 년 뒤인 2013년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원유관」을 감정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원유관」을 심의한 위원들은 「원유관」이 진품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몇 점의 사진 외에는 소장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전傳 의왕 원유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지

정 예고일 이전까지 명확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당시는 수도회 공동 창설자 두 분 모두 선종하여 그 소장 경위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뜻밖의 손님이 박물관을 찾아왔다. 바로 의친왕비의 친정 조카인 김종순 교수였다.

김종순 교수와의 첫 만남은 2009년 1월 초, 한국박물관협회 연합전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오색창연’ 전시회에서 의친왕의 다섯째 따님인 이해경 왕녀와 함께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이해경 왕녀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원유관」을 보고 소장 처인 본 박물관 방문을 희망하여, 그해 11월 1일 김종순 교수와 다녀갔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3년 3월 9일 김종순 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함께 본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皇家의 氣品 : 천주교와 조선왕조」를 관람하러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김종순 교수에게 「원유관」의 문화재 지정 과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김종순 교수는 이를 듣고 미국에 거주하는 이해경 왕녀에게 연락하여 의친왕비의 친정 조카며느리 정환희(丁皖熙, 의친왕비 남동생 김택기의 차남 김종각의 부인) 여사를 소개해 주었다. 정환희 여사는 1942년에 사동궁(寺洞宮)에 입궁하여 의친왕비를 20여 년 동안 모시다가, 의친왕비가 선종한 뒤 삼년상을 치르고 궁에서 나온 분으로 이 왕실 유물의 소장 경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였다. 2013년 3월 30일 의친왕비의 친정 조카 김종옥(소피아, 의친왕비 남동생 김택기의 차녀) 여사의 자택에서 정환희 여사(당시 90세)를 만났다. 자택은 서울 여의도 성당 근처에 위치하였다. 정환희 여사는 의친왕비가 원유관 등 여러 점의 궁중유물을 기증할 때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 처음에는 증언을 꺼렸다. 그 이유는 의친왕비가 당부한 “수녀회에 기증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는 엄명을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권유와 설득으로 어렵게 증언을 해 주었다.

정환희 여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원유관을 비롯한 궁중유물을 선학원(禪學院)으로 몰래 옮겨 보관한 일, 병중에 있던 덕혜옹주의 마지막 모습 등 직접 경험한 많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 구술을 모두 녹취하였고, 이후 해당 부분 녹취록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의왕 원유관」으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의왕 원유관」은 조선시대 원유관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유물로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왕실 복식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중요 민속문화재 제274호로 지정(2013.6.14) 되었다.

이렇듯 「의왕 원유관」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의궤의 정확한 출처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후 어람용 의궤인 『의왕영왕책봉의궤』와 『추봉책봉의궤』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901-6호로 지정(2016.5.3) 되었다. 이는 본 박물관이 한국 가톨릭 문화와 함께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기록유산과 민속문화재를 알려 한국 문화를 이어가고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오룬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의친왕 관련 유물의 내용

오룬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이후 궁중유물은 전체 120여 점 이상이다. 기록 자료를 비롯하여 의복류, 관모, 장신구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이 대한제국 당시 황가의 유물이거나 궁중에서 사용하던 유물이다. 사용자와 각 시대별 유물을 크게 분류해 보면 흥선대원군 관련 유물, 의친왕과 의친왕비, 순정효황후, 순종황제의 장례를 담당했던 장의계 관리였던 유해종 기증 유물 등이다. 그 가운데 의친왕과 의친왕비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의친왕비가 기증한 것으로 원유관과 의친왕의 단령과 익선관, 영친왕의 땃기, 의궤, 의친왕비의 장신구류와 가채, 지팡이 등 총 40여 점인데 그중 몇 점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박물관에는 『의왕영왕책봉의궤』(142쪽)와 『추봉책봉의궤』(162쪽) 등 2건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의궤는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으로, 조선시대 국가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글과 그림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다. 의궤에 기록된 행사들은 왕의 혼례와 장례,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제사와 잔치, 왕의 활쏘기 행사, 궁궐을 짓는 일,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일 등이 있다.

『의왕영왕책봉의궤』는 1900년 8월에 둘째 아들 의화군 강을 의왕으로, 셋째 아들 은을 영왕으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비유일본이자 완질본이며, 어람용이다. 『추봉책봉의궤』는 1907년 순종황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흥선대원군을 현의대원왕, 여흥부대부인 민씨를 순목대원비, 완화군을 완효현왕으로 추봉하고, 의친왕의 아내인 원원군부인을 의친왕비로 책봉한 의례를 기록한 것이다.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비유일본이자 완질본이며, 어람용이다. 이렇듯 의궤 2건은 각각 의친왕과 의

친왕비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이며 세계기록유산이다.

현재 의궤의 주요 소장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의궤를 소장한 기관은 12곳 정도이다.

의궤에는 왕의 지시사항을 적은 명령서, 행사준비를 위해 각 관청 간에 주고 받았던 문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한 문서, 행사의 역할 담당, 행사에 동원된 인원수, 행사에 사용한 물품 종류, 돈을 어디에 얼마큼 사용했는지 등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다. 그리고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린 반차도가 있다. 이 의궤 내 표지식을 자세히 보면 의왕과 영왕의 금인을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써서 표시한 것이다. 표지에는 ‘의왕지인록, 영왕지인록, 의왕지인호감, 영왕지인호감이라 적혀 있다.’

다음으로 의친왕의 원유관이다. 의화군 이강이 군에서 의왕으로 책봉되었을 때 착용한 것이다. 원유관은 조선시대 왕들이 착용한 왕관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관모冠帽는 면류관, 원유관, 익선관 등이 있는데, 이 중 원유관은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가 신하들로부터 조하朝賀(국가 경축일에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일)를 받을 때 강사포緋紗袍에 착용하는 관이다.

현재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통천관을 쓰고 찍은 사진은 남아있지만, 원유관으로 현존하는 실제 유물은 의친왕 원유관이 유일하다. 착용자가 정확하면서 언제 착용한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물이다. 따라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조선 시대 왕실 복식 제도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친왕 원유관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1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의친왕이 입었던 단령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왕세자 또는 왕자의 일상복常服이다. 겹감은 흑색 운문사이고 안감은 홍색 운문사이다.

그 외 흥선대원군이 친히 쓴 편지글과 그가 사용했던 망건 등 대원군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유물, 순정효황후의 당의 등이 소장되어 있다. 순정효황후와 관련한 유물은 소례복, 여름용 당의 등 10점 정도이다. 흥선대원군과 순정효황후의 유물의 경우는 흥선대원군 딸의 시가 인척인 김화진과 순정효황후 윤씨 집안과 친분이 있는 수도회 공동창설자의 지인을 통해 기증받은 것이다

V. 미래의 보존과 가치의 확장을 기대하며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은 순교자 현양이라는 수도회의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기억의 공간이다. 이곳에 소장된 유물, 기록물 등의 자료들은 한국 천주교의 수용과 이후의 활동, 그리고 탄압과 신앙의 자유 등 한국천주교회가 걸어온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친왕과 의친왕비 관련 자료를 비롯한 궁중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박해 당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한 흥선대원군과 그 후손들의 유물이 가톨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왕조와 천주교의 역사적인 관계를 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물 자료와 부대부인 민씨와 의친왕과 의친왕비의 세례 등 가톨릭과 왕실과의 역사적 관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박물관은 신축공사 중에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박물관의 한 공간에 조선왕실의 기록물과 민속자료 등 궁중유물들이 보존·전시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의 기반을 재창출해 나갈 수 있으며 그 가치를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부산지역에서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의친왕과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은 그 한 축을 담당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1

1 의친왕비 건진 성사(1956년 5월 20일), 가회동성당

2 의친왕 6녀 이희자(중앙)가 총원을 방문하여 원유관을 보는 장면

3 의친왕비의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 방문

앞줄(왼쪽부터) 의친왕비 김덕수 마리아, 이복흥 우르술라
뒷줄(왼쪽부터) 마텔 윤병현 안드레아 수녀, 뽀로마텔 홍
은순 라우렌시오 수녀, 김순옥 아우구스티노 수녀, 우인숙
다미아노 수녀



2



3

전시장 전경





2022 하반기 특별기획전
경운박물관 · 의친왕기념사업회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기억

2022.10.14.-2023.01.20.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주 관 경운박물관, 의친왕기념사업회

책임기획 경운박물관

전시주관 의친왕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해경
경운박물관장 조효숙 의친왕기념사업회장 이 준

기획진행 경운박물관 장경수 박경자 손창옥 김혜진 이경희
이혜원 김종민 박상진 문희원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영주 김예성 김대영 윤상원

도록편집 배방훈 이계호 호원숙 김선희

진 행 설명자 이미영 이영희 김용정 임연옥 김경숙 이정희 한종혜 김명희 김귀란 오현옥
정순은 지미영 공희숙 민승옥 이경순 이숙명 최의려 최은순 이수미 강진선 김규인

번 역 경운박물관 손창옥 민승옥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영주 김대영

사 진 서헌강

도록디자인·제작 (주)디자인나눔 02-325-3264

발 행 일 2022년 10월 31일

발 행 인 조효숙

발 행 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경운박물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www.kwmuseum.org

ISBN 979-11-974654-1-3 93600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22 Kyungwoon Museum

 본 도록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